

농업·농촌경제동향

2003 겨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은 농림부의 지원으로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와 농업·농촌경제의 주요지표에 관한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정책 담당자 및 농업종사자의 의사 결정에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에서 분기별로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봄(4월), 여름(7월), 가을(10월), 겨울(12월)에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농업관측정보/농업농촌경제동향”)

작성자: 농업정보화팀(김병률, brkim@krei.re.kr/김종선, sun589@krei.re.kr
/김재환, jhkim74@krei.re.kr)

연락처: 3299-4220 / 팩스: 964-5631

목 차

<요 약>

I. 국제경제 동향

- 1. 경제성장 1
- 2. 환율 및 원유가격 3

II. 세계 농축산업 동향과 전망

- 1. 세계 농축산업 동향 6
- 2. 세계 곡물 전망 23

III. 국내경제 동향

- 1. 경기 40
- 2. 소비 및 투자 43
- 3. 수출입 및 무역수지 45
- 4. 고용 47
- 5. 물가 48
- 6. 금융 및 외환 52

IV. 농촌경제 동향

- 1. 농촌물가 54
- 2. 농가교역조건 57
- 3. 농업인력 58
- 4. 농산물 수출입 59

V. 주요 품목별 수급 및 가격 동향

1. 식량작물 및 사료곡물	65
2. 채소류	70
3. 과일	85
4. 과채류	97
5. 축산	111

VI. 특별주제

1. 미국 Rice Year Book - 세계 쌀 전망	125
2. 농업총조사에 의한 농업구조 변화 분석	130

부 록

2003년 4/4분기 농정이슈와 여론동향	147
------------------------------	-----

<요 약>

I. 국제경제 동향

-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 경제가 회복되고, 중국 등 개도국 경제도 2004년에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계경제는 2004년에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임.
- 미국경제는 10월에 설비투자와 주택경기의 호조를 바탕으로 산업생산이 꾸준히 늘어나고 고용사정도 개선되고 있음. 11월에도 ISM 제조업지수와 소비자신뢰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실물지표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일본경제는 3/4분기 GDP성장률이 플러스(전기대비 +3%)를 지속한 가운데 10월 들어서도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광공업생산이 증가하고 있음.
- 유로지역 경제는 전년도 4/4분기 이후 정체 내지 감소해 오던 유로지역 GDP가 3/4분기에는 전기대비 0.4% 성장하였음. 11월에도 유로지역 경기체감지수, 독일 Ifo 경기지수 및 프랑스 INSEE지수 등 주요 심리지표의 개선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중국경제는 수출 및 소비의 신장세가 확대되면서 산업생산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과잉투자에 대한 규제와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로 투자의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고 있음.
- 동남아시아 경제는 세계경기의 개선으로 생산과 수출 증가세과 확대되고, 홍콩 및 대만은 물가하락세가 둔화되고 있음.
- 최근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달러약세가 빠

르게 진행되고 있음. 엔화의 경우 일본 외환당국의 시장개입, 동경에서의 테러발생 우려 등으로 하락세가 상대적으로 소폭에 그침. 유로화의 경우 미국에 대한 테러위험 고조로 안전자산으로서의 유로화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 가운데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약세.

- 국제유가는 중동지역 정세불안에 따른 공급차질에 대한 우려, 그리고 미국 북동부지역의 폭설과 한파 등으로 인한 계절적 요인과 함께 석유재고 감소 등의 영향으로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II. 세계 농축산업 동향과 전망

-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의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3국간의 특별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합의하였음. 빠르면 2004년 1월부터 정부간 협상이 시작될 전망이며, 일본은 이미 싱가포르와 2002년 11월부터 FTA를 실시 중에 있어 앞으로 ASEAN과의 경제협력이 급진전될 것으로 보임.
- 브라질의 루라 대통령은 12월 12일 주로 개도국만이 참가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제안하였음. 브라질은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에 대해서도 미국과 대립하고 있으며, 우선 남미지역의 FTA 실현을 시도하고 있음. 이번에 제안한 개도국 FTA는 브리질이 2004년 6월 상파울로에서 열릴 예정인 ‘통상과 개발에 관한 국제연합회의’에 겨냥하여 G20에 제안한 것으로서 향후 이들 국가의 반응이 주목됨.
- 러시아 정부는 1994년 12월 WTO 가입 신청한 이후 조기 가입을 위해 가맹국과의 협상을 계속하고 있음. 2002년 중반까지만 해도 지난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각료회의에서 가입할 예정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농업보조금 감축과 국내 에너지가격 현실화 등 쟁점 사항에 대하여 WTO 가맹국과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가입

이 다소 지체되고 있는 실정임.

- 1999년 러시아의 식품수입은 전년대비 28.7% 감소한 70억 달러에 달했으며, 전체 수입식품의 84%를 서방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수입식품의 구조는 1996년 10대 수입식품에 설탕, 육류, 가금류, 돼지고기, 포도주, 담배, 밀, 사과, 밀가루, 육류제품이 포함되었으나 1999년에는 담배원료, 차(茶), 해바라기 씨앗, 식용유가 추가된 반면, 포도주, 사과, 밀가루 및 육류 완제품이 제외되었음. 설탕은 최대 수입품목으로 설탕 중에서 백설탕과 설탕원료의 비중이 크게 변화되었음.
- 미국의 2004년도(이하 회계연도 기준) 농산물 수출액은 전년대비 15억 달러 증가한 5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주요 벌크품목의 수출량은 전년대비 8% 증가한 1억 1,2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쌀 수출량은 2003년 4,300만 톤에서 2004년에 3,100만 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2003년의 기록적인 쌀 수출물량에 이어 앞으로 국내 재고량이 감소하고, 2003년의 생산 수준이 저조할 것으로 내다보이나, 2004년 수출단가는 거의 25%나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2003년도 전망에 따르면, 브라질과 베네수엘라로부터의 수입수요 증대로 인해서 수출물량이 10만 톤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임.
- 2003/04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0.3% 증가한 18억 2,56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 전망치보다도 약 876만 톤 정도 증가한 수준임. 주요 곡물인 쌀을 비롯한 옥수수과 대두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2003/04년도 쌀 생산량은 2002/03년 보다 2.9% 증가한 3억 9,130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특히 태국의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장립종 쌀 국제가격은 2000/01년 톤당 184달러를 기록한 후 2003

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3년도 11월에는 톤당 198달러까지 도달함. 2003년 8월 이후 톤당 200달러전후를 계속적으로 유지함. 중립종 쌀 국제가격은 1998/99년 연평균 톤당 470달러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어 2000/01년에는 톤당 313달러, 2001/02년에는 톤당 272달러까지 하락함

- 2003/04년도 세계 소맥 생산량은 5억 5,051만 톤으로 전년보다 2.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러시아, 중국, 유럽 등의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2003/04년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6억 1,003만 톤으로 전년보다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미국, 멕시코, 동남아시아 등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2003/04년도 세계 대두 생산량은 1억 9,946만 톤으로 전년보다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III. 국내 경제 동향

- 2003년 3/4분기 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민간소비 부진 지속과 설비투자 감소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건설투자의 증가세 확대로 전년 동기대비 2.3% 증가함.
- 3/4분기 농림어업의 성장률은 태풍 등의 영향으로 재배업과 어업의 생산이 부진하여 전년 동기대비 5.6% 감소하였음.
- 3/4분기 제조업은 반도체, 가정용전기기기를 중심으로 중화학공업제품의 생산이 늘어나 전년 동기대비 2.4% 증가하였으며, 건설은 상업용과 주거용 건물건설이 호조를 보여 8.3% 증가하였음.

- 11월 중 도소매 판매액 지수는 자동차 및 차량연료, 도매, 소매 모두 감소하여 전년 동월대비 3.7% 감소함. 생산자의 내수용 소비재 출하는 전년 동월대비 9.5% 감소함.
- 2003년 3/4분기 도시 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01만 9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4% 증가하였음. 월평균 소비지출은 194만 9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2% 증가하였음.
- 11월 중 설비투자는 통신기기, 자동차 및 정밀기기 등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여 전년 동월대비 8.1% 감소하였음. 기계류 내수 출하는 통신장비, 컴퓨터 및 자동차 등의 출하가 부진하여 전년 동월대비 8.8% 감소하였음.
- ○ 11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21.9% 증가한 18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금년 1~11월 누계로는 전년 동기대비 18.3% 증가한 1,744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무역수지는 158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8개월 연속 흑자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1~11월 무역수지 누계는 132억 7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음.
- 11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322만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0.8% 증가하였음. 취업자수는 2,242만 5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0.2%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0.1% 감소하였음
- 11월 중 생산자 물가는 농림수산품이 채소류 및 과일류를 중심으로 내렸으나, 공산품이 유가, 환율 및 원자재가의 상승으로 석유제품, 금속1차제품,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등을 중심으로 오르고, 서비스도 화물운임을 중심으로 올라 전월대비 0.4%, 전년 동월대비 2.4% 상승하였음. 소비자 물가는 전월대비 0.4% 상승, 전년 동월대비 3.4% 상승하였음.

- 11월 중 수출물가는 전월대비 2.6% 상승(전년 동월대비 1.9% 상승)하였음.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2.7% 상승(전년 동월대비 6.4% 상승)하였음.
- M3 증가율은 10월 중 5.8%(잠정)를 기록한데 이어 11월 중에는 5% 내외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M1증가율은 MMF(Money Market Funds) 대규모 환매 등의 영향으로 10월의 5.3%보다 낮은 수준인 5% 내외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 원/달러 환율(기간 평균)은 4월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다가 10월 중순 이후 카드사 문제로 인한 불안심리, 시장개입 경계심 등으로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IV. 농촌경제 동향

- 10월 중 농가판매가격 지수는 126.2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대비 17.6%(전월대비 3.7%) 상승함.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15.6을 기록하여 전년 동월대비 4.1%(전월대비 0.4%) 상승함.
- 2003년 10월 중 농가교역조건을 나타내는 패리티 지수가 109.2로 나타나 농가의 교역조건이 전월대비 3.3%, 전년 동월대비 13.0%로 크게 향상되었음.
- 11월 중 농림업 취업자수는 195만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6.5% 감소하였음. 농외취업자수도 54만 2천명(전년 동월대비 11.6% 감소)으로 감소하였음.
- 11월까지 농산물 및 축산물의 수출액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11.9%, 21.6%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16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1.5% 증가하였음.

- 농산물 중 김치(17.4%), 인삼(21.1%), 화훼(23.9%), 채소(13.7%), 닭고기(13.8%) 등은 증가하였으나, 과실류(△17.1%)는 감소하였음..
- 11월까지 농림축산물의 수입은 94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6.1% 증가하였음. 이 중 농산물과 축산물의 수입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8.2%, 7.8%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임산물은 0.8%로 소폭 감소하였음.
- 중국으로부터의 농림축산물 수입은 금년 8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28.0% 증가한 20억 달러(총 농축산물수입액의 21.4% 수준)에 이르렀음. 중국 농축산물의 수입은 지난 분기의 증가율(34.1%)에 비해 6.1%p 하락하였음.
- 대일본 농림축산물 수출은 금년 11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10.7% 증가한 5억 9천만 달러로 나타남.
 - 과실류 및 화훼류의 수출은 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채소류, 김치 등의 수출은 지난분기에 이어 계속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산림부산물과 목재류의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3.8%와 2.2%로 감소하였음.

V.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

주요 농축산물 분기별 가격변동

품 목	단 위	2002 4/4	2003 3/4	2003 4/4	전년동기 대비(%)	전기대비 (%)	비 고
일반미	원/80kg	162,412	162,101	162,833	0.36	0.5	전라미
보리	원/70kg	72,175	85,723	74,846	3.7	△12.7	쌀보리
콩	원/70kg	213,454	265,000	265,667	24.5	0.3	백태
감자	원/20kg	9,192	18,407	30,114	227.6	63.6	수미
고구마	원/15kg	13,168	27,372	21,642	64.3	△20.9	
배추	천원/5톤	2,988	2,926	2,888	△3.4	△1.3	
무	천원/5톤	3,841	2,104	3,685	△4.1	75.1	
마늘	원/kg	1,883	2,011	2,406	27.8	19.7	난지형
양파	원/kg	555	784	962	73.4	22.7	
대파	원/kg	950	1,325	1,695	78.5	27.9	
건고추	원/600g	3,458	4,637	5,814	68.1	25.4	화건
오이	원/20kg	33,041	29,672	34,929	5.7	17.7	취청
사과	원/15kg	27,831	26,456	33,101	18.9	25.1	후지
배	원/15kg	20,997	29,634	31,217	48.7	5.3	신고
수박	원/10kg	10,242	11,041	7,879	△23.1	△28.6	
참외	원/15kg	15,750	27,969	25,741	63.4	△8.0	
한우	천원/500kg	4,343	4,061	4,087	△5.9	0.6	큰수소
성돈	천원/100kg	148	170	152	2.5	△10.4	
돼지고기	원/500g	4,757	4,985	4,899	3.0	△1.7	소비자가격
닭고기	원/kg	2,504	2,497	2,497	△0.3	0.0	소비자가격
계란	원/특란10개	900	916	908	1.0	△0.9	소비자가격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농협중앙회

I. 국제경제 동향¹⁾

1. 경제성장

-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 경제가 회복되고, 중국 등 개도국 경제도 2004년에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계경제는 2004년에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임.
 - 2004년에는 미국 4%대 초반, EU 2% 내외, 일본 1%대 후반, 중국 7%대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 미국경제는 10월에 설비투자와 주택경기의 호조를 바탕으로 산업생산이 꾸준히 늘어나고 고용사정도 개선되고 있음. 11월에도 ISM 제조업지수와 소비자신뢰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실물지표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주요 경제전망기관들은 2004년 미국경제가 설비투자의 증가세와 소비의 회복으로 4%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일본경제는 3/4분기 GDP성장률이 플러스(전기대비 +3%)를 지속한 가운데 10월 들어서도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광공업생산이 증가하고 있음.
 - 일본은행은 경기상황에 대한 판단을 전월의 '완만한 회복조짐'에서 '완만한 회복중'으로 상향조정(11월 21일)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완만한 회복세가 소비 확대 및 고용상황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 전망기관들은 2004년에는 해외수요에 의한 수출 증가 및 이를 위한 투자 확대로 2% 내외의 성장이 전망되나 내수가 회복되기 어려울

1)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김병률 연구위원(brkim@krei.re.kr), 김종선 전문연구원(sun589@krei.re.kr)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유로지역 경제는 전년도 4/4분기 이후 정체 내지 감소해 오던 유로지역 GDP가 3/4분기에는 전기대비 0.4% 성장하였음. 11월에도 유로지역 경기체감지수, 독일 Ifo 경기지수 및 프랑스 INSEE지수 등 주요 심리지표의 개선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유럽중앙은행(ECB)은 최근 2003년 유로지역 성장률이 0.4% 수준에 머물렀지만 2004년에는 1.5% 내외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

세계 주요국의 경제성장 추이 및 전망(실질GDP 기준)

단위: %

	2001	2002	2003	2004
전 세계 ¹⁾	2.4	3.0	3.2	4.1
선진국 ²⁾				
미국	0.3	2.4	2.9(2.9)	4.2(4.2)
일본	0.4	△0.4	2.7(2.6)	1.8(2.0)
영국	2.1	1.7	1.9(2.0)	2.7(2.8)
유로지역	1.6	0.9	0.5(0.5)	1.8(1.5)
독일	0.8	0.2	0.0(0.0)	1.4(1.3)
프랑스	2.1	1.3	0.1(0.3)	1.7(1.3)
이태리	1.7	0.4	0.5(0.3)	1.6(1.3)
개도국 ³⁾	4.1	4.6	5.0	5.6
아시아(일본제외)	5.8(4.1)	6.4(5.7)	6.4(5.6)	6.5(6.3)
중국	7.3	8.0	7.5(8.3)	7.5(7.9)
중남미	0.7	△0.1	1.1	3.6
중동 ⁴⁾	2.0	4.8	5.1	4.6
아프리카	3.7	3.1	3.7	4.8
동유럽	3.1	3.0	3.4	4.1
러시아	5.0	4.3	6.0(5.9)	5.0(4.6)

주: 1) IMF의 PPP방식으로 산출된 수치임.

2) OECD 자료임.

3) IMF 자료임.

4) 터키 포함.

5) ()안의 수치는 Global Insight 자료임.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Nov. 2003.

Global Insight, *Quarterly Review and Outlook*, 4Q 2003.

Global Insight, *Monthly Outlook*, Nov. 2003.

IMF, *World Economic Outlook*, Sep. 2003.

- 중국경제는 수출 및 소비의 신장세가 확대되면서 산업생산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과잉투자에 대한 규제와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로 투자의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고 있음.
 - 중국경제당국은 2004년에는 정부재정지출 확대에 의한 경제개발 촉진정책을 자제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성장률이 다소 둔화될 전망.
- 동남아시아 경제는 세계경기의 개선으로 생산과 수출 증가세과 확대되고, 홍콩 및 대만은 물가하락세가 둔화되고 있음.

2. 환율 및 원유가격

2.1. 환율

- 최근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달러약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11월 이후 미달러화는 엔화에 대해서 약보합세, 유로화에 대해서는 약세 시현.
- 엔화의 경우 일본 외환당국의 시장개입, 동경에서의 테러발생 우려 등으로 하락세가 상대적으로 소폭에 그침

환율 동향 (기말 기준)

	2001	2002	2003				
			1/4분기	2/4분기	3/4분기	10월	11월
엔/달러	131.38	118.52	119.94	119.74	111.79	108.66	109.63
달러/Euro	0.8843	1.0475	1.0784	1.1419	1.1574	1.1709	1.1706

자료: 재정경제부

- 유로화의 경우 미국에 대한 테러위험 고조로 안전자산으로서의 유로화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 가운데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약세.

2.2. 원유가격

원유 가격 동향

단위: 달러/배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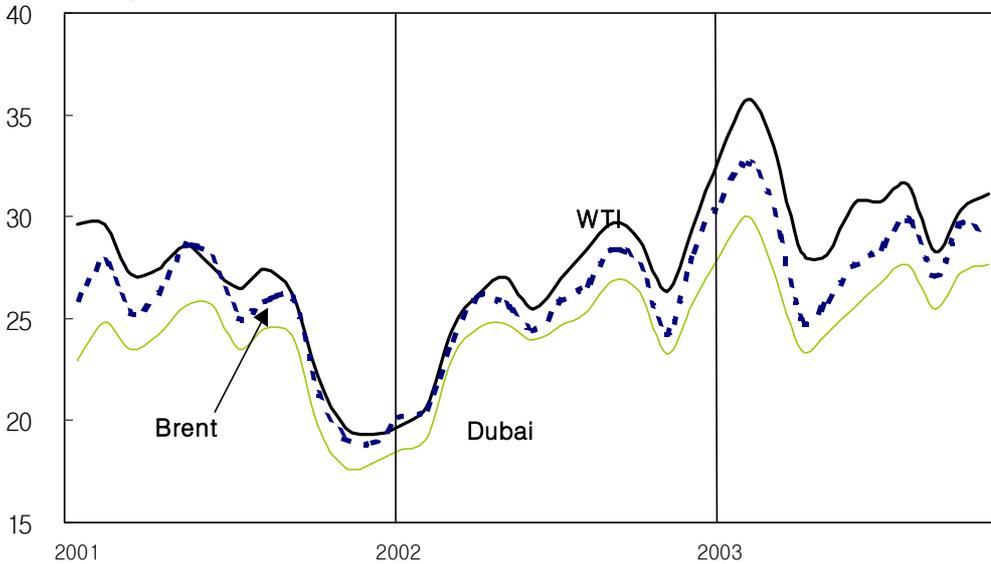
	2002	2003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WTI	31.25 (49.7)	30.68 (20.4)	30.73 (14.0)	31.61 (11.5)	28.29 (△4.8)	30.30 (5.0)	31.09 (18.1)
Brent	30.01 (46.8)	27.55 (12.8)	28.43 (9.9)	29.85 (12.1)	27.13 (△4.5)	29.70 (7.8)	28.78 (18.7)
Dubai	26.75 (49.4)	25.56 (6.7)	26.75 (8.5)	27.69 (9.4)	25.42 (△5.3)	27.25 (3.5)	27.64 (18.9)

주: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유 가격 동향

단위: \$/bbl



- 국제유가는 중동지역 정세불안에 따른 공급차질에 대한 우려, 그리고 미국 북동부지역의 폭설과 한파 등으로 인한 계절적 요인과 함께 석유재고 감소 등의 영향으로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II. 세계 농축산업 동향과 전망

1. 세계 농축산업 동향²⁾

1.1. 세계 농축산업 협상동향

가. 일본, ASEAN 3국과 FTA 체결합의

-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의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3국간의 특별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합의하였음. 빠르면 2004년 1월부터 정부간 협상이 시작될 전망이며, 일본은 이미 싱가포르와 2002년 11월부터 FTA를 실시 중에 있어 앞으로 ASEAN과의 경제협력이 급진전될 것으로 보임.
- 이들 ASEAN 3국은 대일 농산물 수출에 관심이 높음. 우선 태국은 쌀을 비롯하여 가금육, 가금육 가공품, 전분, 사탕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필리핀의 경우는 바나나와 파인애플의 관세철폐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나 일본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임.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일본시장으로 농산물의 수출확대나 검역완화 등에 관심이 높음.
- 일본은 현재 멕시코와 진행중인 FTA 협상이 일단 내년으로 넘어감. 2004년에는 한국과의 FTA 협상을 비롯하여 ASEAN 3국과의 협상 등 전부 5개국과의 FTA 협상이 동시에 진행될 것임.
- 일본은 FTA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국별 FTA팀을 구성, 정보 수집과 분석에 임하고 있음. 여기에 가장 큰 걸

2) 이 자료는 농정연구센터 김태곤 부연구위원(taegon@krei.re.kr), 허주녕 연구원 (knuhjin@krei.re.kr), 이현주 (hjlee@krei.re.kr) 작성하였으며, 김재환 연구원 (jhkim74@krei.re.kr)이 재작성하였음. 관련 문의사항은 농업관측센터 김재환 연구원 (jhkim74@krei.re.kr)에게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림들은 역시 일본에게는 농업이고, ASEAN에게는 가전과 자동차임. ASEAN은 일본의 투자증가에 기대를 걸고 있으며, 이것이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국별 팀은 관련 부처가 참가하는 팀과 부처내부 팀으로 나누어지며, 멕시코와의 FTA는 협상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외되고,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4개 팀이 설치됨.

- 일본으로서는 제일 힘겨운 상대가 쌀과 닭고기 수출국인 태국임. 그래서 농림수산성은 FTA 협상에 임하면서 농림수산업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에 배려하면서, 식량안전보장의 확보를 고려하고,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업부문의 구조개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면서 협상에 임한다는 방침임.
- 일본과 ASEAN간의 무역은 중국의 14배나 달하고 있으며 ASEAN도 일본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향후 무역이나 투자의 벽이 지금보다 더욱 낮아지면 일본의 경제적인 이익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ASEAN도 풍요롭게 성장하게 되고, 이것이 이 지역의 정치적인 안정에도 기여한다는 점에 일본은 ASEAN과의 FTA에 기대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현재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는 멕시코와 협상을 빨리 종결하고, 그 다음에 한국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방침임. 이와 동시에 이미 실시하고 있는 싱가포르와의 FTA를 디딤돌로 하여 ASEAN 3국과의 FTA를 마무리한 후 2012년까지 ASEAN 10개국으로 확대한다는 FTA 로드맵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

나. 브라질, 개도국그룹(G20) FTA 제안

- 브라질의 루라 대통령은 12월 12일 주로 개도국만이 참가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제안하였음. 여기에 참가하는 개도국은 지난번 멕시코 칸쿤에서 구성된 수출개도국 그룹(G20)이 중심이며, 장기적으로는 G20 이외의 개도국도 참가하여 선진국에 대항하는 무역그룹을 구축

한다는 의도임.

- 이 제안은 상파울로에서 열린 G20 통상담당자회의에서 제안한 것임. 이 회의에서는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공 등에서 각료급을 포함한 통상담당자들이 참석하였음. 이러한 국가 이외에 아르헨티나, 칠레, 쿠바, 볼리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페루, 필리핀, 태국, 파키스탄, 이집트, 엘살바도르 등이 참가함.
- 루라 대통령은 시장개방이 선진국의 이익에 집중되는 현상에 대하여 개도국이 단결해야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해 개도국의 FTA 가 효과적이라는 것임.
- 브라질은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에 대해서도 미국과 대립하고 있으며, 우선 남미지역의 FTA 실현을 시도하고 있음. 이번에 제안한 개도국 FTA는 브리질이 2004년 6월 상파울로에서 열릴 예정인 ‘통상과 개발에 관한 국제연합회의’에 겨냥하여 G20에 제안한 것으로서 향후 이들 국가의 반응이 주목됨.

다. DDA 농업협상, 칸쿤각료회의 결렬이후 동향

- 칸쿤 각료회의가 결렬된 이후 로버트 쥘릭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은 의욕이 없는 나라들과의 협상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의욕이 있는 지역과 자유무역을 위한 협상을 착실히 진행시켜 갈 것이다”라는 뜻을 표명하였음. EU도 칸쿤회의에서 계속 강경자세를 보인 나라들을 비판하면서, DDA 협상체제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언급하는 등 양국 모두 칸쿤회의의 감정적 양금이 남아 있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음.
- 10월 들어 WTO 일반이사회의 카스티요 의장이 중심이 되어 미국과 EU 등 주요국과 개발회담을 정력적으로 추진하고, 10월 14일 제네바

에서 열린 각국의 비공식 대표회의에서 12월 15일 이전에 모델리티에 대해 합의하기 위한 조정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표명함.

- 쥘릭 무역대표는 칸쿤 각료회의 폐막 약 1주일 후인 9월 22일 파이낸셜 타임즈에 ‘미국은 의욕 없는 나라들을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기고함. 기사에서는 칸쿤회의 결렬의 원인을 오로지 경제적 실리보다 정치적 항의를 하려는 개도국 그룹의 지나친 행동으로 결론지으며, 특히 그런 그룹의 중심적 역할을 한 브라질과 인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음. 한편 쥘릭 대표는 미국 면화프로그램의 국내 보조금 철폐문제와 함께, 이제까지 덤핑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국가들에 대한 보상을 요청받는데 대하여 “그러한 보호를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WTO 협상역사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함.
- 파스칼 라미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쥘릭 무역대표부 대표의 기사가 실린 다음 날인 23일 EU의 라미 무역담당 집행위원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를 함. 라미 위원은 칸쿤회의 결렬의 원인은 협상에 임했던 모든 나라에게 있다고 하면서, EU가 이제까지 보호수준을 낮춰왔고, 칸쿤 각료회의에서 3차안 합의에 근접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질과 인도의 과도한 요구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함. 또한 현행 WTO 체제를 신석기시대에 비유하며 비판,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다른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음.
- 브라질의 외무장관은 미국과 EU가 브라질을 거명하며 비난해 왔지만, 9월 25일 브라질의 셀소 아모림 외무부 장관이 월지에 기고를 통해 브라질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주장을 펴. 아모림 장관은 회의가 결렬된 것은 유감이라고 하면서도 칸쿤은 도하 위임사항(mandate)을 회색시키려 한 무역대국의 의도를 꺾고, 개도국의 발언력을 높이려는 뜻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음.

- 10월 들어 WTO의 카스티요 의장을 중심으로 협상을 재개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카스티요 의장이 10월 7일 철릭 무역대표와의 개별회담에 이어, 그 다음 주에는 EU의 라미 위원과 면담을 가짐. 그 가운데 양국 모두 DDA 협상재개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협상재개를 저지하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언질을 받아냈다고 전해짐. 그 후 10월 14일에는 제네바에서 각국의 비공식대표회의를 연 자리에서 카스티요 의장은 이제까지 주요 각국과 접촉해 왔는데, 거의 모든 회원국이 협상진전을 요구해 온 것이 밝혀져 이를 바탕으로

- ①향후 다양한 형태로 협상을 할 것
- ②향후 협상은 농업, 면화, 비농산물 시장접근, 싱가포르 이슈를 우선시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우선 농업분야부터 착수할 것
- ③우선은 각 회원국과 접촉을 갖고, 각국이 얼마나 유연성을 보일 준비가 있는지를 파악한 후, 실질적인 협상을 추진해 갈 것
- ④12월까지 세부원칙의 틀을 합의하도록 노력할 것

등이 확인되었다.

- 이와 같이 WTO 사무국을 중심으로 협상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향후 합의가 조기에 타결될지 여부는 모두 회원국의 유연성에 달려있다는 것이 카스티요 의장이 강조하고 있는 대로임. 이 유연성에 대하여 각국에게 얼마만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협상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에 대해 10월 16일에 워싱턴에서 열린 알렌 존슨 USTR 농업협상 수석대표가 강연에서 한 발언을 살펴보면 미국은 유연성을 보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음.
- 향후 미국이 보일 수 있는 유연성은 오로지 개도국이 보일 수 있는 유연성에 달려 있는 것이다. 앞으로 12월을 목표로 WTO 사무국을 중심으로 한 정력적인 노력이 계속될 것은 의심할 나위 없는 사실임.

그리고 그 성패는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옳고 그름은 차치하더라도 브라질과 인도 등과 같은 개도국이 자국 시장개방 감축에 어느 정도 합의하고, 한편 미국과 EU가 현재 이상의 양보를 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음.

라. 러시아, WTO 가입추진과 주요쟁점

- 러시아 정부는 1994년 12월 WTO 가입 신청한 이후 조기 가입을 위해 가맹국과의 협상을 계속하고 있음. 2002년 중반까지만 해도 지난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각료회의에서 가입할 예정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농업보조금 감축과 국내 에너지가격 현실화 등 쟁점 사항에 대하여 WTO 가맹국과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가입이 다소 지체되고 있는 실정임.
- 러시아는 1995년 이후 총 20회의 가입 실무회의와 가맹국과의 양자협상을 개최하여 관세 및 비관세 제도, 서비스 시장개방 및 지적재산권 등에 대해 협의를 거쳐 가입의정서 초안작성을 계속하고 있음. 특히, 2003년에는 3차례의 WTO 실무회의를 통해 차기 협상일자를 2004년 1월말로 확정하였고, 현재 67개 가맹국과의 양자협상도 약 70%의 진척을 보이고 있음. 또, 푸틴 대통령이 중국, 이탈리아, 미국 등의 정상과의 회담에서 WTO 가입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는 등 외교적 노력도 병행하고 있음.
- 협상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 우선 농업보조금에 대해서는 WTO가 현행 연간 136억 달러의 10%선까지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일정기간 농업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90~100억 달러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금융, 보험, 통신시장 등의 개방 요구에 대해서는 러시아는 금융시장 개방 및 외국보험사의 제한적 영업허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통

신시장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WTO가 러시아 내수와 수출용 에너지 가격격차가 지나치게 높은 것에 대한 현실화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러시아는 민생 타격을 우려해 팽팽히 맞서고 있음.
- 러시아의 WTO 가입 협상은 실무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업보조금, 에너지가격 현실화 등을 둘러싸고 쌍방간 입장차이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음. 또한, 2004년 대선 등 국내 정치일정과 조기 가입을 위한 지나친 양보를 경계하는 러시아 국내여론 등으로 러시아의 WTO 가입 실현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됨.

1.2. 세계 농축산물 무역동향

가. 러시아 농산물무역 동향

- 1999년 러시아의 식품수입은 전년대비 28.7% 감소한 70억 달러에 달했으며, 전체 수입식품의 84%를 서방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수입식품의 구조는 1996년 10대 수입식품에 설탕, 육류, 가금류, 돼지고기, 포도주, 담배, 밀, 사과, 밀가루, 육류제품이 포함되었으나 1999년에는 담배원료, 차(茶), 해바라기 씨앗, 식용유가 추가된 반면, 포도주, 사과, 밀가루 및 육류 완제품이 제외되었음. 설탕은 최대 수입품목으로 설탕 중에서 백설탕과 설탕원료의 비중이 크게 변화되었음.
- 특히 식품 생산을 위한 원료의 수입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1999년 전체 수입식품 중 설탕 원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육류 원료는 14%, 담배 원료 7%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또한 1998년 외환위기이후 식품 원자재 수입비중의 증가와 더불어 저급, 저가품의 수입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1999년 대러시아 육류의 주요 공급국은 독일, 덴마크, 미국, 우크라이나였으며, 우유제품은 우크라이나, 뉴질랜드, 독일 및 미국이었고, 채소는 폴란드, 네덜란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이었으며, 과일은 에콰도르, 콜롬비아, 터키임. 곡물은 미국과 카자흐스탄이 주로 공급했고, 식물성 식용유는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벨기에, 우크라이나 등이고, 설탕의 주요 공급국은 브라질과 쿠바임.
- 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 금액에서 1996년 104억 달러에서 1999년 69억 달러로 33.75%가 감소하였으며, 이것은 모라토리움 이전의 고가의 식품류에서 저가의 식품류로 수입구조가 변화되었기 때문임.
- 1999년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은 1996년 대비 3배 가까이 감소하였으며, 러시아는 상당부분의 곡물을 미국의 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아울러 식품류의 경우도 자국산 제품의 품질이 떨어지고, 자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수출은 미미하며, 알콜성 음료와 Oil seed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러시아의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현황을 보면 1996년 14억 달러에서 1999년에는 4억 7천만 달러로 감소하였고, 농산물과 식품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6년 1.7%에서 1999년 0.7%로 하락하였음.
- 한국의 1999년도 대 러시아 연방의 농수산물 수출액은 6천 1백만 달러, 수입은 2억 9천 5백만 달러에서 2001년에 수출은 1억 3천만 달러, 수입은 2억 6천 3백만 달러로 우리나라의 5위 수출 대상국이며, 11위의 수입 대상국이었음. 러시아와의 수교이후 한국산 가공식품의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한국산 농수산물의 대 러시아 수출은 1997년 수출액 기준으로 일본에 이어 수출국 2위에서 1999년에는 수출국 6위로 하락하였음. 1998년 러시아의 외환 위기로 소비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한국산 농산품의 수출도 급감하였으나 최근 러시아의 경기회복으로 농산품의 수출도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을 1999년 기준으로 보면 라면중심의 면류, 마요네즈, 과자류, 커피류 등 가공식품임. 한국의 대 러시아 수입품목은 어류 등 수산물, 원목을 중심으로 한 임산물, 녹용 등 한약재 중심임. 또한 2001년 농림수산물은 전년동기 대비 65.9% 증가한 1억 3,000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가공품위주의 농산물, 돈육 중심의 축산물 수출이 증가한 탓임. 축산물의 경우 대일 돈육 수출증단에 따른 적체육이 러시아로 대량 수출되고 있음.

나. 미국, 2004년도 농산물무역 전망

- 미국의 2004년도(이하 회계연도 기준) 농산물 수출액은 전년대비 15억 달러 증가한 5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주요 벌크품목의 수출량은 전년대비 8% 증가한 1억 1,2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면화의 수출단가는 다소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밀의 수출 경쟁력은 상당히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밀과 옥수수의 수출량은 쌀과 대두의 감소분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임. 쇠고기, 가금육, 밀, 면화, 옥수수, 과일류 및 견과류의 총 수출액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임. 2003년에 강세를 보이던 대두와 대두유 수출액과 수출량은 모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경제성장과 달러화의 약세가 미국 농산물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2004년도 미국 농산물 수입 또한 전년대비 25억 달러 증가한 47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임. 2003-04년 무역 전망은 캐나다와의 무역에 대한 광우병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음. 원예작물 수입은 전체 수입증가분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임. 점진적인 미 달러화의 평가절하는 수입 증가세를 완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수출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수입 증가세에 힘입어, 2004년도 농산물 무역수지는 1987년 이후 최저 수준인 95억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04년 미국 곡물 및 사료 수출은 전년 대비 6억 달러 상승한 15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이며, 이러한 개선된 전망치는 밀과 옥수수 수출단가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물량 증대에 기인함. 지난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밀 생산 급감과 미국의 밀 생산 급증으로 인해서 미국 밀 수출량이 전년대비 21% 증가한 2,75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EU의 밀 생산 감소 또한 미국의 밀 수출량 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미국의 밀 수출액은 국내 생산 증대에 따른 단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6억 달러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보임.

- 2004년 미국의 잡곡 수출액은 전년대비 560만 톤 증가한 5,190만 톤에 달하고, 수출단가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수출액 또한 다소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이며, 2004년 옥수수 수출량과 수출액은 중국의 여과와 국내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각각 전년대비 500만 톤, 3억 달러 증가한 4,600만 톤, 4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사탕수수의 수출액은 수출단가 하락이 수출물량 증대와 서로 상쇄되어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미국 쌀 수출량은 2003년 4,300만 톤에서 2004년에 3,100만 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2003년의 기록적인 쌀 수출물량에 이어 앞으로 국내 재고량이 감소하고, 2003년의 생산 수준이 저조할 것으로 내다보이나, 2004년 수출단가는 거의 25%나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2003년도 전망에 따르면, 브라질과 베네수엘라로부터의 수입수요 증대로 인해서 수출물량이 10만 톤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임.
- 2004년 유지종자류의 수출액은 2003년 전망보다 10억 달러 감소한 9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대두 수출물량은 남미의 꾸준한 대두 생산 증대, 중국의 수입 증가세 둔화, 세계 유채의 생산 증가세에 힘입은 2003년도 전망보다 11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대두 수출단가는 국내와 세계 공급물량의 증대에 힘입은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임. 이에 따라 대두 수출액은 8억 달러 감소한 57억 달러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 대두 수출물량은 유채 수출물량의 증가세와 국내 재고물량의 감소세와 함께, 남미로부터의 경쟁심화로 인해서 2003년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2004년 대두 수출액은 세계 식물성 기름의 공급이 확대되고 2004년 수출단가가 하락함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임.
- 대두박의 경우는 수출단가 상승이 수출물량 감소와 상쇄되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이며, 5월 이후 2003년 대두 전망의 큰 변화 중 하나는 2002년 1,820만 톤에 달하는 중국의 수입 증가세에 힘입어 미국 대두 수출이 80만 톤 정도 증가한다는 것임.
- 2004년 면화 수출물량은 2,600만 톤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이지만, 수출단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수출액은 전년대비 7억 달러 증가한 3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한편 전년도에 비해 신속한 중국의 면화에 대한 TRQ 이행 등 중국으로부터의 밀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임.
- 2004년 축산물 수출은 사료곡물과 육류에 대한 수출물량과 수출액 증대로 인해서 2003년 전망보다 8억 달러 증가한 12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이며, 일본의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2004년 3월까지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멕시코의 계속된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 또한 수출시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그러나 12월에 발생한 광우병으로 인해 미국의 쇠고기 수출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2004년 가금육 수출은 닭고기의 수출물량 증가와 수출단가 상승에 힘입어 약 2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임. 2003년 대 러시아 닭고기 수출은 러시아의 쿼터 시스템과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해서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아시아 시장으로의 수출부진으로 인해서 2003

년 총 닭고기 수출 전망은 하향 조정될 것임.

- 2004년 낙농품 수출은 달러화의 약세에 힘입어 올해 전망보다 1억 달러 증가한 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나, 낙농품 국제가격 하락세로 인해서 수출액 증가세를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 2004년 가축제품의 수출은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꾸준한 수요와 대만으로부터의 수입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거의 변화 없이 1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임.
- 2004년 원예작물 수출은 세계수요 증가세와 달러화의 약세에 힘입어 올해보다 2억 달러 증가한 1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사과, 배, 감귤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과일류와 조제품에 대한 수출액은 1억 달러 증가한 3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임.
- 2004년 견과류의 수출은 해외 수요 증대와 국내 공급 증대에 힘입어 2003년 14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2003년 원예작물 수출액 전망은 포도주와 유지류의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118억 달러로 약 2억 달러 상향조정될 것으로 내다보이며,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가격과 국내 공급증대로 인해서 해외시장에 대한 수출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수입 식품 및 농산물에 대한 국내소비의 꾸준한 증가세에 힘입어 미국의 2004년 수입액은 약 475억 달러로 지난 5월 전망에 비해 다소 상향조정될 것으로 내다보임.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미국의 경기 또한 수입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달러화의 약세에 의해 수입 상승세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내다보임. 2004년 주요 수입품목은 신선 및 냉동 채소, 포도주, 곡물제품, 과자류, 커피, 코코아 등이 있음.
- 2004년 원예작물 수입은 2003년 대비 15억 달러 증가한 21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원예작물 수입 가운데 EU로부터의 예센

셜 오일(essential oil)의 수입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포도주, 신선 및 냉동 채소, 토마토, 과일주스를 포함한 과일 조제품 등의 수입 또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쇠고기에 대한 완만한 수요 증가세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의 포도주 수입은 호주와 EU로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04년에 약 3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임.

- 신선 및 냉동 채소의 수입은 2억 5,0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보임. 이는 국내 공급만으로는 비수기 동안 신선 및 냉동 채소류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수입물량은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에콰도르, 중국, 뉴질랜드, EU 등으로부터 조달하고 있음.
- 과일조제품 및 과일주스에 대한 미국 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남미와 동남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 수입하고 있음. 이들 품목의 2004년 수입액은 전년대비 1억 9,000만 달러 증가하였으며, 사과주스의 주요 수입원은 중국, 아르헨티나, 칠레 등이다. 오렌지주스의 주요 수입원은 브라질이며, 다음으로 코스타리카가 차지하고 있음.
- 2004년 적색육 수입은 2004년 국내 생산 감소가 예상되고, 캐나다의 수출이 재개됨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임. 하지만, 생축(live animal) 수입은 현행 규정상 캐나다로부터의 반추동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2003년 적색육 및 조제품의 수입액은 5월 전망보다 4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이며, 캐나다로부터의 반추동물 수입은 지난 5월 광우병 발발 이후 금지된 바 있음. 수입이 9월 동안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2003년 말까지 감소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이며, 또한 호주로부터의 수입은 환율상승, 가뭄으로 인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04년 곡물 수입액은 4억 5,0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대부분의 곡물은 조제품의 형태로 수입되며, 약 3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미국 밀가루 제분소의 폐업으로 인해서 캐나다로부터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임. 밀은 캐나다, 쌀은 태국, 인도, 중국, 파키스탄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할 것이며, 사료곡물 수입은 옥수수 수입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리의 수요 증대로 인해서 2004년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설탕제품의 2004년 수입 전망은 과자류, 사탕수수의 수입 증대로 인해서 2억 4,000만 달러 상향조정될 것으로 내다보임. 코코아 및 조제품 수입 또한 최근 가격하락에 따라서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수입액 증가와 함께, 2003년 고무와 커피의 수입물량은 소비재와 산업재 수요 증대에 힘입어 2002년 수준을 넘어서고, 2004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임. 무알콜 음료와 대두, 유채, 아마씨, 해바라기씨 등 종자류의 수입액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다. 중국 산둥성, 2003년도 3분기 농산물수출 증가

- 2003년도 3분기까지 중국 산둥(山東)성의 농산품 수출은 역대 최고 기록인 45억 달러를 달성함. 최근 산둥 우질 밀(약 3만톤 가량)의 대 아프리카(모잠비크) 최초 수출에 이어 중국 최대 닭고기 가공기업 중 하나인 산둥성 쭈청대외무역집단(諸成外貿集團)은 지난 3개월 만에 올해 수출목표액인 1억 2천만 달러를 달성했다고 발표하였음.
- 이와 같은 상반기 농산물 수출 호조의 주원인은 농업산업화(農業産業化)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무공해 농산물 시스템의 건설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작년 초부터 올해 10월 초까지 산둥지역은 5,000만 위안을 투자하여 생산지에서 수출항에 이르는 전 과정에 1,000여개의 친환경 농산물 품질검사 네트워크를 건설하였음. 현재 전국의 친환경 무공해 농산물 인증은 250개 이상에 달하고 재배면적 역시 1,000만 무(약 67만 ha)를 초과하였음.
- 농업산업화의 발원지인 산둥성은 산업체인 확대를 통해 농산물의 부

가가치를 높이고, 기업의 이윤을 제고시키고 있음. 산동성 농업산업화 선두기업(용두기업)은 4,200여개 이상에 달하고 있는데 전체 3,000여명의 농민과 5,000여만 무의 경지가 기업형 농업산업화 체인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음. 옌타이(烟台)의 대형 과일주스 가공기업만 하더라도 현재 50여 개 이상이 있고, 매년 과일주스의 가공액은 160만톤에 이룸. 상품구조가 비교적 단일적인 형태였던 옌타이의 사과업계는 과일주스, 과일잼, 과일주 등 6개 품목 100여개의 심가공상품을 제조하고 있음.

- 산업체인의 지속적인 확대와 동시에 산동성은 해외시장과 내수시장을 겨냥하여 지속적으로 농산물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해외시장에 대하여 산동성은 올해 기술 수출, 해외 투자 등 다양한 형태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지난 3분기 동안의 산동 해외 농업투자는 5억 달러를 초과하였고, 내수시장에 대해서는 주로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심천 등 대도시 농산물 시장을 대상으로 판매망을 확대하고 있고, 중소기업을 위주로 농산물 박람회 조직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판매망을 건립하였다. 얼마 전 막을 내린 산동 농산물의 상하이 박람회에서는 4일간에 걸쳐 체결된 계약액이 무려 16억 위안에 달하고, 100여개의 농업기업이 그 지역 대리상(代理商)을 찾거나 혹은 직접 판매망을 구축하였음.
- 이와 같이 완비된 농산물 시장체계에 힘입어 금년도 3분기까지 산동성 농민의 1인당 평균 현금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한 2,439 위안에 이룸.

라. 브라질, 대두 수출이 미국 추월

- DDA 농업협상에서 브라질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브라질은 그동안 케언즈 그룹에서 개도국 입장을 대변해 왔으며, 특히 지난 9월 멕시코 칸쿤의 제5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미국·EU에 대항하여 수출개도국 그룹 22개국(G22)을 선도하는 등 영향력을 높이고 있음.

- 브라질은 또 일찍이 남미공동시장(MERCOSUR)을 형성하여 맹주역할을 하고 있고, 2005년 1월로 예정으로 하는 남북미 34개국이 참가하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체결에 있어서는 남미를 대표하여 북미의 미국을 상대로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음.
- 이 배경에는 이데올로기 면에서 인도, 중국 등과 연대하여 미국에 대항하는 일변도 있지만, 최근 브라질 농업이 급성장하여, 세계 수출시장에서 미국과 경합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
- 브라질 농업의 실력을 수출면에서 살펴보면, 2003년에 대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일의 지위를 차지하였음. 2003년 11월 현재 브라질은 2,580만톤의 수출을 전망하고 있어 미국의 2,422만톤을 상회하고 있다. 생산은 미국이 6,673만톤으로서 브라질의 6,000만톤을 근소하게 앞서고 있음.
- 그러나 미국은 2001년을 기점으로 대두 생산이 감소하고 있고, 대신에 브라질은 1998년 이후 생산을 급속히 늘리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생산면에서 미국을 추월할 수 있는 추세로 생산을 늘려나가고 있음.
- 그 동안 대두는 주로 북미에서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으나, 남미에서 브라질을 비롯하여 아르헨티나가 생산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2002년 이후 남미가 미국과 캐나다 중심의 북미를 추월하기 시작하여 2003년은 더욱 격차를 벌이고 있음.
- 이와 같은 생산의 영향으로 양자간의 수출도 2002년 이후 격차기 확대되고 있다. 2003년 11월 현재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세계 수출량의 56.3%로서 절반을 능가하는 수준임. 이와 같은 추세로 브라질은 대두에 대해서는 미국을 압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양자가 수출시장 확대를 위하여 세계시장에서 경합하는 면이 DDA 농업협상에서 서로 치열하게 대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한편, 브라질이 수출하는 대두의 3분의 1은 중국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농업대국인 중국과 브라질은 최근 농업무역을 통하여 급속히 접근하고 있는 점도 새로운 동향임.
- 지난 30년 동안 세계 대두무역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의 점유율 저하와 이를 보완하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약진임. 미국의 수출점유율은 1969~71년도 평균 78.7%에서 2003년도에는 36.1%로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점유율은 같은 시기에 8.7%에서 56.3%로 급상승하고 있음. 이처럼 미국에 집중되어 있었던 대두수출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남미로 전환되고 있음.
- 브라질의 대두 생산량 변화를 브라질 국립지리통계원(IBGE)의 통계에서 확인하면, 1970년에는 151만톤이었던 것이 2000년에는 3,269만톤으로 약 22배로 증가하였음. 또, 같은 기간 수확면적은 132만ha에서 1,362만ha로 10배로, 생산성은 ha당 1,144kg에서 2,400kg으로 2배로 늘어났음.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브라질의 대두생산량 증가는 수확면적 증가와 단위증가에 의한 부분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브라질의 생산성 수준은 이미 미국을 상회하고 있음.

2. 세계 곡물 전망 3)4)

- 2003/04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0.3% 증가한 18억 2,56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 전망치보다도 약 876만 톤 정도 증가한 수준임. 주요 곡물인 쌀을 비롯한 옥수수과 대두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2003/04년도 총공급량은 전년 기말재고량 4억 1,542만 톤과 생산량을 합친 22억 4,102만 톤으로, 전년보다 약 4.2%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2003/04년도 세계곡물 소비량은 전년보다 0.1% 증가한 19억 2,293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1999/00년도에는 생산량과 소비량이 거의 균형을 이루었으나 2000/01년도부터 2001/02년도까지는 소비량이 생산량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 그 차이가 확대됨. 그리고 2003/04년도에도 소비량과 생산량의 차이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세계 곡물 교역량(수출량 기준)도 전년 대비 7.3% 줄어들어 2억 2,49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교역량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3%가 될 것으로 전망됨.
- 곡물 소비량이 생산량을 9,733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2003/04년도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23.6% 감소한 3억 1,809만 톤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기말재고율도 2002/03년

3) 이 자료는 미농무성(USDA)에서 매월 발표하는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05, December 11, 2003. 내용 중 수급부분을 발췌하여 농산업경제연구센터 김혜영 연구원(hykim@krei.re.kr)이 작성하였으며, 김재환 연구원(jhkim74@krei.re.kr)이 재작성하였음. 관련 문의사항은 농업관측센터 김재환 연구원에게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4) 이 자료는 세계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Pinksheet, December, 2003. 내용과 미 농무성(USDA)에서 매월 발표하는 『RiceOutlook』 December 12, 2003 중에서 발췌하여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농업관측센터 김재환 연구원(jhkim74@krei.re.kr)에게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도 21.7%에서 16.5%로 5.2%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전체 곡물의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1/02	2002/03 (추정)	2003/04(전망)		변동률(%)	
			2003.11	2003.12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1,872.88	1,816.84	1,821.47	1,825.60	0.3	0.2
공 급 량	2,415.82	2,331.41	2,234.27	2,241.02	△4.2	0.3
소 비 량	1,902.25	1,915.99	1,917.04	1,922.93	0.1	0.3
교 역 량	238.58	239.30	221.83	224.90	△7.3	1.4
기말재고량	514.57	415.42	317.23	318.09	△23.6	0.3
기말재고율	27.1	21.7	16.5	16.5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05, December 11, 2003.

국제곡물시장에서의 주요 곡물 가격 동향

단위: \$/톤

품 목 ¹⁾	2001년	2002년	2003년		2003년			
			1/4	2/4	3/4	9월	10월	11월
대 두	195.8	212.7	242.7	246.7	243.7	264.0	310.0	327.0
옥수수	89.6	99.3	105.9	106.8	100.5	104.1	105.4	108.5
소 맥	126.8	148.1	147.4	137.3	142.0	145.6	147.5	160.6

1) 대두는 U.S. c.i.f Rotterdam 가격임. 옥수수는 U.S. Gulf No.2, Yellow, f.o.b. 소 맥은 U.S. Gulf No.1 HRW.

전체 곡물의 수급추이

단위: 백만 톤, %

구 분	생산량	공급량	소비량	교역량	재고량	재고율
1980/81	1,446.90	1,642.30	1,463.20	215.20	190.90	13.0
1981/82	1,496.10	1,687.00	1,462.80	209.70	229.00	15.7
1982/83	1,547.70	1,776.70	1,499.90	200.60	354.70	23.6
1983/84	1,485.30	1,840.00	1,537.80	207.80	302.40	19.7
1984/85	1,646.60	1,949.00	1,585.80	218.70	364.30	23.0
1985/86	1,664.10	2,028.40	1,596.00	180.60	433.30	27.1
1986/87	1,663.20	2,096.50	1,633.00	186.50	465.20	28.5
1987/88	1,594.70	2,059.90	1,652.10	211.60	410.60	24.9
1988/89	1,546.10	1,956.70	1,637.00	211.80	319.40	19.5
1989/90	1,670.80	1,990.20	1,688.60	220.10	296.60	17.6
1990/91	1,768.90	2,065.50	1,726.50	202.10	338.90	19.6
1991/92	1,708.00	2,046.90	1,722.00	221.10	325.00	18.9
1992/93	1,789.60	2,114.60	1,751.60	220.10	362.80	20.7
1993/94	1,712.40	2,075.20	1,753.30	204.40	473.10	27.0
1994/95	1,758.90	2,232.00	1,772.00	220.60	459.80	25.9
1995/96	1,712.20	2,172.00	1,761.60	206.70	410.60	23.3
1996/97	1,870.90	2,281.50	1,827.80	213.20	450.60	24.7
1997/98	1,880.80	2,331.40	1,835.90	217.50	495.30	27.0
1998/99	1,872.70	2,368.00	1,839.70	223.40	528.40	28.7
1999/00	1,871.60	2,400.00	1,869.70	240.10	530.40	28.4
2000/01	1,839.80	2,370.20	1,868.30	231.60	501.90	26.9
2001/02	1,872.88	2,415.82	1,902.25	238.58	514.57	27.1
2002/03	1,816.84	2,331.41	1,915.99	239.30	415.42	21.7
2003/04	1,825.60	2,241.02	1,922.93	224.90	318.09	16.5

주 : 2002/03년은 추정치, 2003/04년은 전망치임.

자료 : USDA, *Agricultural Outlook*, 1985~2003(1980/81~2000/01).

2.1. 쌀

- 2003/04년도 쌀 생산량은 2002/03년 보다 2.9% 증가한 3억 9,130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특히 태국의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03/04년도 쌀 소비량은 전년 대비 0.9% 증가한 4억 1,393만 톤으로 전년보다 약 377만 톤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03/04년도 세계 전체 쌀 교역량은 전년 대비 5.7% 감소한 2,575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이것은 미국의 수출량이 전년 대비 23.1%만큼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생산량에서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6.6%로 전망됨.
- 세계 쌀 기말재고량은 전년 대비 21.2%가 줄어든 8,422만 톤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됨. 2003/04년도 기말재고율은 20.3%로 2002/03년도의 26.1%보다 약 5.8% 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쌀(정곡기준)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1/02	2002/03 (추정)	2003/04(전망)		변동률(%)	
			2003.11	2003.12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398.60	380.09	390.64	391.30	2.9	0.2
공 급 량	548.06	517.01	496.32	498.15	△3.6	0.4
소 비 량	411.14	410.16	413.32	413.93	0.9	0.1
교 역 량	27.03	27.31	25.52	25.75	△5.7	0.9
기말재고량	136.92	106.85	83.00	84.22	△21.2	1.5
기말재고율	33.3	26.1	20.1	20.3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05, December 11, 2003.

주요국별 쌀(정곡기준)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1/02	2002/03 (추정)	2003/04(전망)		변동률(%)	
			2003.11	2003.12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548.06	517.01	496.32	498.15	△3.6	0.4
기초재고량	149.46	136.92	105.68	106.85	△22.0	1.1
생산량	398.60	380.09	390.64	391.30	2.9	0.2
미국	6.71	6.54	6.20	6.20	△5.2	0.0
태국	17.50	17.12	17.80	17.80	4.0	0.0
베트남	21.04	21.33	21.00	21.00	△1.5	0.0
인도네시아	33.09	33.20	33.54	33.54	1.0	0.0
중국	124.31	122.18	118.00	118.00	△3.4	0.0
일본	8.24	8.09	7.10	7.08	△12.5	△0.3
수입량	25.75	25.91	24.68	24.15	△6.8	△2.1
인도네시아	3.50	3.00	3.00	3.00	0.0	0.0
중국	0.31	0.23	0.30	0.25	8.7	△16.7
일본	0.66	0.70	0.70	0.70	0.0	0.0
소비량	411.14	410.16	413.32	413.93	0.9	0.1
미국	3.85	3.54	3.88	3.88	9.6	0.0
태국	9.77	9.92	10.20	10.20	2.8	0.0
베트남	17.30	17.80	17.70	18.20	2.2	2.8
인도네시아	36.36	36.76	36.97	36.97	0.6	0.0
중국	134.58	134.80	135.00	135.00	0.1	0.0
일본	8.92	8.79	8.66	8.66	△1.5	0.0
수출량	27.03	27.31	25.52	25.75	△5.7	0.9
미국	2.95	3.86	2.97	2.97	△23.1	0.0
태국	7.24	7.25	8.00	8.00	10.3	0.0
베트남	3.24	4.00	4.00	4.00	0.0	0.0
기말재고량	136.92	106.85	83.00	84.22	△21.2	1.5
미국	1.22	0.83	0.69	0.69	△16.9	0.0
태국	2.40	2.35	1.95	1.95	△17.0	0.0
인도네시아	4.84	4.27	3.84	3.84	△10.1	0.0
중국	82.17	67.27	48.10	48.02	△28.6	△0.2
일본	1.59	1.39	0.34	0.32	△77.0	△5.9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05, December 11, 2003.

국제곡물시장에서의 주요 쌀 가격 동향

단위: \$/톤

품 목 ¹⁾	2001/02	2002/03	2003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²⁾
중립종 쌀	243	286	370	425	430	485	485	505
장립종 쌀	174	199	206	200	202	201	198	2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December 12, 2003.

1) 중립종 쌀은 U.S. Medium California 1등급, 장립종 쌀은 태국산 100% Grade B.

2) 추정치임.

- 장립종 쌀 국제가격은 2000/01년 톤당 184달러를 기록한 후 2003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3년도 11월에는 톤당 198달러까지 도달함. 2003년 8월 이후 톤당 200달러전후를 계속적으로 유지함.

USDA 계산 세계시장 쌀 가격 (rough basis)

단위: \$/cwt

달	2001/02		2002/03		2003/04	
	중립종	단립종	중립종	단립종	중립종	단립종
8 월	2.57	2.58	2.99	3.00	3.79	3.85
9 월	2.69	2.70	2.96	2.97	3.72	3.77
10 월	2.80	2.81	2.95	2.96	3.74	3.79
11 월	2.86	2.87	2.91	2.92	3.80	3.86
12 월 (전망)	3.02	3.02	2.93	2.94	3.96	4.02
1 월	3.06	3.06	2.96	2.98		
2 월	3.31	3.35	3.01	3.03		
3 월	3.23	3.27	2.97	2.99		
4 월	3.20	3.24	2.91	2.93		
5 월	3.30	3.34	2.92	2.94		
6 월	3.42	3.47	3.21	3.24		
7 월	3.45	3.49	3.43	3.45		
평균 ¹⁾	3.08	3.10	3.01	3.03	3.80	3.86

주1: 세계시장 주단위 가격 단순평균

자료: USDA, Farm Service Agency

자료: USDA, Rice Outlook, December 12, 2003.

단위 : Rice Conversions 1 cwt = 100 pounds = 2.22 bushels = .0453 metric ton

- 중립종 쌀 국제가격은 1998/99년 연평균 톤당 470달러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어 2000/01년에는 톤당 313달러, 2001/02년

에는 톤당 272달러까지 하락함. 2003년 1월 톤당 265달러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3년 12월 현재 톤당 505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함.

- 고품질 캘리포니아 중립종 정곡의 가격은 1994년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인 524달러(12월 8일자)를 기록하였음. 이는 11월초보다 40달러 상승한 가격임.
- 미국의 중립종 쌀 생산은 49.5백만 cwt로 5%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반해 단립종 생산은 2.8백만 cwt로 82%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단립종의 생산량 자체가 전체 쌀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 큰 의미는 없음.
- 2003/04년도 미국 중단립종 전체 공급량은 67백만 cwt로 1년 전에 비해 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이중 중단립종 연초 재고량은 9.3백만 cwt로서 1년 전에 비해 13%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전체 생산량은 1년 전에 비해 3% 감소한 52.2백만 cwt, 그리고 미국내 수입량은 15% 증가한 5.5백만 cwt임.
- 2003/04년도 미국 중단립종 전체 소비량은 57.2백만 cwt로 1년 전에 비해 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이 중 중단립종 수출은 1년 전에 비해 17% 감소한 21백만 cwt가 수출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국내소비는 1년 전에 비해 6% 증가한 36.2백만 cwt, 그리고 연말 재고는 5% 증가한 9.8백만 cwt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재고비율은 17.1%로 1년 전에 비해 15.6% 증가함.

미국 중단립종 쌀 생산 동향 및 전망

구 분	단 위	2000/01	2001/02	2002/03 (추정)	2003/04 (전망)
재배면적	백만 acres	0.854	0.621	0.703	-
수확면적	백만 acres	0.850	0.617	0.695	-
단 수	acres당 파운드	7,308	7,733	7,729	-
생 산 량	cwt	62.1	47.7	53.7	52.2
기말재고량	cwt	15.6	10.7	9.3	9.8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December 12, 2003.

자료: USDA, *Rice Outlook*, December 12, 2003.

단위 : Rice Conversions 1 cwt = 100 pounds = 2.22 bushels = .0453 metric ton

- 동북아시아의 생산감소요인은 한국과 일본의 흉작에 기인함. 한국은 낮은 단수에 기인하여 5만톤 줄어든 4.45백만톤을 수확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1980/81년이후 가장 낮은 수확량임.
- 일본도 낮은 단수에 기인하여 2만톤 줄어든 7.08백만톤의 수확을 기록할 예정임. 이는 40년동안 가장 낮은 수준임.
- 동북아시아의 이러한 낮은 수확은 차고 습한 기후에 기인함. 이러한 낮은 수확량에도 불구하고 WTO최소 접근량이외에 추가적인 수입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2.2. 소맥

- 2003/04년도 세계 소맥 생산량은 5억 5,051만 톤으로 전년보다 2.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러시아, 중국, 유럽 등의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2003/04년도 세계 소맥 소비량은 2002/03년 6억 6,239만 톤보다 약 1,425만 톤 감소한 5억 8,814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소맥의 국제 교역량은 2001/02년 1억 804만 톤까지 늘어났으나, 2003/04년에는 1억 24만 톤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생산량에 대한 교역량의 비율도 18.2%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2003/04년 기말재고량은 1억 2,793만 톤으로 전년보다 22.7%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특히, 유럽과 중국의 재고량이 대폭 줄어들고, 기말재고율도 전년의 27.5%에서 21.8%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미국의 재고량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소맥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1/02	2002/03 (추정)	2003/04(전망)		변동률(%)	
			2003.11	2003.12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581.86	566.84	548.24	550.51	△2.9	0.4
공 급 량	787.59	767.95	711.96	716.07	△6.8	0.6
소 비 량	586.48	602.39	585.66	588.14	△2.4	0.4
교 역 량	108.04	106.6	98.56	100.24	△6.0	1.7
기말재고량	201.11	165.56	126.31	127.93	△22.7	1.3
기말재고율	34.3	27.5	21.6	21.8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05, December 11, 2003.

주요국별 소맥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1/02	2002/03 (추정)	2003/04(전망)		변동률(%)	
			2003.11	2003.12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787.59	767.95	711.96	716.07	△6.8	0.6
기초재고량	205.73	201.11	163.72	165.56	△17.7	1.1
생산량	581.86	566.84	548.24	550.51	△2.9	0.4
미국	53.26	44.06	63.59	63.59	44.3	0.0
호주	24.85	10.06	24.00	24.50	143.5	2.1
캐나다	20.57	16.20	22.00	23.50	45.1	6.8
EU15	90.99	103.87	92.00	91.00	△12.4	△1.1
중국	93.87	90.29	87.00	87.00	△3.6	0.0
러시아	46.90	50.55	34.00	34.00	△32.7	0.0
수입량	108.25	106.20	94.44	95.92	△9.7	1.6
EU15	9.82	12.00	4.00	5.00	△58.3	25.0
브라질	7.01	6.73	5.60	5.60	△16.8	0.0
북아프리카	17.47	18.61	13.10	13.10	△29.6	0.0
파키스탄	0.24	0.25	0.50	0.50	100.0	0.0
인도	0.03	0.03	0.05	0.05	66.7	0.0
러시아	0.63	0.52	1.00	1.00	92.3	0.0
소비량	586.48	602.39	585.66	588.14	△2.4	0.4
미국	32.70	30.70	33.20	33.20	8.1	0.0
EU15	91.10	97.10	93.00	94.00	△3.2	1.1
중국	108.74	105.20	104.50	104.50	△0.7	0.0
파키스탄	19.80	18.38	18.75	18.75	2.0	0.0
러시아	38.08	39.32	35.50	35.50	△9.7	0.0
수출량	108.04	106.60	98.56	100.24	△6.0	1.7
미국	26.19	23.25	29.26	29.94	28.8	2.3
캐나다	16.27	9.40	14.50	15.50	64.9	6.9
EU15	11.49	16.32	8.50	7.50	△54.0	△11.8
기말재고량	201.11	165.56	126.31	127.93	△22.7	1.3
미국	21.15	13.37	16.55	15.86	18.6	△4.2
EU15	10.94	13.40	6.24	7.90	△41.0	26.6
중국	76.59	60.38	42.08	42.58	△29.5	1.2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05, December 11, 2003.

2.3. 옥수수

- 2003/04년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6억 1,003만 톤으로 전년보다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미국, 멕시코, 동남아시아 등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2003/04년의 소비량은 전년 대비 0.8% 증가한 6억 3,649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소비량이 생산량을 2,646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 2003/04년 세계 옥수수 교역량은 전년보다 5.7% 감소한 7,482만 톤이고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3%가 될 것으로 전망됨. 전체 수출량 중 미국과 아르헨티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65.4%, 12.7%로 이들 두 국가가 약 78.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2003/04년 옥수수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26.3% 줄어든 7,424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전년보다 2,646만 톤 정도 줄어든 수준임. 주요 옥수수 생산국인 중국과 유럽의 기말재고량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임. 2003/04년도 기말재고율도 전년보다 4.2% 포인트 줄어든 11.7%가 될 전망됨.

옥수수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1/02	2002/03 (추정)	2003/04(전망)		변동률(%)	
			2003.11	2003.12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599.35	602.51	609.79	610.03	1.2	0.0
공 급 량	751.47	732.26	710.10	710.73	△2.9	0.1
소 비 량	621.72	631.56	633.66	636.49	0.8	0.4
교 역 량	75.99	79.38	74.05	74.82	△5.7	1.0
기말재고량	129.75	100.70	76.45	74.24	△26.3	△2.9
기말재고율	20.9	15.9	12.1	11.7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05, December 11, 2003.

주요국별 옥수수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1/02	2002/03 (추정)	2003/04(전망)		변동률(%)	
			2003.11	2003.12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751.47	732.26	710.10	710.73	△2.9	0.1
기초재고량	152.12	129.75	100.31	100.70	△22.4	0.4
생산량	599.35	602.51	609.79	610.03	1.2	0.0
미국	241.48	228.80	261.07	261.07	14.1	0.0
아르헨티나	14.70	15.50	14.00	13.50	△12.9	△3.6
EU15	40.01	40.09	30.50	30.50	△23.9	0.0
멕시코	20.40	18.80	19.00	19.00	1.1	0.0
동남아시아	15.07	14.67	15.67	15.67	6.8	0.0
중국	114.09	121.30	114.00	114.00	△6.0	0.0
수입량	74.42	75.80	75.64	75.59	△0.3	△0.1
EU15	2.91	3.20	4.00	4.00	25.0	0.0
일본	16.40	16.87	16.50	16.50	△2.2	0.0
멕시코	4.08	5.28	6.50	6.50	23.1	0.0
동남아시아	3.82	4.11	3.86	3.86	△6.1	0.0
한국	8.62	8.79	9.50	9.50	8.1	0.0
소비량	621.72	631.56	633.66	636.49	0.8	0.4
미국	201.05	201.69	207.02	207.02	2.6	0.0
EU15	42.40	42.20	36.10	37.20	△11.8	3.0
일본	16.30	16.80	16.50	16.50	△1.8	0.0
멕시코	23.60	24.70	25.70	25.70	4.0	0.0
동남아시아	18.82	18.64	19.30	19.30	3.5	0.0
한국	8.74	8.97	9.57	9.57	6.7	0.0
중국	123.30	126.50	129.10	129.10	2.1	0.0
수출량	75.99	79.38	74.05	74.82	△5.7	1.0
미국	48.38	40.45	47.63	48.90	20.9	2.7
아르헨티나	10.80	12.00	10.00	9.50	△20.8	△5.0
중국	8.61	15.24	8.50	8.50	△44.2	0.0
기말재고량	129.75	100.70	76.45	74.24	△26.3	△2.9
미국	40.55	27.58	34.26	32.99	19.6	△3.7
아르헨티나	0.39	0.60	0.61	0.61	1.7	0.0
EU15	4.19	5.08	3.18	2.28	△55.1	△28.3
중국	63.40	42.99	19.47	19.49	△54.7	0.1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05, December 11, 2003.

2.4. 대두

- 2003/04년도 세계 대두 생산량은 1억 9,946만 톤으로 전년보다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대두 소비량은 전년보다 5.3% 늘어난 2억 169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소비량이 생산량보다 223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 대두 교역량은 전년보다 5.8% 증가한 6,684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의 비중은 33.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수출량에서 미국이 36.2%, 브라질이 39.2%, 아르헨티나가 17.2%의 비중을 차지, 이들 3국의 수출비중이 92.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대두의 기말 재고량은 3,607만 톤으로 전망되어 전년의 3,815만 톤과 비교하여 5.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약 2.0% 포인트 낮은 17.9%가 될 것으로 전망됨.

대두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1/02	2002/03 (추정)	2003/04(전망)		변동률(%)	
			2003.11	2003.12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184.87	196.66	201.48	199.46	1.4	△1.0
공 급 량	215.58	228.80	239.05	237.61	3.9	△0.6
소 비 량	184.02	191.57	202.63	201.69	5.3	△0.5
교 역 량	53.62	63.17	67.17	66.84	5.8	△0.5
기말재고량	32.14	38.15	36.75	36.07	△5.5	△1.9
기말재고율	17.5	19.9	18.1	17.9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05, December 11, 2003.

주요국별 대두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1/02	2002/03 (추정)	2003/04(전망)		변동률(%)	
			2003.11	2003.12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215.58	228.80	239.05	237.61	3.9	△0.6
기초재고량	30.71	32.14	37.57	38.15	18.7	1.5
생산량	184.87	196.66	201.48	199.46	1.4	△1.0
미국	78.67	74.83	66.73	66.73	△10.8	0.0
아르헨티나	30.00	35.50	38.00	36.50	2.8	△3.9
브라질	43.50	52.50	60.00	60.00	14.3	0.0
중국	15.41	16.51	16.20	16.20	△1.9	0.0
수입량	54.21	64.10	67.50	66.98	4.5	△0.8
EU15	18.30	17.05	18.60	18.60	9.1	0.0
일본	5.02	5.09	5.15	5.15	1.2	0.0
중국	10.39	21.42	22.00	22.00	2.7	0.0
소비량	184.02	191.57	202.63	201.69	5.3	△0.5
미국	50.87	47.56	43.95	43.95	△7.6	0.0
아르헨티나	22.06	24.84	27.32	27.01	8.7	△1.1
브라질	26.91	30.04	34.59	34.59	15.1	0.0
EU15	19.23	17.81	19.45	19.40	8.9	△0.3
일본	5.21	5.32	5.43	5.43	2.1	0.0
중국	28.31	35.29	37.81	37.90	7.4	0.2
수출량	53.62	63.17	67.17	66.84	5.8	△0.5
미국	28.95	28.44	24.22	24.22	△14.8	0.0
아르헨티나	6.01	8.71	12.00	11.50	32.0	△4.2
브라질	15.00	21.46	25.80	26.20	22.1	1.6
기말재고량	32.14	38.15	36.75	36.07	△5.5	△1.9
미국	5.66	4.61	3.39	3.39	△26.5	0.0
아르헨티나	10.16	12.51	10.98	10.80	△13.7	△1.6
브라질	11.07	13.38	14.49	14.09	5.3	△2.8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05, December 11, 2003.

2.4. 오렌지

- 2003/04년도 미국내 오렌지류(citrus corp) 수확량은 지난해에 비해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중 오렌지 수확량은 18% 증가하여 오렌지류(citrus corp) 생산증가에 큰 영향을 미침.
- 플로리다 지역 날씨가 오렌지 생육기간 중 좋았기 때문에 수목 당 과일 수와 과일크기가 증가함. 주스용 오렌지를 주로 생산하는 플로리다산 발렌시아 오렌지의 생산은 지난해에 비해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현재 플로리다주는 미국 전체 오렌지류(citrus corp) 수확량의 78%를 차지함.
- 미국 내에서 생과형태로 판매되는 오렌지의 80%를 생산하는 캘리포니아와 아리조나의 상황은 플로리다주와 다른 상황임. 네이블오렌지는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캘리포니아 지역의 오렌지 생산이 2.2백만톤으로 전년대비 5% 감소한 것에 기인하며, 동시에 아리조나주의 생산이 17,000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것에 기인함.
- 오렌지의 농가판매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10월 기준 36.7% 하락함.

오렌지 미국 농가판매가격

단위: 달러

구 분	2002		2003		2002-03 비교	
	9월	10월	9월	10월	9월	10월
오렌지 전체	5.33	5.18	2.80	3.28	-47.5	-36.7
오렌지 신선	6.33	7.36	4.64	6.16	-26.7	-16.3

자료: USDA, *Fruit and Tree Nuts Outlook, FTS-307*, November 27, 2003.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USDA.

- 미국산 오렌지 수출은 지난해에 비해 28.1% 증가함. 오렌지 주스의 경우에는 농축 오렌지 주스가 125백만 갤런에서 41백만 갤런으로 급감한데 반해 비농축 오렌지 주스는 10.6% 수출이 증가함.

오렌지 미국 수출량 추이

단위: 백만 톤

구 분	마케팅 기간	9월까지 수출량		단위	증감률
		2002	2003		
오렌지	11월-10월	1,082,116	1,386,502	1,000파운드	28.1
오렌지주스 (농축)	10월-9월	125,385	41,483	1,000갤런	-66.9
오렌지주스 (비농축)	10월-9월	51,885	57,364	1,000갤런	10.6

자료: USDA, *Fruit and Tree Nuts Outlook, FTS-307*, November 27, 2003.
Bureau of the Census, U.S. Department of Commerce.

2.5. 육우

- 2003년도 쇠고기 시장에서는 고품질 제품공급의 제한으로 인해 기록적인 가격을 기록한 이후 조정과정을 거치고 있음. 포장 쇠고기의 가격은 가을 초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연초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임.

미국 육우 수급 및 가격추정

	2001	2002	2003	2004			
				1분기	2분기	3분기	연간
생산량 (백만 lb)	26,107	27,090	26,297	6,150	6,550	6,700	25,400
1인당 소비량 (1 lb)	66.2	67.6	64.5	15.3	16.3	16.3	62.4
가격1) (\$/cwt)	72.71	67.04	85.47	93-97	84-92	79-85	84-91
수출량 (백만 lb)	2,269	2,447	2,584	620	680	685	2,620

자료: USDA, *Livestock, Dairy, and Poultry Outlook, LDP-M-114* December 23, 2003.

주1: Choice steers, Neb. 기준

- 10월과 11월 쇠고기 공급은 연초에 비해 12~16% 감소함.
- 미국 육우산업은 12월 광우병 파동과 각국의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 전망에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임. 아래의 추정은 광우병에 관련된 영향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임.

Ⅲ. 국내경제 동향5)

1. 경기

- 2003년 3/4분기 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민간소비 부진 지속과 설비투자 감소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건설투자의 증가세 확대로 전년 동기대비 2.3% 증가함.
 - 민간 소비 지출은 내구재와 준내구재에 대한 소비지출이 크게 감소하고 비내구재에 대한 지출도 감소함으로써 전년 동기대비 1.9% 감소함.
 - 건설투자는 비주거용 건물건설 투자의 높은 증가세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7.8%의 높은 신장세를 보임. 반면, 설비투자는 버스, 승용차등 운수장비투자가 크게 감소하여 전년 동기대비 4.7% 감소함.

경제성장률(실질)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2001	2002		2003		
		4/4	년간	1/4	2/4	3/4
G D P 성장률	3.1	6.8	6.3	3.7	1.9	2.3
최종 소비지출	4.2	3.8	6.2	1.2	△1.4	△1.4
(민 간)	4.7	4.3	6.8	0.7	△2.2	△1.9
총고정자본형성	△1.8	6.8	4.8	4.8	3.5	2.3
(건 설)	5.3	6.0	3.3	8.1	7.2	7.8
(설 비)	△9.6	8.2	6.8	1.6	△0.8	△4.7
총 수출	0.7	24.2	14.9	17.3	10.2	15.2
총 수입	△3.0	20.0	16.4	18.0	7.5	9.1

자료: 한국은행

5)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김병률 연구위원(brkim@krei.re.kr), 김종선 전문연구원(sun589@krei.re.kr)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 수출(물량기준)은 섬유, 의복 등 경공업제품과 석유제품 수출이 계속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통신기기, 컴퓨터 및 사무기기 등 대부분의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신장세가 크게 확대됨으로써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하였음. 수입(물량기준)은 경공업제품(음식료품, 섬유 등)의 수입이 감소하고 자동차의 수입도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기계류 등 대부분의 중화학공업제품 수입이 증가함으로써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하였음.
 - 최종수요에 대한 내수의 성장 기여율이 전분기의 -7.8%에서 -30.9%로 하락한 반면, 수출의 성장 기여율은 전분기의 107.8%에서 130.9%로 상승함.
- 3/4분기 농림어업의 성장률은 태풍 등의 영향으로 재배업과 어업의 생산이 부진하여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하였음.
- 재배업은 채소류(고추, 마늘 등), 벼, 감자 등의 생산량이 줄어 전년 동기 대비 7.8% 감소하였으며, 축산업은 육우 및 양계 등의 사육두수가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하였음.
 - 임업은 벌채허가량 감소로, 어업은 태풍 및 적조현상 등으로 생산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3.7%, 4.0% 감소하였음.

경제활동별 성장률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2001	2002		2003		
		4/4	년간	1/4	2/4	3/4
전 산 업	3.8	6.6	6.7	3.5	1.9	2.3
농 립 어 업	1.9	△6.3	△4.1	4.8	△1.4	△5.6
제 조 업	2.1	8.8	6.3	5.2	2.2	2.4
건 설 업	1.9	6.3	3.2	8.8	8.0	8.3
서 비 스 업	3.9	8.6	8.8	2.0	0.7	1.8

자료: 재정경제부

- 3/4분기 제조업은 반도체, 가정용전기기기를 중심으로 중화학공업제품의 생산이 늘어나 전년 동기대비 2.4% 증가하였으며, 건설은 상업용과 주거용 건물건설이 호조를 보여 8.3% 증가하였음.
 -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감소폭이 둔화되고 금융보험업 및 사업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여타 서비스업종의 생산 증가세가 소폭 확대되어 전년 동기대비 1.8% 증가하였음.
- 2003년 11월 중 산업생산은 사무회계용 기계, 섬유제품 등은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자동차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4.7% 증가하였음.
- 11월중 생산자제품 출하의 경우는 전년 동월대비 3.7% 증가하였음.
 - 수출 출하는 사무회계용 기계, 의복 및 모피 등은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자동차 등에서 증가하여 15.4% 증가하였음.
 - 내수 출하는 반도체, 화학제품 등은 증가하였으나 영상음향통신, 사무회계용 기계, 섬유제품 등이 감소하여 2.6% 감소하였음.
- 재고는 반도체, 사무회계용 기계 등에서는 감소하였으나 자동차, 화학제품 등에서 증가하여 7.1% 증가하였음.

산업생산 추이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2001	2002	2003			
			1/4분기	2/4분기	3/4분기	11월
생 산	0.7	8.0	6.1	3.0	3.0	4.7
출 하	1.3	7.9	4.8	2.8	2.5	3.7
(수 출)	0.9	7.7	7.7	10.4	11.7	15.4
(내 수)	1.4	8.1	3.2	△0.8	△2.2	△2.6
재 고	0.4	△0.4	10.1	9.9	9.2	7.1
평균가동율	75.3	78.3	78.6	77.1	76.4	80.0

자료: 재정경제부, 통계청

- 평균 가동률은 비금속광물, 반도체, 자동차 등이 감소하여 전월에 비해 1.2%p 감소한 80.0%를 나타냄.

2. 소비 및 투자

- 11월 중 도소매 판매액 지수는 자동차 및 차량연료, 도매, 소매 모두 감소하여 전년 동월대비 3.7% 감소함.
- 생산자의 내수용 소비재 출하는 전년 동월대비 9.5% 감소함.
 - 내구 소비재는 FPD TV, 싱크대 등에서는 증가하였으나 승용차, 냉장고 등에서 감소하여 전년 동월대비 17.0% 감소함.
 - 비내구 소비재는 담배, 의약품 등에서는 증가하였으나 남녀기성복, 등유 등에서 감소하여 전년 동월대비 5.5% 감소함.

소비 동향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2001	2002	2003			
			1/4	2/4	3/4	11월
도소매 판매	6.6	8.3	1.5	△1.7	△2.5	△3.7
내수용 소비재출하	2.8	8.3	△1.6	△7.4	△6.4	△9.5
(내 구 재)	3.0	17.1	△4.4	△12.6	△15.0	△17.0
(비내구재)	2.7	4.1	△0.1	△4.6	△1.9	△5.5

자료: 재정경제부, 통계청

- 2003년 3/4분기 도시 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01만 9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4% 증가하였음.
 - 전년 동기 소득증가율 4.7%에 비해 0.7%p 상승하였는데, 이는 주

로 가구주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증가한데 기인함.

- 3/4분기 월평균 실질소득(2000년 소비자물가 기준)은 272만 4천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2.2%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기 실질소득 증가율 2.1%와 비슷한 증가세를 보임.

○ 도시근로자의 3/4분기 월평균 소비지출은 194만 9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하였음.

- 소비지출 중 가장 큰 비중(27.9%)을 차지하고 있는 식료품 소비지출은 54만 3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7.4% 증가하였으며, 이 중 외식비는 25만 4천원으로 16.2% 증가하였음.
- 자녀 교육을 위한 보충교육비 지출이 38.3%로 크게 늘어나 교육비(25만 7천원)는 전년 동기대비 11.2% 증가하였음.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변화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2001	2002	2003		
	3/4	3/4	1/4	2/4	3/4
소 득	12.0	4.7	4.3	4.2	5.4
소비 지출	10.9	3.0	4.8	6.1	6.2
(식료품)	6.8	2.1	2.9	6.6	7.4
(교육)	16.3	2.2	13.0	17.0	11.2

자료: 통계청

- 11월 중 설비투자는 통신기기, 자동차 및 정밀기기 등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여 전년 동월대비 8.1% 감소하였음.
- 기계류 내수 출하는 통신장비, 컴퓨터 및 자동차 등의 출하가 부진하여 전년 동월대비 8.8% 감소하였음.

- 11월 중 기계수주는 민간(운수창고업 및 기타운송장비 등) 및 공공부
문(전력업 및 정부 등)에서의 발주가 모두 감소하여 전년 동월대비
11.2% 감소하였음.
- 11월 중 국내 건설기성(경상금액)은 민간 및 공공발주 공사실적이 모
두 호조를 보여 전년 동월대비 15.1% 증가하였음.
 - 건축공사는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이 모두 호조를 보여 23.4%
증가하였으며, 토목공사도 1.8% 증가하였음.
- 국내 건설수주(경상금액)는 민간부문은 증가하였으나, 민자유치사업
및 공공부문이 감소하여 전년 동월대비 15.1% 감소하였음.
 - 공공부문의 발주는 14.9% 감소, 민간부문은 5.3% 증가하였음.

투자 추이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2002		2003			
	4/4	연간	1/4	2/4	3/4	11월
설비투자	3.1	1.6	△3.4	△3.7	△7.0	△8.1
기계류내수출하	12.3	9.4	3.3	0.1	△3.5	△8.8
국내기계 수주	22.9	21.0	△18.2	△4.8	△8.3	△11.2
건설투자 기성	8.0	3.7	16.0	15.8	18.1	15.1
건설투자 수주	12.7	21.3	△2.0	56.3	52.3	△15.1

자료: 통계청

3. 수출입 및 무역수지

- 11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21.9% 증가한 18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
며, 금년 1~11월 누계로는 전년 동기대비 18.3% 증가한 1,744억 1천

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 11월 중 자동차(36.3%), 정보통신기기(30.5%), 반도체(23.0%)의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선박, 직물, 의류, 석유제품 등의 수출은 감소하였음.
- 지역별로는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으로의 수출이 6.3% 증가하였으며 중국, 동남아, 중남미 등 개도국으로의 수출 또한 36.8%로 크게 증가하였음.

○ 11월 중 수입은 전년 동월대비 12.5% 증가한 157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금년 1월~11월 수입 누계도 1,611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7% 증가하였음.

- 11월 중 소비재 수입은 금, 가전제품 등의 수입증가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 증가세(17.3%)를 기록하였으며, 자본재 수입은 반도체, 기계류의 수입증가로 12.0% 증가, 원자재 수입은 원유의 수입증가로 11.2% 증가하였음.
- 지역별로는 선진국(9.1%) 및 개도국(16.0%)으로 부터의 수입 모두 증가하였음.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억달러

	2001	2002	2003				
			1/4	2/4	3/4	11월	1~11월
수출(FOB)	1,504.4	1,624.7	430.5	460.6	479.9	185.3	1,744.1
(전년동기증감율)	△12.7	8.0	20.7	14.5	16.3	21.9	18.3
수입(CIF)	1,411.0	1,521.3	442.1	416.8	429.2	157.4	1,611.4
(전년동기증감율)	△12.1	7.8	30.8	12.1	10.4	12.5	17.0
무역수지	93.4	103.4	△11.6	43.8	50.7	278.4	132.7

자료: 관세청

- 11월 중 무역수지는 158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8개월 연속 흑자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1~11월 무역수지 누계는 132억 7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음.

4. 고용

- 11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322만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0.8% 증가하였음.
 - 경제활동 참가율은 62.0%로 전년 동월대비 0.1%p 하락하였으며, 전월대비로는 변화가 없었음.
- 11월 중 취업자수는 2,242만 5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0.2%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0.1% 감소하였음.

고 용 활 동

단위: 천명, %

	2002		2003			동월대비 증감률
	년간	11월	2/4	3/4	11월	
경 제 활 동 인 구	28,877	23,037	23,055	23,050	23,218	0.8
(경제활동참가율)	61.9	62.1	61.8	61.6	62.0	
취 업 자	22,169	22,389	22,303	22,295	22,425	0.2
· 농 립 어 업	2,069	2,094	2,127	2,090	1,958	△6.5
· 광 공 업	4,259	4,275	4,255	4,184	4,262	△0.3
(제 조 업)	4,241	4,257	4,238	4,166	4,246	△2.3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	15,841	16,020	15,902	16,021	16,205	1.2
(건 설 업)	1,746	1,822	1,854	1,821	1,876	3.0
실 업 자	708	648	751	756	792	22.2
실업률(계절조정)	3.1	3.0	3.4	3.5	3.7	

자료: 통계청

-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대비 6.5% 감소한 196만 명을 기록함.
- 광공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0.3% 감소하였으며, 사회 간접 자본 및 기타 서비스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1.2% 증가함.

○ 실업자 수는 79만 2천명을 기록하여 전년 동월대비 22.2%로 크게 증가하였음. 또한 계절조정 실업률은 3.7%로 전년 동월대비 0.7%p 증가하였음.

5. 물가

○ 11월 중 생산자 물가는 농림수산품이 채소류 및 과실류를 중심으로 내렸으나, 공산품이 유가, 환율 및 원자재가의 상승으로 석유제품, 금속1차제품,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등을 중심으로 오르고, 서비스도 화물운임을 중심으로 올라 전월대비 0.4%, 전년 동월대비 2.4% 상승하였음.

품목별 생산자 물가 지수(2000년=100)

	2002		2003				
	연간	3/4	1/4	2/4	3/4	10월	11월
총 지 수	99.2 (△0.3)	99.2 (0.3)	101.2 (3.0)	101.0 (1.3)	101.1 (1.9)	101.8 (2.2)	102.2 (2.4)
농림수산품	106.3 (2.6)	106.9 (0.2)	109.0 (2.6)	108.0 (0.6)	112.6 (5.3)	120.7 (18.2)	119.7 (13.8)
광 산 품	109.1 (7.8)	110.0 (8.4)	110.8 (4.0)	111.6 (1.6)	111.1 (1.0)	109.6 (△0.4)	109.6 (△0.4)
공 산 품	96.4 (△1.5)	96.4 (△0.4)	98.4 (3.2)	97.9 (0.9)	97.5 (1.1)	97.9 (0.9)	98.5 (1.5)
전력 수도	104.9 (△3.3)	104.5 (△4.1)	107.9 (3.4)	109.1 (4.4)	107.9 (3.2)	106.9 (1.5)	107.2 (0.7)
서 비 스	103.1 (2.1)	103.1 (2.1)	104.8 (2.4)	105.1 (1.9)	105.5 (2.4)	105.9 (2.2)	106.3 (2.5)

주: ()는 전년동기(월)대비, %

자료: 한국은행

- 농림수산품은 돼지고기의 출하물량 감소로 축산물(3.9%)이 오르고, 굴 등의 수요증가로 선어 및 조개(4.1%)가 올랐으나, 채소류(-6.3%) 및 과일류(-2.9%)가 출하물량의 증가로 내리면서 전체적으로 전월대비 0.8% 하락함(전년 동월대비 13.8% 상승).
- 공산품은 내수부진에 따른 경쟁격화로 일반기계 장비(-0.2%)가 내렸으나 국제유가 및 국제원자재가 상승으로 석유제품(3.1%) 및 금속1차제품(1.5%) 등이 오르고 국내외 수요증가 및 환율상승 등으로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0.5%)도 올라 전월대비 0.6% 상승하였음(전년 동월대비 1.5% 상승).

품목별 소비자물가 지수(2000년=100)

	2002		2003				
	연간	3/4	1/4	2/4	3/4	11월	12월
총 지 수	106.9 (2.8)	107.4 (2.5)	109.8 (4.1)	110.5 (3.3)	110.8 (3.2)	111.5 (3.4)	112.0 (3.4)
상 품	106.4 (2.8)	106.9 (2.4)	109.9 (4.9)	109.1 (2.6)	109.3 (2.2)	110.5 (△0.6)	111.3 (3.2)
농축수산물	112.9 (6.2)	114.9 (4.6)	118.4 (6.1)	116.3 (2.8)	118.9 (3.5)	123.8 (11.9)	123.4 (8.9)
공업 제품	104.3 (1.6)	104.4 (1.6)	107.2 (4.5)	106.8 (2.5)	106.3 (1.8)	106.3 (0.3)	107.5 (1.4)
서 비 스	107.5 (2.8)	107.8 (2.7)	109.8 (3.4)	111.6 (3.9)	112.0 (3.9)	112.3 (3.7)	112.6 (3.5)
집 세	110.1 (5.7)	110.9 (5.8)	112.7 (4.4)	113.8 (3.8)	114.5 (3.2)	115.1 (2.9)	115.3 (2.8)
공공서비스	106.1 (△1.3)	105.5 (△1.9)	107.6 (1.1)	109.4 (3.2)	109.2 (3.4)	108.6 (2.5)	108.8 (2.0)
개인서비스	106.9 (3.7)	107.5 (3.9)	109.7 (4.2)	111.7 (4.4)	112.4 (4.6)	112.9 (4.6)	113.3 (4.7)

주: ()는 전년동기(월)대비, %

자료: 통계청

- 서비스 부문은 운수(1.2%)가 외항화물운임이 큰 폭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오름세를 보인데다 리스 및 대부(1.0%)가 외산기계리스료 및 건설중장비임대료 상승으로 오르고, 금융(0.9%)도 자동차보험료 상승 등으로 올라 전체적으로는 전월대비 0.4%(전년 동월대비 2.5%)상승하였음.

○ 12월 중 소비자 물가는 전월대비 0.4% 상승, 전년 동월대비 3.4% 상승하였음.

- 농축수산물은 전년 동월대비 배추(-40.0%), 풋고추(-36.9%) 등이 하락하였으나 감자(66.7%), 배(44.9%), 파(43.5%)등이 크게 올라 전체적으로 전년 동월대비 8.9% 상승하였음.

- 서비스 부문은 전년 동월대비 집세(2.8%), 공공서비스(2.0%), 개인서비스(4.7%)가 모두 상승하여 전체적으로 3.5% 상승하였음.

수출물가지수(2000년=100)

	2002		2003				
	연간	4/4	1/4	2/4	3/4	10월	11월
농 수 산 품	102.4 (△8.2)	102.6 (△8.3)	95.3 (△9.7)	96.3 (△4.0)	103.1 (2.1)	112.1 (8.6)	116.9 (14.3)
공 산 품	89.4 (△7.0)	87.6 (△2.2)	89.1 (△3.9)	86.9 (△4.5)	85.6 (△0.8)	85.9 (△3.5)	88.2 (1.8)
원 자 재	84.0 (△6.2)	83.3 (3.0)	86.0 (0.3)	82.6 (△3.5)	82.5 (1.3)	83.1 (△1.7)	85.8 (4.4)
자 본 재	94.3 (△8.4)	89.6 (△9.8)	87.4 (△13.2)	87.1 (△10.2)	83.8 (△6.9)	83.2 (△9.3)	84.2 (△5.1)
소 비 재	100.3 (△7.9)	97.7 (△8.3)	97.3 (△7.9)	97.3 (△3.9)	94.4 (△2.2)	95.1 (△4.0)	96.7 (△0.2)
총 지 수	89.5 (△7.0)	87.8 (△2.2)	89.1 (△3.9)	86.9 (△4.5)	85.7 (△0.7)	86.2 (△3.4)	88.4 (1.9)

주: ()는 전년동기(월)대비, %

자료: 한국은행

- 11월 중 수출물가는 전월대비 2.6% 상승(전년 동월대비 1.9% 상승)하였음. 이는 원유, 비철금속 등 국제원자재가격 상승과 미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 상승 등으로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 금속1차제품,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품 등 대다수 공산품이 상승한데 기인함.
 - 농수산품은 원화환율 상승으로 농산품(전월대비 1.8%)이 오른 데다, 어획량 감소로 수산품(4.7%)도 올라 전월대비 4.2% 상승(전년 동월대비 14.3% 상승)
- 11월 중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2.7% 상승(전년 동월대비 6.4% 상승)하였음. 이는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원유 등 기초원자재와 석유화학제품 등 중간원자재가 오른 데다 미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 상승 등으로 자본재 및 소비재도 모두 올랐기 때문임.

수입물가지수(2000년=100)

	2002		2003				
	연간	4/4	1/4	2/4	3/4	10월	11월
농 수 산 품	113.4 (2.0)	114.5 (4.7)	116.0 (1.0)	115.6 (1.9)	111.7 (1.0)	121.0 (3.8)	126.0 (11.5)
광 산 품	100.7 (△0.3)	103.3 (20.2)	113.9 (22.8)	101.2 (△3.3)	104.5 (2.5)	105.5 (△3.0)	108.7 (12.0)
공 산 품	95.0 (△8.4)	94.2 (△4.4)	96.0 (△1.8)	94.8 (△1.4)	93.1 (1.1)	95.0 (△0.4)	97.3 (4.2)
원 자 재	96.0 (△6.4)	96.4 (2.6)	100.9 (5.6)	96.2 (△1.5)	96.0 (1.8)	98.0 (△0.8)	100.8 (7.2)
자 본 재	100.5 (△6.3)	98.6 (△6.9)	98.2 (△5.7)	99.3 (△2.2)	96.8 (△1.1)	99.0 (△0.8)	100.5 (2.4)
소 비 재	107.2 (△3.1)	104.5 (△4.5)	107.6 (△3.9)	107.0 (△2.6)	103.6 (1.3)	105.4 (△0.7)	107.8 (4.5)
총 지 수	97.1 (△6.2)	97.1 (0.8)	100.9 (3.5)	97.2 (△1.6)	96.4 (1.4)	98.4 (△0.8)	101.1 (6.4)

주: ()는 전년동기(월)대비, %

자료: 한국은행

6. 금융 및 외환

- M3 증가율은 10월 중 5.8%(잠정)를 기록한데 이어 11월 중에는 5% 내외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정부부문에서 통화공급이 확대되었으나, 전년 동월 중 M3가 큰 폭으로 증가한데 따른 반사효과 등에 기인함.
- 11월 중 M1증가율은 MMF(Money Market Funds) 대규모 환매 등의 영향으로 10월의 5.3%보다 낮은 수준인 5% 내외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통화지표 증감률(평잔기준)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02	2003			
		8월	9월	10월	11월
M1	22.5	6.9	6.8	5.3	5% 내외
M2	11.5	6.7	5.7	3.8	3% 초반
M3	12.9	7.9	7.3	5.8	5% 내외
본원통화	14.3	6.9	6.8	2.8	4.6

자료: 한국은행, 재정경제부

- 11월 중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 등 장기시장금리는 국내외 경제회복 기대, 채권수급 부담 등의 영향으로 큰 폭 상승하여 10월 이후 상승세 지속.
- CD(3개월) 유통수익률도 장기시장금리 상승, 투신사 MMF 대폭 환매에 따른 매입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월에 이어 크게 상승함.

금리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02	2003			
		8월	9월	10월	11월
콜 금 리	4.16	3.72	3.71	3.72	3.76
CD유통수익률	4.80	3.90	3.83	3.93	4.23
회사채유통수익률	6.59	5.87	5.24	5.18	5.53

자료: 한국은행, 재정경제부

- 원/달러 환율(기간 평균)은 4월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다가 10월 중순 이후 카드사 문제로 인한 불안심리, 시장개입 경계심 등으로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달러 환율

단위: 원(기간 평균)

	2001	2002	2003				
			2/4	3/4	9월	10월	11월
원/달러	1,290.8	1,251.2	1,208.9	1,175.6	1,166.0	1,166.0	1,185.2

자료: 재정경제부

IV. 농촌경제 동향6)

1. 농촌물가

- 10월 중 농가판매가격 지수는 126.2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대비 17.6%(전월대비 3.7%) 상승함.

농가판매가격지수(2000=100)

	가중치	2002		2003		등락률(%)	
		10월	12월	9월	10월	전년 동월대비	전월 대비
총 지 수	1000	107.3	112.8	121.7	126.2	17.6	3.7
곡 물	388	95.7	95.8	99.9	102.4	7.0	2.5
미 곡	349.6	95.3	95.2	97.3	99.4	4.3	2.2
맥 류	10.4	104	104.0	104.0	104.0	0.0	0.0
잡 곡	4.2	107.2	107.1	108.0	108.3	1.0	0.3
두 류	8.4	95.5	96.8	104.3	108.8	13.9	4.3
서 류	15.4	96.1	99.7	151.5	163.5	70.1	7.9
청 과 물	328.2	105.6	117.5	133.3	144.7	37.0	8.6
채 소	207.2	105.9	135.6	159.2	169.2	59.8	6.3
과 실	121	105.0	86.6	89.09	102.7	△2.2	15.4
축 산 물	225.2	128.6	134.9	141.7	139.8	8.7	△1.3
가 축	196.5	132.6	139.8	147.3	145.2	9.5	△1.4
유 란	28.7	101.5	101.4	103.0	102.5	1.0	△0.5
기 타	58.6	112.2	114.5	124.1	128.0	14.1	3.1
특 작	45.3	113.7	113.9	119.8	123.3	8.4	2.9
화 훼	12.7	107.0	117.0	139.9	145.3	35.8	3.9
부 산 물	0.6	110.8	110.8	111.4	118.5	7.0	6.4

자료: 농협중앙회 조사부

6)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김병률 연구위원(brkim@krei.re.kr), 김종선 전문연구원(sun589@krei.re.kr)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 전년 동월대비 서류가 70.1%로 크게 상승하고 두류가 13.9%로 상승한데 기인하여, 10월 중 곡물 농가판매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7.0% 상승한 102.4를 기록함.
 - 과실이 지난 분기 하락에 이어 또다시 전년 동월대비 2.2% 하락하였으나, 채소류가 전년 동월대비 59.8%로 크게 상승함으로써 청과물 농가판매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37.0% 상승한 144.7을 기록함.
 - 가축과 유란이 전년 동월대비 각각 9.5%, 1.0% 상승하여 축산물 농가판매가격은 8.7% 상승한 139.8을 기록함.
 - 전년 동월대비 화훼가 35.8%, 특용작물이 8.4% 상승하여 기타작물의 농가판매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14.1% 상승한 128.0을 기록함.
- 10월 중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15.6을 기록하여 전년 동월대비 4.1% (전월대비 0.4%) 상승함.
- 가계용품은 114.1을 기록하여 전년 동월대비 4.2%(전월대비 0.4%) 상승함. 이는 가구집기·가사용품·주택자재 등의 구입비가 하락(-3.6%)하였으나, 식료품(12.8%), 교육비(6.9%), 보건의료비(6.3%) 등이 크게 오른데 기인함.
 - 농업용품은 전년 동월대비 3.6% 상승한 117.6을 기록하였음. 이는 농약 구입비(-2.3%)와 종자 구입비(-0.8%)가 하락하였으나, 가축 구입비(15.5%), 사료비(2.7%) 등이 크게 상승한데 기인함.
 - 농촌임료금은 농업노동임금, 기타임금, 도정료, 농기계 임차료 등 모든 임료금이 상승하여 전년 동월대비 5.0% 상승한 116.9를 기록함.

농가구입가격지수(2000년=100)

	가중치	2002		2003		등락률(%)	
		10월	12월	9월	10월	전 년 동 월 대 비	전 월 대 비
총지수	1000	111.1	111.1	115.1	115.6	4.1	0.4
가계용품	559.3	109.5	109.8	113.6	114.1	4.2	0.4
식료품	100.7	112.1	114.7	122.1	126.5	12.8	3.6
피복및	27.6	107.8	108.7	111.0	107.9	0.1	△2.8
가구집기및	42.2	97.1	97.2	93.8	93.6	△3.6	△0.2
광열수도	50	110.2	108.8	110.3	110.1	△0.1	△0.2
보건의료	79.5	108.2	108.4	115.0	115.0	6.3	0.0
교육	111.1	113.4	113.4	121.2	121.2	6.9	0.0
교양오락	7.9	102.8	102.8	103.2	103.3	0.5	0.1
교통통신	109.4	108.3	108.0	106.9	106.8	△1.4	△0.1
기타잡비	30.9	113.1	113.1	115.2	114.7	1.4	△0.4
농업용품	359.4	113.5	113.1	117.4	117.6	3.6	0.2
종자	19.6	97.6	97.6	97.7	96.8	△0.8	△0.9
비료	34.2	100.1	100.1	100.2	100.2	0.1	0.0
농약	39.8	102.7	102.7	100.3	100.3	△2.3	0.0
농기구	93.3	100.1	100.1	100.6	100.6	0.5	0.0
영농광열비	28	105.0	105.3	104.7	106.1	1.0	1.3
가축	45.8	186.9	184.0	214.8	215.9	15.5	0.5
사료	63.4	108.5	108.5	111.4	111.4	2.7	0.0
영농자재	35.3	103.0	103.0	103.0	103.0	0.0	0.0
농촌임료금	81.3	111.3	111.1	115.4	116.9	5.0	1.3
농업노동임금	36.8	111.9	111.2	118.7	120.1	7.3	1.2
기타임금	2.2	117.5	118.0	123.7	124.3	5.8	0.5
도정료	7.4	111.8	111.8	111.8	113.8	1.8	1.8
농기계임차료	34.9	110.2	110.3	112.2	113.7	3.2	1.3

자료: 농협중앙회 조사부

2. 농가교역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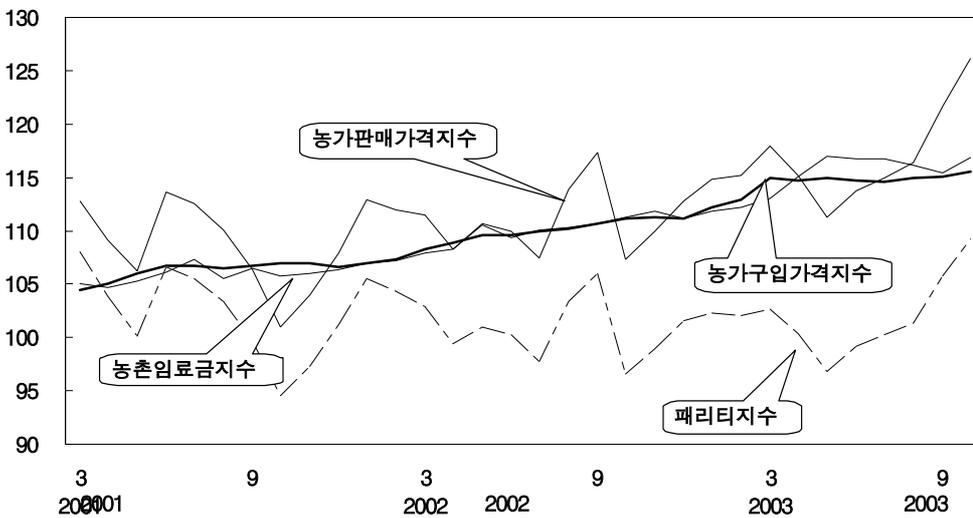
- 2003년 10월 중 청과물의 판매가격이 전년 동월대비 크게 상승 (37.0%)함으로써 농가판매가격지수가 1266.2를 기록하였으며, 식료품 구입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가축구입비, 농업노동임금 등이 크게 올라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15.6을 기록하였음. 이에 따라 10월 중 패리티 지수가 109.2로 나타나 농가의 교역조건이 전월대비 3.3%, 전년 동월 대비 13.0%로 크게 향상되었음.

농가교역조건 변화

	2002		2003		등락률(%)	
	10월	12월	9월	10월	전년동월	전월비
농가판매가격지수(A)	107.3	112.8	121.7	126.2	17.6	3.7
농가구입가격지수(B)	111.1	111.1	115.1	115.6	4.1	0.4
패리티지수(A/B*100)	96.6	101.5	105.7	109.2	13.0	3.3

자료: 농협중앙회 조사부

농촌물가지수의 변동추이



3. 농업인력

- 11월 중 농림업 취업자수는 195만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6.5% 감소하였음. 농가 대 비농가의 농림업 취업자를 보면, 농가의 농림업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6.0% 감소하였으며, 비농가의 농림업취업자 또한 9.7% 감소함.

농림어업 취업자수 동향

단위: 천명

		2002		2003			증감률(%)	
		연간	11월	3/4분기	10월	11월	전년동월	전월대비
경제활동 인구		28,877	23,037	23,505	23,218	23,218	0.8	0.0
취업자	전 산 업	22,169	22,389	22,295	22,452	22,425	0.2	△0.1
	농림어업	1,999	2,094	2,090	2,112	1,958	△6.5	△7.3
	농가	1,809	1,835	1,860	1,869	1,724	△6.0	△7.8
	비농가	190	259	229	243	234	△9.7	△3.7

자료: 통계청

- 11월 중 농림어업 취업자수와 농가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대비 감소하면서, 농외취업자수도 54만 2천명(전년 동월대비 11.6% 감소)으로 감소하였음.

농가의 취업자 변화

단위: 천명

	2002		2003			증감률(%)	
	연간	11월	3/4	10월	11월	전년동월	전월대비
농림어업취업자	1,809	1,835	1,860	1,869	1,724	△6.0	△7.8
농외취업자	589	612	523	510	542	△11.4	6.3

자료: 통계청

4. 농산물 수출입

4.1. 수출동향

- 금년 11월까지 농산물 및 축산물의 수출액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11.9%, 21.6%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16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1.5% 증가하였음.

농림축산물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02년	2002.1~11	2003.1~11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
농림축산물	1,653.1	1,500.4	1,672.3	11.5
농 산 물	1,374.5	1,241.4	1,388.8	11.9
축 산 물	98.5	86.2	104.8	21.6
임 산 물	180.1	172.8	178.7	3.4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산물 중 김치(17.4%), 인삼(21.1%), 화훼(23.9%), 채소(13.7%), 닭고기(13.8%) 등은 증가하였으나, 과실류(△17.1%)는 감소하였음.
- 또한 가공농산물은 가공식품의 수출호조로 전년 동기대비 12.7% 증가하였으며, 목재류는 11.0% 증가하였음.
 - 연초류(40.3%), 소스류(15.9%), 면류(13.7%) 증가

주요 품목의 수출액

단위: 백만달러

품 목	2001	2002	2003 (목표)	2002. 1~11	2003. 1~8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채 소	112.1	89.5	95	78.2	89.0	13.7
김 치	68.7	79.3	87	72.1	84.6	17.4
인 삼	74.8	55.0	70	43.4	52.5	21.1
화 휘	31.8	32.1	40	26.5	32.8	23.9
과 실	56.3	82.8	84	73.0	60.5	△17.1
돼지고기	46.1	22.2	20	18.1	27.0	49.7
닭고기	3.1	3.3	10	2.9	3.4	13.8
산림부산물	119.1	95.1	104	93.1	94.0	0.9
가공식품	967.9	1,108.8	1,174	1,013.4	1,143.8	12.9
목재류	91.0	71.8	76	90.0	74.4	11.0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4.2. 수입동향

- 금년 11월까지 농림축산물의 수입은 94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6.1% 증가하였음. 이 중 농산물과 축산물의 수입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8.2%, 7.8%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임산물은 0.8%로 소폭 감소하였음.

- 주요 품목별로 보면 쇠고기, 대두, 밀의 수입이 각각 25.6%, 22.7%, 14.8%로 크게 증가하였음. 그러나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수입은 지난 분기에 이어 계속 감소추세에 있으며, 전년 동기대비 각각 11.7%와 8.7%로 감소하였음.

농림수산물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02년	2002.1~11	2003.1~11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
농림축산물	9,807.3	8,874.2	9,418.4	6.1
농 산 물	5,701.5	5,115.6	5,536.0	8.2
축 산 물	1,948.5	1,785.4	1,925.2	7.8
임 산 물	2,157.3	1,973.2	1,957.2	△0.8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 품목의 수입액

단위 : 백만 달러

품 목	2001	2002	2002. 1~11	2003. 1~11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옥 수 수	932.8	987.5	875.8	917.9	4.8
밀	530.3	543.4	493.6	566.5	14.8
대 두	293.5	328.9	284.9	349.5	22.7
쇠 고 기	555.4	946.8	860.8	1,081.4	25.6
돼지고기	182.0	216.4	203.1	179.4	△11.7
닭 고 기	97.2	101.9	95.8	87.5	△8.7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금년 11월까지 열대과일 수입은 키위가 전년 동기대비 37.5%로 지난 분기에 이어 계속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포도, 파인애플, 바나나 등의 수입도 지난 분기의 증가율을 계속 이어갔음. 그러나 레몬의 경우 지난 분기의 수입 감소에 이어 또다시 수입이 감소(전년 동기대비 20.4% 감소)하였음.

열대과일 수입동향

단위 : 백만 달러

품 목	2001	2002	2002. 1~11	2003. 1~11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오렌지	121.7	147.6	140.0	160.1	14.4
키위	9.3	16.4	16.0	22.0	37.5
포도	25.4	30.3	28.2	37.2	31.9
파인애플	20.3	23.2	21.9	26.1	19.2
바나나	70.0	78.2	74.3	85.1	14.5
레몬	5.5	6.0	5.4	4.3	△20.4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4.3. 지역별 수출입동향

가. 중국 농산물 수출입동향

- 중국으로부터의 농림축산물 수입은 금년 8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28.0% 증가한 20억 달러(총 농축산물수입액의 21.4% 수준)에 이르렀음. 중국 농축산물의 수입은 지난 분기의 증가율(34.1%)에 비해 6.1%p 하락하였음.

중국산 농림축산물 수입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02년	2002.1~11	2003.1~11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농림축산물	1,799.8	1,575.2	2,016.3	28.0
농산물	1,265.9	1,092.6	1,481.1	35.6
축산물	43.0	38.7	34.8	△10.1
임산물	491.0	443.9	500.4	12.7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 대중국수출 품목의 수출액

단위: 백만달러

품 목	2001	2002	2002. 1~11	2003. 1~11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과 자 류	5.9	7.4	6.3	10.9	73.0
면 류	4.3	4.7	4.2	16.0	281.0
김 치	0.03	0.04	0.04	0.17	325.0
당 류	20.0	21.4	18.7	20.6	10.2
화 훼 류	3.0	4.7	3.0	3.9	30.0
합 판	20.3	12.0	11.0	15.0	36.4
커피	1.4	11.4	9.6	6.6	△31.3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중국에 대한 면류, 김치류 수출은 지난 분기의 폭발적인 수출 증가추세가 계속 이어져 금년 11월까지의 수출액은 각각 281.0%, 325.0%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그 외 품목도 꾸준한 수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커피류의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31.3% 감소하였음.

나. 대일본 농산물 수출입 동향

- 대일본 농림축산물 수출은 금년 11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10.7% 증가한 5억 9천만 달러로 나타남.
- 과실류 및 화훼류의 수출은 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채소류, 김치 등의 수출은 지난분기에 이어 계속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산림부산물과 목재류의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3.8%와 2.2%로 감소하였음.

대일 농림축산물 품목별 수출동향

단위: 백만 달러

품 목	2001	2002	2002.1~11	2003.1~11	비중 (%)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채 소	96.6	66.4	57.3	67.2	75.5	17.4
김 치	65	74.1	67.3	79.0	93.4	17.4
인 삼	27.4	28	23.3	23.8	45.3	2.0
화 휘	24.2	22.9	19.4	23.5	71.6	21.1
과 실	9.4	5.5	4.9	6.1	10.1	22.9
돼지고기	0.6	0.8	0.8	0.8	3.0	8.1
닭고기	1.6	2	1.9	2.2	64.7	18.4
산림부산물	102.5	77.3	76.5	65.9	70.1	△13.8
가공식품	278.6	287	261.3	302.3	26.4	15.7
목재류	32.5	26	24.5	24.0	32.3	△2.2
합 계	638.4	590.0	537.2	594.8	35.8	10.7

주: 비중은 전체 수출 중 일본 수출비중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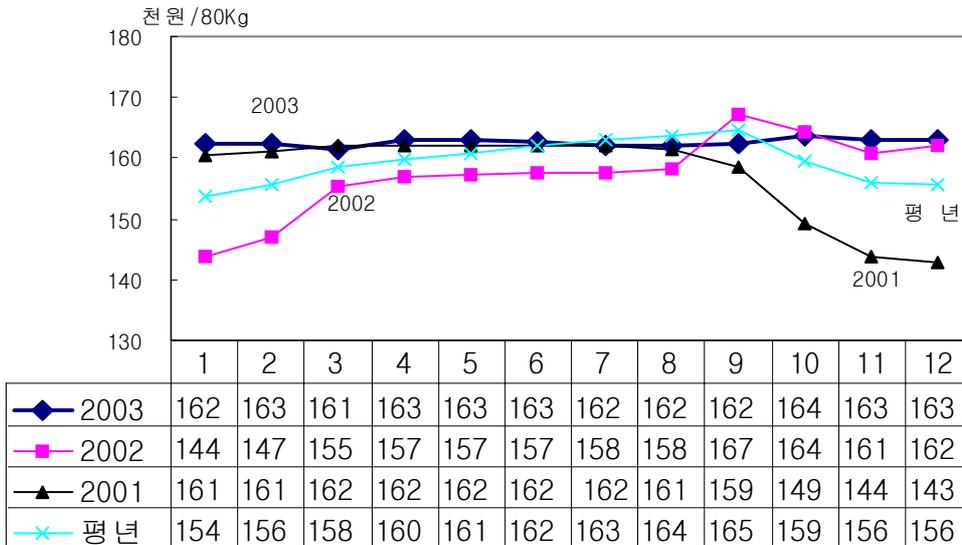
V. 주요 품목별 수급 및 가격 동향

1. 식량작물 및 사료곡물⁷⁾

1.1. 쌀

- 2002년도 쌀 재배면적은 105만 3천 ha로 전년도 재배면적(108만 3천 ha)에 비해 2.8% 감소하였음. 또한 2002년도 쌀 생산량은 492만 7천 톤으로 전년도 생산량(551만 5천톤)에 비해 10.7% 감소하였음.
- 2003년 4/4분기 중 쌀 도매가격은 지난 분기에 비해 약간 상승하였음. 12월 중 쌀 도매가격은(전라미, 상품기준) 80kg 당 16만 3천으로 전년 동월대비 0.6% 상승하였으며, 평년 대비 4.5% 상승하였음.

쌀 도매가격 동향 (전라미, 상품 기준)



주) 평년은 1999~02년의 평균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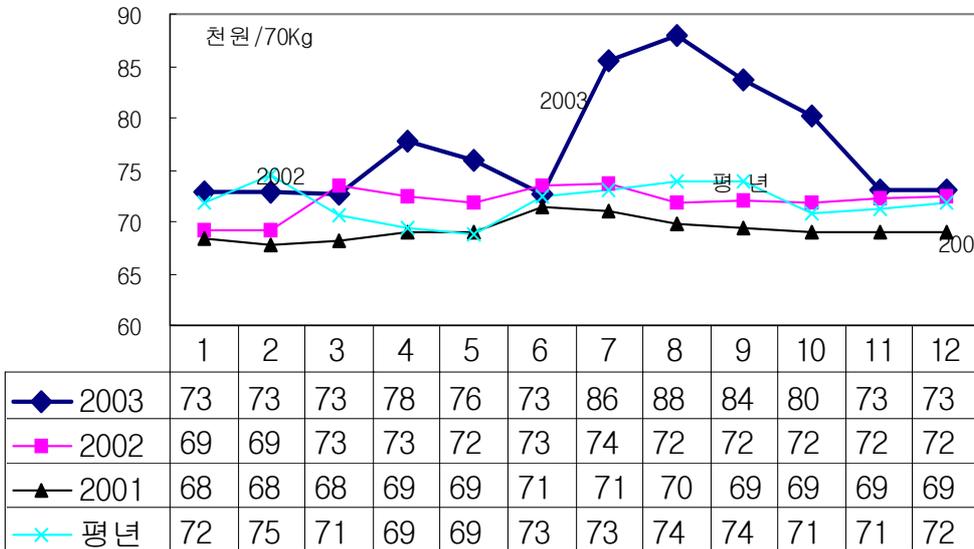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7)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김종선 전문연구원 (sun589@krei.re.kr)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1.2. 보 리

- 2002년도 보리(쌀보리) 재배면적은 3만 6천 ha로 전년도(4만 8천 ha)에 비해 24.3% 감소하였으며, 생산량은 9만 4천톤으로 전년도(15만 1천톤)에 비해 37.4% 감소하였음.
- 2003년도 4/4 분기내 평균 보리(쌀보리, 상품기준) 도매가격은 70kg 당 7만 5천으로 전분기 대비 13.8%로 크게 하락하였음. 12월 중 쌀보리 도매가격은 7만3천으로 전년 동월대비 1.4% 상승하였음.

보리 도매가격 동향 (쌀보리, 상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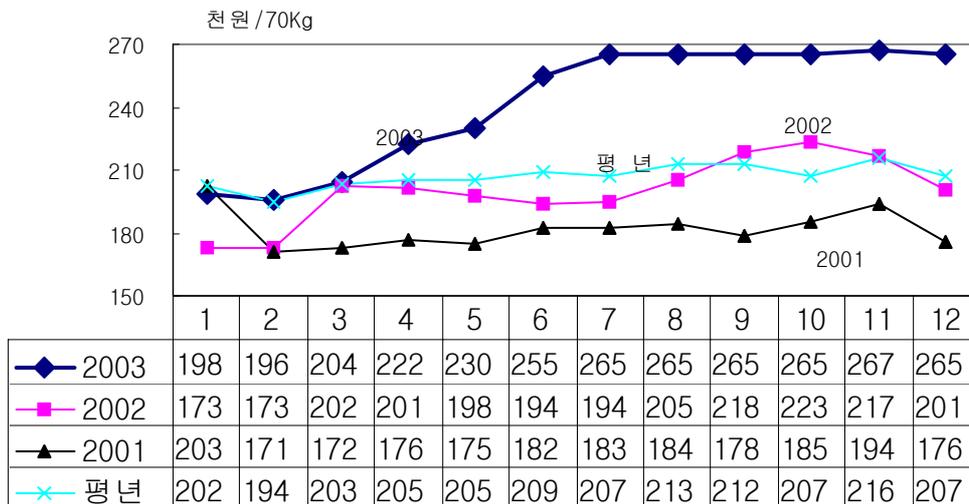
주: 평년은 1999~02년의 평균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1.3. 대 두

- 2002년도 콩 재배면적은 8만 1천 ha로 전년도(7만 8천 ha)에 비해 3.0% 증가하였으며, 생산량은 11만 5천톤으로 전년도(11만 8천톤)에 비해 2.3% 감소하였음.

- 2003년 4/4분기 중 대두 도매가격(국산 백태, 상품기준)은 70kg 당 26만 6천원으로 지난 분기에 비해 0.4% 상승하였으며, 12월 중 대두 도매가격은 26만 5천으로 전년 동월대비 31.8%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평년 대비 50.6% 상승한 수준임.

콩 도매가격 동향 (국산 백태, 상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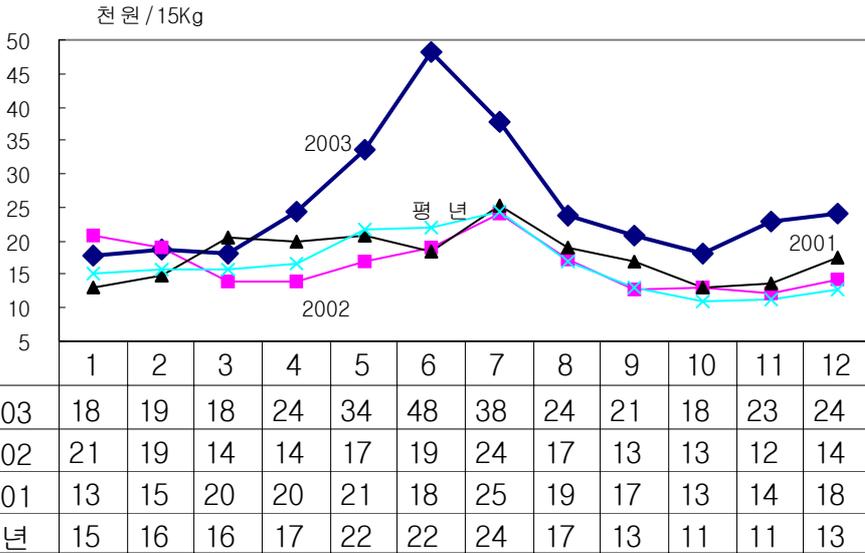
주: 평년은 1999~02년의 평균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1.4. 고구마

- 2002년도 고구마 재배면적은 1만 5천 ha로 전년도(1만 3천 ha)에 비해 15.8% 증가하였으며, 생산량은 9만 5천 톤으로 전년도(8만 5천 톤)에 비해 16.0% 증가하였음.
- 2003년 4/4분기 중 고구마 도매가격(상품기준)은 15kg당 2만 2천으로 전 분기대비 18.5% 감소하였음. 12월중 고구마 도매가격은 2만 4천으로 전년 동월대비 71.4% 증가하였으며, 평년대비 84.6% 상승하였음.

고구마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주: 평년은 1999~02년의 평균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1.5. 사료곡물

- 2003년도 1~11월 누계 사료곡물 수입량은 703만 4천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7.6%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도입단가가 전년 동기대비 9.9% 상승함으로써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1.5% 증가한 8억 7백만 달러임.
- 사료용 옥수수 수입량은 573만 4천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6.5% 감소하여, 전 분기 수입 감소 추세를 이어 갔음. 사료용 밀 수입량은 130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0% 감소하였음. 도입단가는 옥수수가 116달러/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0.5% 상승했고, 밀은 108달러/톤으로 6.8% 상승하였음.

사료용 곡물 수입 실적

구 분			2000	2001	2002	2002.1~11	2003.1~11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옥수수	수입량	천톤	6,683	6,291	6,938	6,134	5,734	△6.5
	단가	US\$/톤	105	107	106	105	116	10.5
	수입액	백만US\$	703	675	735	646	667	3.3
밀	수입량	천톤	809	1,141	1,609	1,478	1,300	△12.0
	단가	US\$/톤	109	110	100	101	108	6.8
	수입액	백만US\$	88	126	161	149	140	△6.0
계	수입량	천톤	7,492	7,432	8,547	7,612	7,034	△7.6
	단가	US\$/톤	106	108	105	104	115	9.9
	수입액	백만US\$	791	801	897	795	807	1.5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2. 채소류⁸⁾

2.1 배추

- 배추의 4/4분기 도매가격은 5톤트럭당 289만원(상품 기준)으로 3/4분기와 비슷하고, 평년 동기보다는 35% 높은 수준이었음.
 - 그러나 본격적인 김장철인 11월 하순 이후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12월 평균 도매가격은 가격이 크게 높았던 작년보다 60%, 평년보다는 25% 낮았음.
- 11월 하순 이후 가격이 크게 하락한 것은 11월 기상이 좋아 가을배추 작황이 크게 호전되어 생산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월동배추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15% 내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월동배추 예상단수는 11월 기상이 좋아 작황이 나빴던 작년보다 10% 이상 많을 것으로 조사됨.
- 월동배추 재배면적과 예상단수 증가분을 고려할 경우, 금년 월동배추 생산량은 작년보다 25% 이상 많을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내년 1~3월의 평균도매가격은 상품 5톤트럭당 200만원 이하로 가격이 크게 높았던 금년 초보다 50% 이상 낮고, 평년과는 비슷하거나 다소 낮을 것으로 전망됨.
- 내년 봄배추 정식의향면적은 금년보다 2%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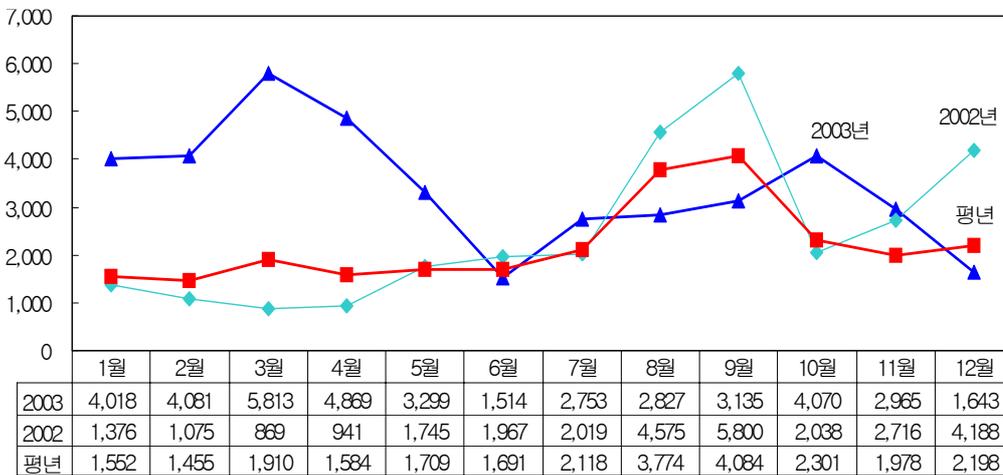
8)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홍승지 전문연구원(hseungj@krei.re.kr), 서대석 전문연구원(dssuh@krei.re.kr), 한석호 전문연구원(shohan@krei.re.kr), 김성우(swookim@krei.re.kr), 송성환(song9870@krei.re.kr), 전상수(ssj@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으며, 관련문의 사항은 전자메일로 연락바람.

는 금년 시설봄배추 출하시기에 가격이 높아 시설재배농가를 중심으로 재배면적을 늘리려 하기 때문임.

- 지역별로는 영남이 금년보다 8%, 충청 4%, 호남은 2% 증가할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기·강원은 1%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 12월과 1월에 정식할 면적은 5% 내외, 2월과 3월에는 3% 내외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나, 4월 이후 정식할 노지재배면적은 금년보다 6%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배추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천원/5톤트럭



주: 평년가격은 1998년 1월~2002년 12월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2.2 무

- 무의 4/4분기 도매가격은 5톤트럭당 369만원(상품 기준)으로 3/4분기보다 75%, 평년 동기보다 45% 높은 수준이었음.
- 금년 김장철에 가격이 높았던 것은 파종기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적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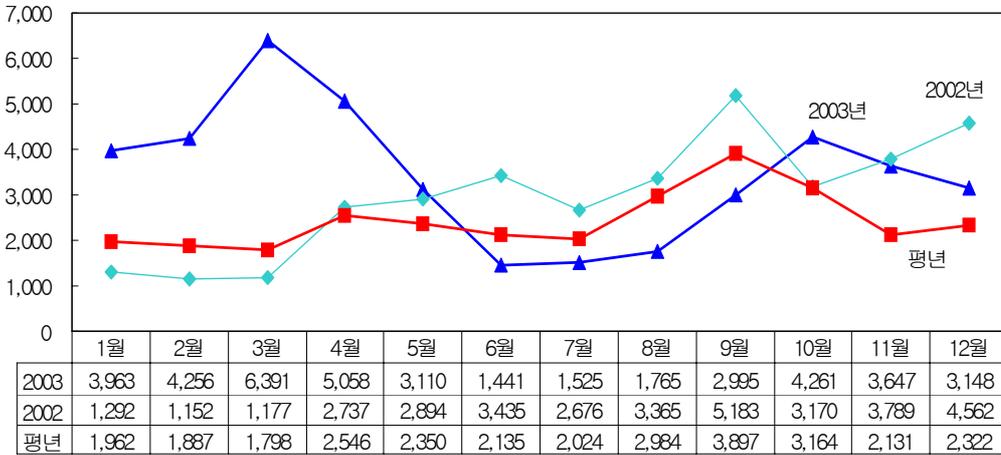
파종을 못해 재배면적이 감소하였고, 작황도 나빠 생산량이 적었기 때문임.

- 고창, 나주, 영암, 광주 등지의 가을무 저장량은 저장계획면적이 증가하여 작년보다 25% 이상 많을 것으로 추정됨.
- 제주도 월동무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제주도 행정통계). 따라서 작황 여부에 관계없이 금년 월동무 생산량은 작년보다 3배 이상 많을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내년 1월 이후 출하될 저장·월동무의 전체 공급량은 금년 동기보다 2배 이상 많을 것으로 전망됨.
- 내년 1~3월의 저장·월동무의 총 공급량이 금년보다 2배 이상 많을 것으로 전망되어, 내년 1~3월의 도매가격은 평년가격(상품 3,700/15kg pp대)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내년산 봄무 파종의향면적은 금년 재배면적보다 3%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금년 시설봄무 출하시기에 가격이 크게 높아 시설재배농가를 중심으로 재배면적을 늘리려 하기 때문임.
- 지역별로는 영남이 금년보다 7%, 충청 5%, 경기·강원은 3%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나, 호남은 금년 동기보다 2%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 월별 파종의향면적은 12월~내년 2월에 파종할 시설 면적은 금년 동기보다 10% 내외 증가할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내년 3월 이후 파종할 면적은 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 시설봄무 파종의향면적이 금년 동기보다 10% 내외 증가할 것으로 조

사되어, 시설봄무가 본격 출하되는 내년 3월 하순 이후에는 저장·월동무와 봄무 출하가 겹쳐 가격은 계속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무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천원/5톤트럭



주: 평년가격은 1998년 1월~2002년 12월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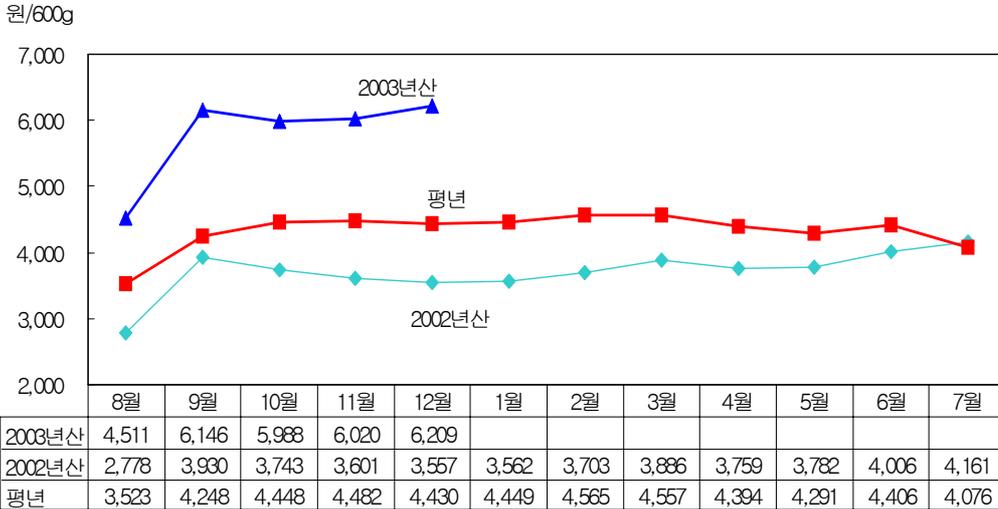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2.3 고 추

- 건고추의 4/4분기 도매가격은 화건 상품 600g당 6,010원으로 3/4분기보다 22%, 작년 동기보다 65%, 평년 동기보다 35% 높았음. 이는 국내 가격 상승으로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금년산 고추 생산량이 작년보다 크게 감소하여 전체 공급량이 적었기 때문임.
- 금년산 고추 재배면적은 작년산보다 20%, 평년보다 21% 감소한 5만 7,502ha이고, 10a당 수량은 작년산보다 14%, 평년보다는 12% 적은 230kg이어서 생산량은 작년산보다 32%, 평년보다는 30% 적은 13만 2,020톤으로 확정 발표되었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11월 15일 현재 고추 생산농가들은 생산량의 84%를 판매하였고

16%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판매량은 작년 동기보다 31% 적은 11만 920톤, 농가보유량은 34% 적은 2만 1,095톤으로 추정됨.

고추 도매가격 동향(화건, 상품 기준)



주: 평년가격은 1998년 8월~2003년 7월 평균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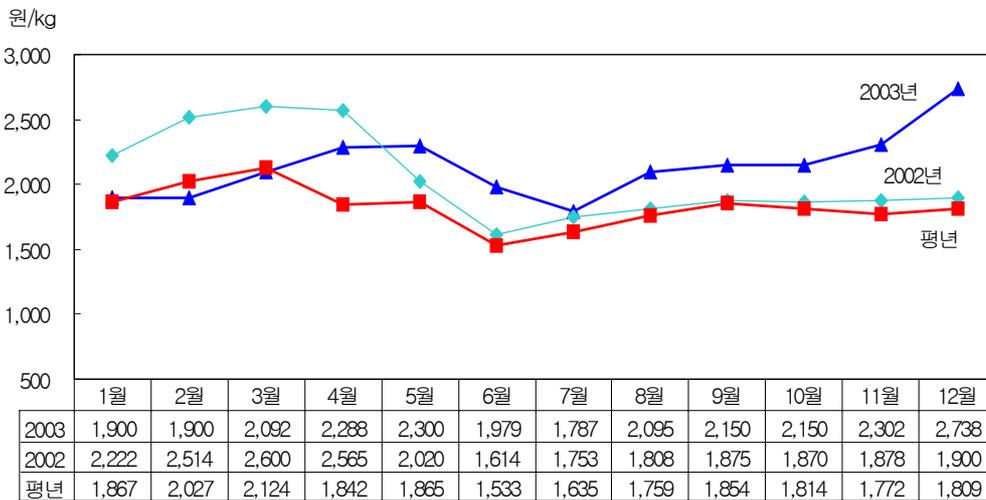
- 11월말 현재 고추 수입량은 고추관련품목을 건고추로 환산한 물량을 포함하여 2만 2,340톤으로 작년 동기(9,930톤)보다 2배 이상 많았음. 이는 금년산 고추의 생산량 감소로 국내 가격이 작년 동기보다 61% 높았기 때문임.
- 11월말 현재 중국 산둥성의 익도산 고추 재고량은 4천톤 내외로 작년 동기보다 1천여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산지 가격은 12,000元으로 작년 동기(5,500元)보다 2배이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중국의 금년산 고추 생산량이 작년산보다 50% 이상 감소하였고, 최대 수입국인 한국의 고추 생산량이 크게 적어 수입수요가 많았기 때문임.

- 11월말 현재 민간수입원가는 600g당 5,500원, 도매원가는 5,800원 내외로 작년 동기보다 16%, 지난달보다 9% 높은 것으로 추정됨.
- 이처럼 중국의 금년산 생산량 감소로 산지 가격이 작년보다 2배 이상 높아 고추의 수입 증가 추세는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추세는 12월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금년산 생산량이 작년산보다 32% 적고 수입도 지난달과 비슷할 것으로 보여 12월 이후 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크게 높겠지만 지난달과는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2.4. 마늘

- 마늘의 4/4분기 도매가격은 kg당 2,400원(난지형 상품 기준)으로 3/4분기보다 19%, 평년 동기보다 33%, 작년 동기보다는 27% 높은 수준이었음.

마늘 도매가격 동향 (난지형, 상품 기준)



주: 평년가격은 1998년 1월~2002년 12월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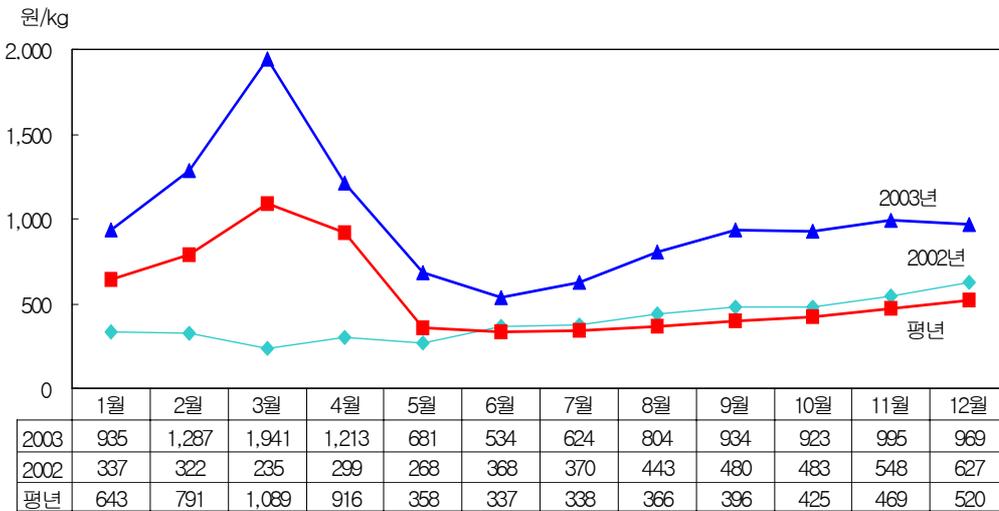
- 금년산 마늘 생산량은 작년산보다 4% 적은 37만 8,846톤이며, 한지형은 작년산보다 9% 적은 4만 7,866톤, 난지형은 3% 적은 33만 980톤이었음.
- 금년산 민간저온저장량 중 11월 20일까지 출고량은 작년보다 4% 많은 2만 3,500톤이며, 재고량은 12% 적은 5만 5,200톤 내외인 것으로 조사됨. 출고량이 작년보다 많았던 것은 입고단가에 비해 현 가격수준이 높고, 수확 후 건조시기에 잦은 강우로 인해 작년보다 부패율이 높아 저장업체들이 출하를 앞당겼기 때문임.
- 민간저온저장량 5만 5,200톤에 정부비축물량 5,800톤을 포함할 경우 금년산 마늘의 총재고량은 6만 1,000톤으로 추정되며, 부패율을 적용할 경우 작년 동기보다 22% 적은 것으로 추정됨.
- 12월 이후 내년 4월까지의 수입물량은 2003년 MMA 물량 1만 3,824톤을 포함하여 신선냉장마늘과 냉동마늘 중심으로 전년 동기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민간저온저장량이 작년보다 적고 부패율이 높아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의 마늘가격은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내년산 마늘 재배의향면적은 금년산보다 약 6% 감소한 3만 1,100ha가 될 것으로 조사됨. 품종별로는 한지형이 2%, 난지형이 7%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재배의향면적이 감소한 것은 중국산 마늘 수입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우려와 노동력부족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체작목으로는 양파, 배추 등으로 나타남.
- 앞으로 작황 등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 있으나, 재배의향면적과 평년

단수를 적용할 경우, 내년산 마늘 생산량은 35만 5,800톤 내외로 금년산 생산량 37만 8,846톤보다 6% 적을 것으로 전망됨.

2.5. 양파

- 양파의 4/4분기 도매가격은 kg당 962원(상품 기준)으로 3/4분기보다 22%, 작년 동기보다는 74%, 평년 동기보다는 104% 높은 수준이었음.

양파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주: 평년가격은 1998년 1월~2002년 12월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금년산 양파 생산량은 작년산보다 20% 적은 74만 5,203톤이었고, 이 중 민간저온저장량은 작년산보다 9% 적은 38만 7,000톤으로 조사됨. 민간저온저장량 중 11월 20일까지의 출고량은 작년보다 7% 적은 16만 4,500톤이며, 재고량은 11% 적은 22만 2,500톤 내외인 것으로 추정됨.
- 저장업체 조사결과, 금년산 양파의 평균 부패율은 작년산 부패율 15%보다 낮은 10%로 조사됨. 따라서 부패율을 감안한 금년산 총재고량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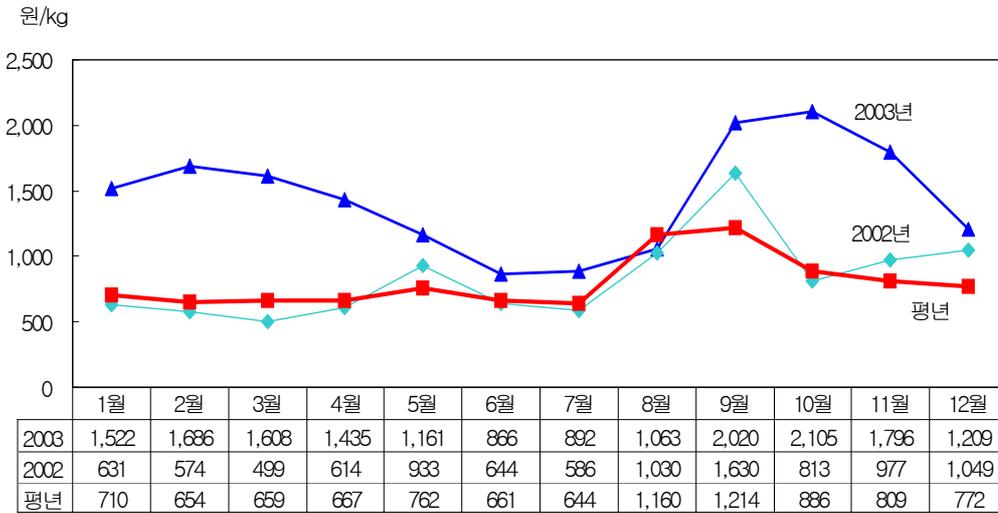
작년 동기보다 5% 적은 것으로 추정됨.

-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의 양파수입물량은 신선·냉장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보다 다소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민간저온저장량이 작년보다 적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의 양파가격은 강보합세를 유지할 전망.
- 내년산 양파 재배의향면적은 금년산보다 7%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내년산 양파 재배면적은 1만 3,250ha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품종별로는 조생종이 2%, 중만생종이 9% 늘어날 것으로 나타남.
- 앞으로 작황 등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 있으나, 재배의향면적과 평년 단수를 적용할 경우, 내년산 양파 생산량은 76만 9,600톤 내외로 금년산 생산량 74만 5,203톤보다 3% 많을 것으로 전망됨.

2.6 대 파

- 대파의 4/4분기 도매가격은 상품 kg당 1,700원으로 지난 3/4분기보다 29%, 작년 동기보다 80%, 평년 동기보다 2배 높은 수준임. 이는 태풍으로 가을대파의 출하면적이 크게 감소하여 전체 출하량이 작년 동기보다 크게 적었기 때문임.
- 내년 1~4월의 남부지방 겨울대파 출하예상면적은 금년 동기보다 6%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어 지난달 조사치(2% 증가)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부산·경남 지역의 대파 생육이 저조해 1월 이후에 출하하려는 농가가 늘었기 때문임.

대파 도매가격 동향(상품기준)



주: 평년가격은 1998년 1월~2002년 12월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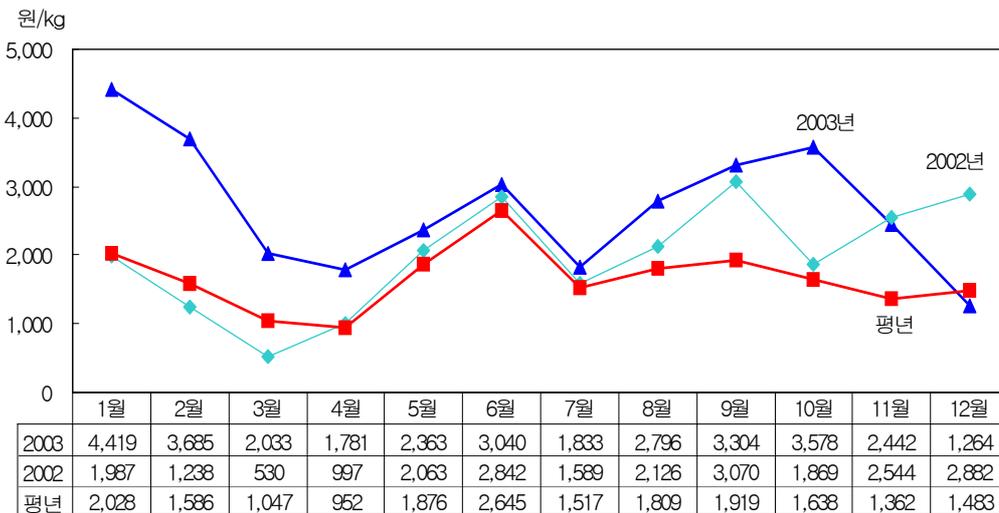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11월의 남부지방 겨울대파 포전거래가격은 평단 15,000원(상품 기준) 내외로 작년 동기보다 2배 높은 수준이었음. 그러나 태풍피해를 입은 면적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생육부진으로 인한 출하지연으로 내년 1월 이후의 출하예상면적은 작년 동기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겨울철 기상여건이 평년 수준일 경우 겨울대파 전체 수확량은 조기한 파로 작황이 크게 나빴던 전년 동기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내년 1~4월까지의 도매가격은 금년 동기 가격(1,560원)보다 크게 낮을 것으로 전망됨.
- 내년 3월 이후에 출하될 중부지방 월동대파 출하예상면적은 작년보다 5%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2.7 쪽 파

- 쪽파의 4/4분기 도매가격은 상품 kg당 2,430원으로 3/4분기보다 8% 낮고 작년 동기와 평년 동기보다는 63% 높은 수준이었음.
- 4/4분기 가격이 3/4분기 이후 작년수준으로 회복된 것은 파종기의 기상여건 악화로 파종이 지연되었고 태풍 이후의 기상여건 호조로 생육 상황이 좋아 출하량이 늘었기 때문임.
- 12월의 쪽파 출하예상면적은 작년 동기보다 9% 많고 예상단수는 4%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어 12월 도매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낮으나 평년 동기보다는 높을 전망이다.

쪽파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주: 평년가격은 1998년 1월~2002년 12월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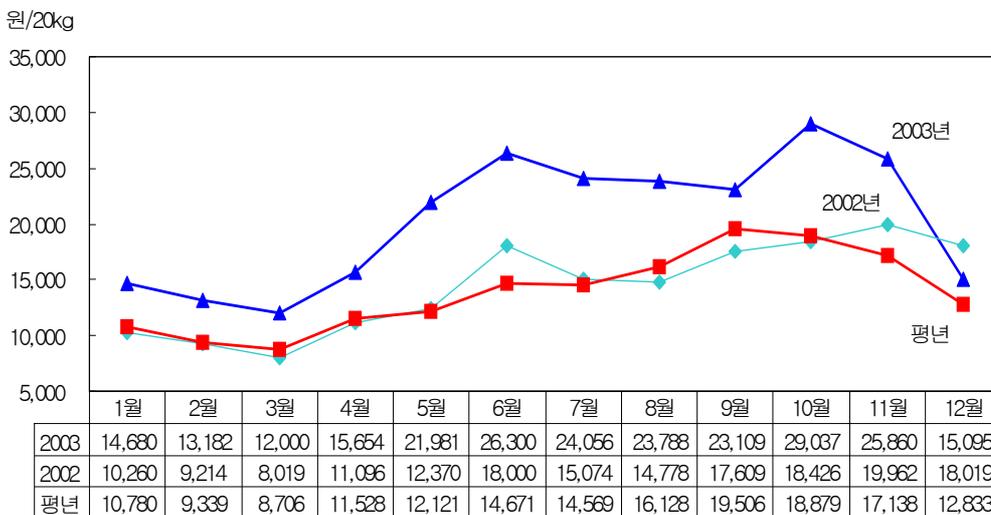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내년 1~4월의 쪽파 출하예상면적은 금년 동기보다 2% 많을 것으로 조사됨. 이는 김장철 출하를 계획했던 농가들의 파종이 기상여건 악화로 일부 지연되었기 때문임. 지역별로는 충청이 5%, 호남과 경기·강원이 7% 증가하는 반면, 영남과 제주는 4~5%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2.8 당 근

- 4/4분기 당근 평균도매가격은 상품 20kg당 23,33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4%, 평년 동기보다는 43% 높은 수준임.
- 4/4분기 가격이 작년이나 평년 동기보다 높았던 것은 기상여건 악화로 인해 주산지인 충청과 영남지역의 작황이 부진하여 출하량이 적었기 때문임.

당근 도매가격 동향(상품 기준)



주: 평년가격은 1998년 1월~2002년 12월 평균임.

자료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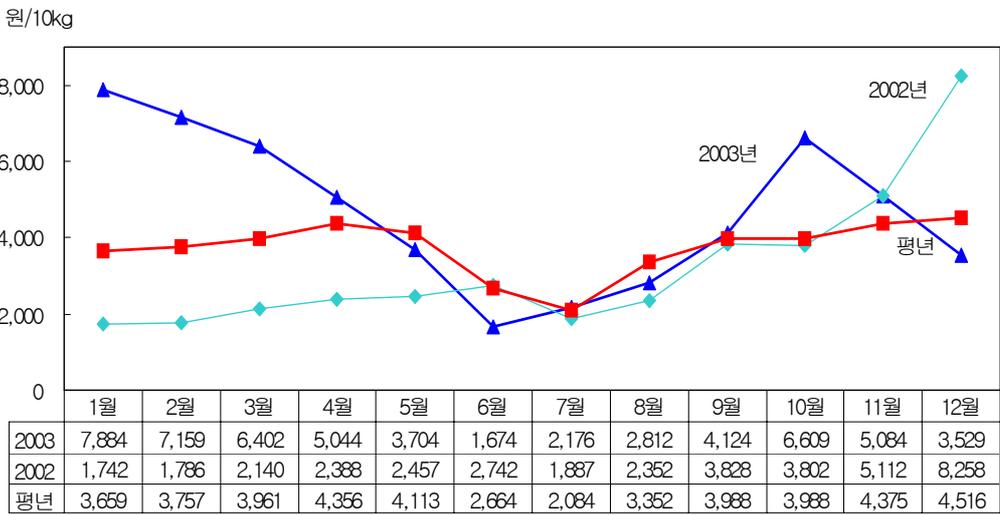
- 내년 1~2월의 당근 출하량은 작년 동기보다 6% 적을 것으로 전망됨. 이는 겨울당근 주산지인 제주의 출하예상면적은 4% 많으나, 작황 악화로 단수가 10%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따라서 내년 1~2월 당근 가격은 금년 동기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됨.
-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파종될 하우스·봄당근의 재배면적은 전년 동기보다 4%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이는 전년 겨울대파 가격이 당근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대파로 작목을 전환하였기 때문임.

2.9 양배추

- 4/4분기 양배추 평균도매가격은 상품 10kg당 5,07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1% 낮았으나, 평년 동기보다는 18% 낮은 수준임.
- 4/4분기 가격이 작년 동기보다 낮았던 것은 호남과 제주지역의 겨울양배추의 재배면적이 작년보다 증가한데다, 작황도 호전되어 출하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양배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기준)



주: 평년가격은 1998년 1월~2002년 12월 평균임.

자료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내년 1~2월의 양배추 출하량은 작년 동기보다 15% 많을 것으로 전망됨. 이는 호남과 제주지역의 겨울양배추 재배면적이 증가한데다, 작황도 좋아 출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따라서 내년 1~2월 양배추 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 호남과 제주지역에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정식될 하우스·봄양배추

의 면적은 작년 동기보다 5%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체작목은 배추, 무 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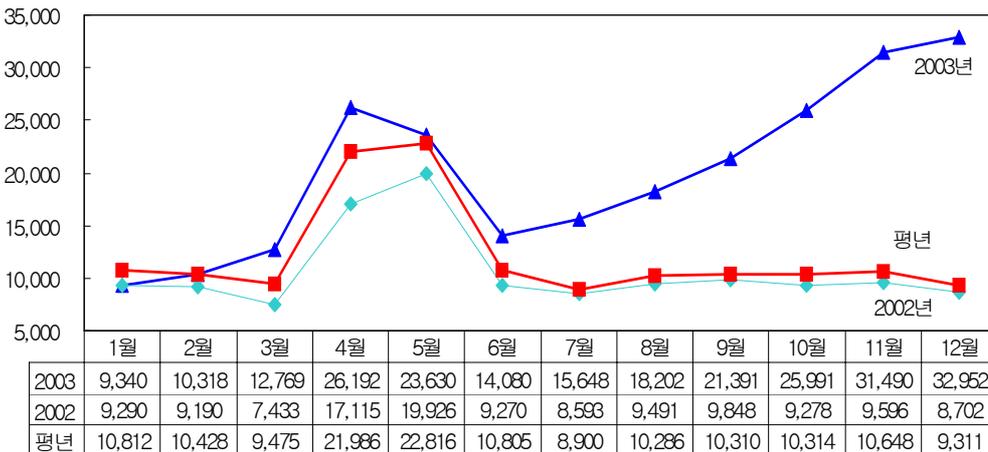
2.10 감 자

- 감자 수미의 4/4분기 도매가격은 상품 20kg당 30,140원으로 3/4분기보다 64%, 평년 동기보다 199%, 작년 동기보다는 228% 높았음. 대지의 11~12월의 도매가격은 상품 20kg당 38,780원으로 평년 동기보다 90%, 작년 동기보다는 105% 높았음.
- 4/4분기 가격이 작년 및 평년 동기보다 크게 높았던 것은 강원도 고랭지감자의 저장량이 작년 및 평년보다 크게 적었고, 11월 중순부터 출하가 시작된 가을감자의 재배면적 감소와 태풍피해로 인한 작황부진으로 출하량이 감소했기 때문임.
- 12월 이후에 출하될 고랭지감자의 저장량은 작년 동기보다 51% 적은 것으로 조사됨. 이는 재배면적 감소와 작황부진으로 생산량이 적었고, 가격이 높아 농가들이 저장량을 줄이고 출하를 앞당겼기 때문임.
- 고랭지감자 저장농가들의 월별 출하예상량은 작년 동기의 출하량과 비교하여 보면 12월에는 작년보다 49%, 내년 1월 이후에는 금년보다 69% 적을 것으로 나타남.
- 시설감자를 포함한 금년 가을감자(대지) 재배면적은 작년의 5,084ha보다 22% 감소한 3,943ha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업관측정보센터 11월 지역모니터 조사결과, 가을감자의 예상단수는 태풍피해와 가뭄으로 작년보다 14% 내외 적은 1,500~1,600kg이 될 것으로 조사되어 10월 조사치(작년보다 12% 감소)보다 다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재배면적과 예상단수를 고려할 경우 가을감자 생산량은 작년의 9만 3천여톤보다 34% 적은 6만 1,000톤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됨.
- 가을감자의 월별 출하예상량은 전년 동기보다 12월에는 33%, 내년 1월 36%, 2월 이후에는 6% 적을 것으로 조사됨. 이는 태풍 ‘매미’로 과중면적 일부가 유실되었고, 피해를 입은 면적의 작황도 호전되지 않아 출하를 포기하려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임.
- 11월 20일 표본농가 조사결과, 제주도의 내년산 겨울감자 과중의향면적은 금년산보다 13%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어 10월 조사치(20% 감소)보다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출하기인 4~5월의 가격전망을 밝게 보는 농가들이 과중면적을 늘리려 하기 때문임.

감자(수미) 도매가격 동향 (상품)

원/20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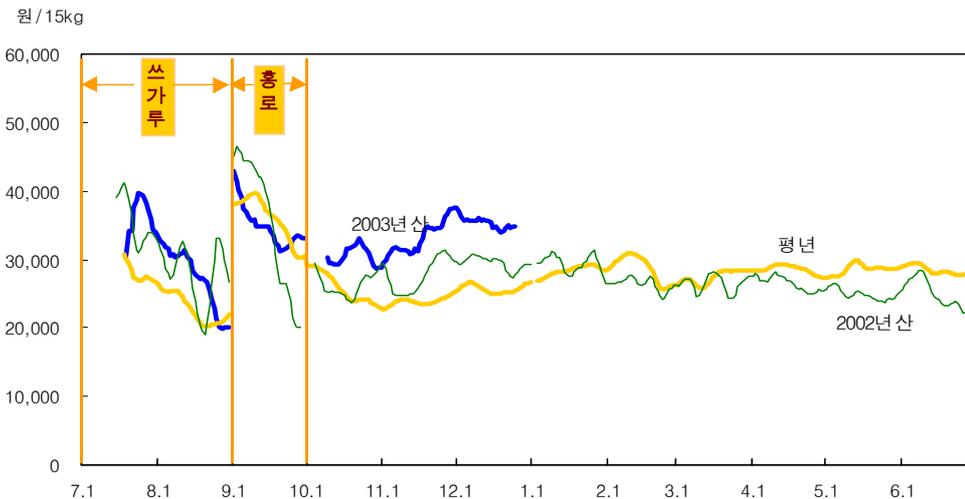
주: 평년가격은 1998년 1월~2002년 12월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3. 과일⁹⁾

3.1. 사과

- 4/4분기 사과 가격은 후지 상품 15kg당 10월 3만원, 11월 3만 3,200원, 12월 3만 6,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5~20% 높은 수준을 유지함. 가격이 높은 것은 성목면적 감소와 태풍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었고 품질은 향상되었기 때문임.
- 내년 사과 재배면적은 올해보다 1%(240ha) 정도 줄어든 2만 6,160ha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 지역별로는 경북과 경남이 올해보다 1% 정도씩 감소하고, 충청지역은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사과 도매가격 (상품)



주: 7~8월은 쓰가루, 9월은 홍로, 10월부터는 후지 품종 기준임. 평년은 1998. 7~2003. 6월의 일별가격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평균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9)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김경필 부연구위원(kkphil@krei.re.kr), 김윤형(yonhk2@krei.re.kr), 박재홍(jhpark@krei.re.kr), 이은숙(lee523@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이메일로 연락바람.

- 품종별로는 후지가 1% 정도 줄고, 조생종인 쓰가루는 6% 정도 줄어드는 반면, 중생종인 홍로는 5% 정도 늘어나며, 양광과 착색 후지 계통의 기타 품종은 3% 정도 늘어날 것으로 나타나, 품종간 면적변화는 다소 클 것으로 전망됨.

사과 지역별 재배의향면적

단위: ha

	충청	경북	경남	전체
2002년	5,426	16,732	2,382	26,163
2003년	5,443	16,848	2,406	26,398
2004년	5,428	16,651	2,380	26,157
2004/2003 증감률(%)	-0.3	-1.2	-1.1	-0.9

주: '04년 면적은 농업관측정보센터에 의한 표본농가 및 모니터 추정치. 시 지역은 인근 도에 포함됨.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2, '03년 면적).

사과 품종별 재배의향면적

단위: ha

	후지	쓰가루	홍로	홍월	기타	전체
2002년	18,201	2,604	1,758	848	2,752	26,163
2003년	18,263	2,434	1,900	861	2,938	26,398
2004년	18,014	2,298	1,989	840	3,017	26,157
2004/2003 증감률(%)	-1.4	-5.6	4.7	-2.5	2.7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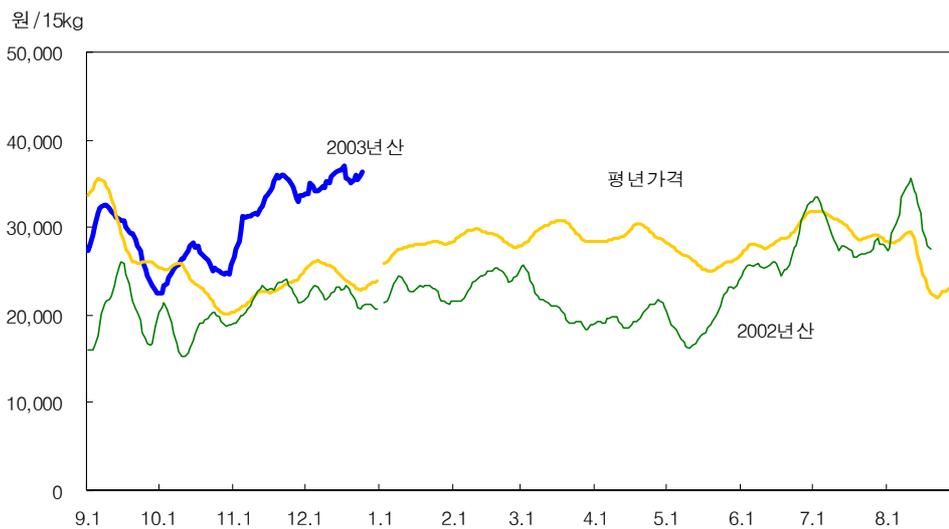
주: 각년도 품종별 면적과 '04년 면적은 농업관측정보센터에 의한 표본농가 및 모니터 추정치임.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2, '03년 전체면적).

3.2. 배

- 4/4분기 배 가격은 상품 15kg당 10월 2만 5,600원, 11월 3만 2,800원, 12월 3만 5,700원으로 지난해보다 40~60% 높은 수준을 유지함. 가격이 높은 것은 흑성병과 태풍의 영향으로 특·상품 공급량이 크게 줄었고 품질은 향상되었기 때문임.
- 최근 수년간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 내년 배 재배면적은 올해보다 4%(930ha) 정도 감소한 2만 3,130ha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지역별로는 경기, 호남이 3% 정도씩 줄어들고, 충청과 영남은 4~5% 정도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배 도매가격 (신고, 상품)



주: 평년은 1998.9~2003. 8월 가격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평균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품종별로는 신고와 장십량은 각각 5%, 7% 정도씩 줄어드는 반면, 황금배와 원황은 2~5% 정도씩 늘어날 것으로 나타남. 신고배의 생산량은 과잉이지만 조생종 원황의 공급량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원황 가격은 신고 가격의 1.1~1.5배 수준을 보이고 있어 원황의 신규 식재 면적은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배 지역별 재배의향면적

단위: ha

	경기	충청	호남	영남	전체
2002년	4,522	6,952	5,920	7,339	25,387
2003년	4,313	6,673	5,614	6,868	24,061
2004년	4,189	6,408	5,425	6,518	23,133
2004/2003 증감률(%)	-2.9	-4.0	-3.4	-5.1	-3.9

주: '04년 면적은 농업관측정보센터에 의한 표본농가 및 모니터 추정치임. 시 지역은 인근 도에 포함됨.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2, '03년 면적).

배 품종별 재배의향면적

단위: ha

	신고	장십량	황금배	원황	기타	전체
2002년	19,532	1,033	639	1,224	2,959	25,387
2003년	18,388	934	633	1,237	2,869	24,061
2004년	17,449	871	646	1,304	2,864	23,133
2004/2003 증감률(%)	-5.1	-6.8	2.0	5.4	-0.2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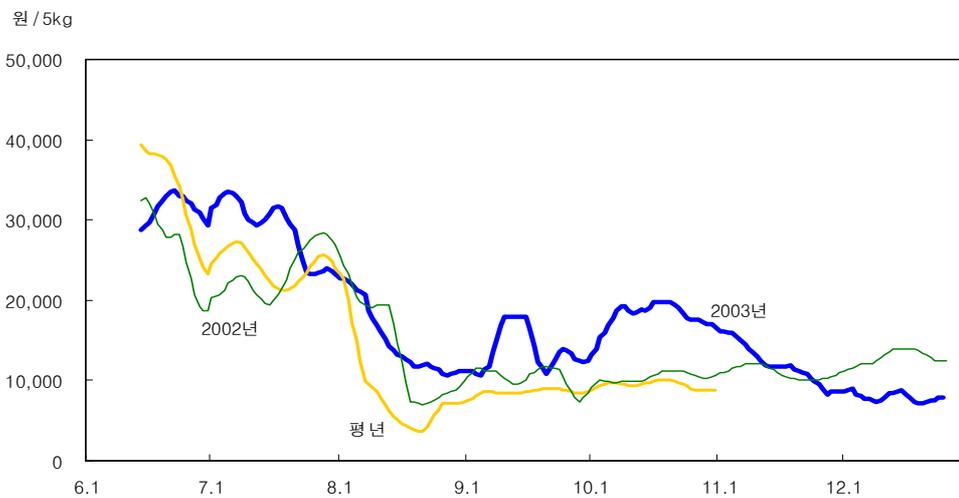
주: 각 년도 품종별 면적과 '04년 면적은 농업관측정보센터에 의한 표본농가 및 모니터 추정치임.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2, '03년 전체면적).

3.3. 포도

- 국내산 포도 상품가격은 10월과 11월에 지난해보다 20~70% 높았지만, 12월에는 수입포도 물량이 지난해보다 증가하면서 20~30% 낮았음.
- 성목면적은 지난해보다 3%(647ha), 단수가 4% 감소하여, 포도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7% 감소한 39만톤 수준임.
- 내년 포도 재배면적은 올해보다 1%(280ha) 감소한 24,530ha일 것으로 전망됨. 노지면적은 올해보다 2%(380ha) 감소하는 반면, 하우스는 6%(100ha)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내년 지역별 재배면적은 영남지역이 2%, 충청지역이 2%, 경기·강원 지역이 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반면 호남지역은 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포도 도매가격(상품)



주: 일별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 평균치임. 6~10월은 캠벨얼리 11~12월은 MBA기준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품종별 면적은 캠벨얼리가 올해보다 1% 감소하고 거봉은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됨. 새단의 면적은 내년에도 22% 감소하겠고 새단면적 감소분의 일부가 MBA로 갱신되어 MBA 면적은 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포도 재배방법별 의향면적

		노지	하우스			전체
			가온	무가온	합계	
면적 (ha)	'03	23,160	394	1,247	1,641	24,801
	'04	22,781	428	1,316	1,745	24,530
증감률(%)		-1.6	8.6	5.6	6.3	-1.1

주: '03년 가온 및 무가온 하우스면적과 '04년 면적은 농업관측정보센터에 의한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추정치임.

자료: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3년 면적).

포도 지역별 재배의향면적

		경기·강원	영남	호남	충청	전체
면적 (ha)	'03	3,853	11,990	2,132	6,826	24,801
	'04	3,800	11,750	2,310	6,670	24,530
증감률(%)		-1.3	-2.0	8.2	-2.3	-1.1

주: '04년 면적은 농업관측정보센터에 의한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추정치임. 시지역은 인근도에 포함됨.

자료: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3년 면적).

포도 품종별 재배의향면적

		캠벨얼리	거봉	MBA	새단	텔라웨어
면적 (ha)	'03	18,396	3,239	1,398	1,013	100
	'04	18,300	3,245	1,448	790	101
증감률(%)		-0.5	0.2	3.5	-22.0	0.9

주: '03년과 '04년 품종별 면적 및 '04년 면적은 농업관측정보센터에 의한 조사·추정치임.

자료: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3년 전체면적).

3.4. 복숭아

- 복숭아 성목면적은 지난해보다 8%(750ha) 증가하였으나 계속된 비에 의한 작황부진으로 단수가 1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복숭아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4% 적은 18만톤 수준임.
- 내년 복숭아 재배면적은 올해보다 2%(340ha)증가한 16,220ha일 것으로 전망됨. 유모계는 올해보다 3% 늘어나고 천도계는 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복숭아 재배면적은 남부지역에 비해 중부지역의 증가세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됨. 음성, 충주, 이천 등 중부지역의 중·만생종 주산 단지는 내년에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영남지역은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호남지역은 올해보다 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조생종 복숭아 면적은 올해보다 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유모계는 창방, 사자, 백미 등의 품종은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월봉 및 기타 품종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천도계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됨.

복숭아 지역별 재배의향 면적

		경기·강원	영남	호남	충청	전체
면적 (ha)	'03	2,132	8,198	1,406	4,127	15,880
	'04	2,220	8,250	1,430	4,310	16,220
증감률(%)		4.1	0.6	1.8	4.4	2.1

주: '04년 면적은 농업관측정보센터에 의한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 추정치임. 시지역은 인근도에 포함됨.

자료: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3년 면적).

- 중생종은 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유모계는 미백, 대구보 등의 품종은 감소하고 백봉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천도계는 천홍 면적은 감소하겠지만 타 중생종 품종으로 갱신될 것으로 보여 전체적으로는 2%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만생종은 유모계 천중도 및 장호원 황도 중심으로 올해보다 5% 증가할 전망이다. 레드골드, 환타지아 등의 천도계는 최근의 증가세가 꺾여 내년에는 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복숭아 품종별 재배의향 면적

		유모	천도	전체
면적 (ha)	'03	13,522	2,358	15,880
	'04	13,900	2,320	16,220
증감률(%)		2.8	-1.7	2.1

주: '03년과 '04년 품종별면적 및 '04년 면적은 농업관측정보센터에 의한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추정치임.

자료: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3년 전체면적).

복숭아 숙기별 재배의향면적

단위: ha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03	3,301	6,037	6,542
'04	3,360	5,980	6,890
증감률(%)	1.7	-1.0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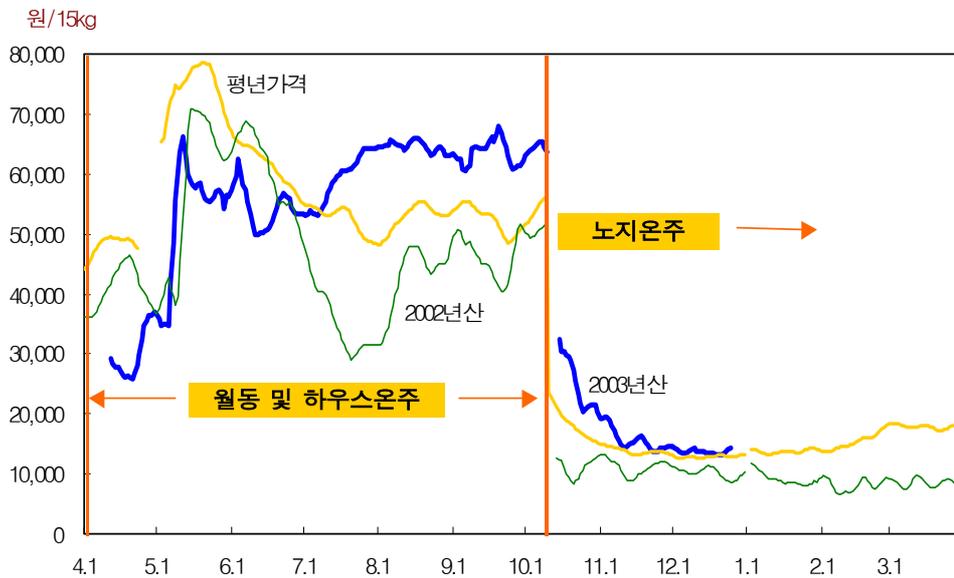
주: '03년과 '04년 숙기별면적 및 '04년 면적은 농업관측정보센터에 의한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추정치임.

자료: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3년 전체면적).

3.5. 감귤

- 4/4분기 감귤(노지온주 상품 15kg) 도매가격은 10월에 2만 4,6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이상 높았고, 11월은 43% 높은 1만 5,800원, 12월에는 36% 높은 1만 3,900원 수준이었음. 이처럼 감귤가격이 높은 것은 품질이 지난해보다 좋고, 단감, 사과, 배 등 대체과일 공급량이 적기 때문임.
- 노지온주의 결실면적은 지난해보다 14% 감소한 1만 9,000ha 수준이고 단수는 6~11%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9~23%(14~17만톤) 적은 57~60만톤 수준일 전망.

감귤 도매가격(상품)



주: 일별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이동평균임. 평년가격은 '97. 5 ~ '03. 4월 가격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올해 감귤의 대과¹⁰비율은 25.4%로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평년¹¹보다 적고, 소과¹²비율은 18.9%로 지난해보다 적고 평년보다는 많음. 병해와 강풍으로 결점과 비율이 지난해보다 높은 30.7%로 나타남. 당도는 9.8브릭스로 작년(9.4) 및 평년(9.6)보다 높은 수준이고, 산도는 1.1%로 지난해 및 평년과 비슷한 수준임. 따라서 당산비는 8.9로 작년(8.5) 및 평년(8.7)보다 높은 수준임.
- 오렌지 수입량은 10월에 산지가격과 환율이 지난해보다 낮아 지난해보다 146% 많은 2,600톤, 11월에는 국내가격이 하락하여 지난해보다 7% 적은 800톤 수준이었음.
- 12월 중순까지 노지감귤의 도외상품 출하량은 지난해 동기 수준이었으나 가공실적이 크게 늘어 전체공급량은 지난해보다 8% 많았음. 12월 이후 공급량은 지난해 동기보다 38%(17만 9천톤) 적을 것으로 전망됨.

노지감귤 과실특성 조사결과

	대과비율(%)	소과비율(%)	당도(브릭스)	산도(%)
평년	34.6	12.8	9.6	1.1
2002년산	26.2	21.5	9.4	1.1
2003년산	25.4	18.9	9.8	1.1

노지온주 공급량 추정

		생산량	12월 중순까지	12월 하순이후
공급량 (천톤)	'02년산	739	274	465
	'03년산	583	297	286
'03/'02 증감률(%)		-21.1	8.4	-38.5

주: '03년산 생산량 및 시기별 공급량은 12월 26일 기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임.

10) 8, 9, 10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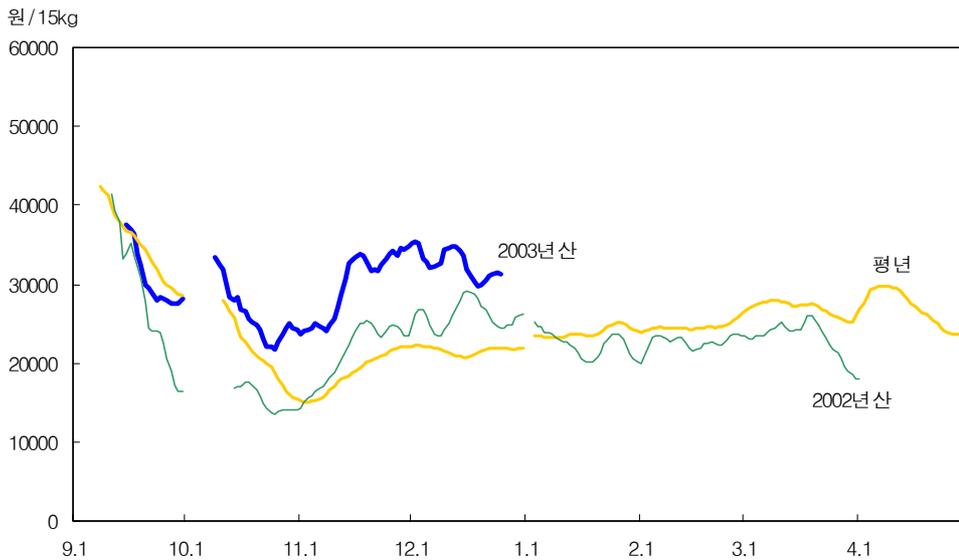
11) 1999~2002년산 평균임.

12) 0, 1, 2번과

3.6. 단감

- 단감 도매가격(부유 상품 15kg)은 10월에 지난해보다 68% 높고, 평년보다 15% 높은 2만 5,600원 수준이었고, 11~12월에는 지난해보다 25~40% 높고, 평년보다 51~59% 높은 2만 9,800원~3만 2,700원 수준임. 이처럼 단감 가격이 지난해 및 평년보다 크게 높은 것은 생산량이 줄었고, 감귤, 사과, 배 등 대체과일 공급량도 적기 때문임.
- 단감 성목면적은 지난해보다 1%(209ha) 감소한 1만 6,247ha임. 성목단수는 일조량 부족, 잦은 강우, 태풍과 병해피해로 지난해보다 31%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31%(6만 3천톤) 감소한 14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단감 도매가격동향(부유 상품)



주: 9월은 조생종, 10월 이후는 부유 기준임. 일별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 이동평균임. 평년은 '98. 9 ~ '03. 4월 가격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지역별 생산량은 태풍피해가 심한 경남이 지난해보다 44% 감소하지만, 경북은 동해피해가 심했던 지난해보다 37% 증가하고, 전남은 지난해보다 2%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올해 단감의 품질은 태풍과 병해피해, 일조량 부족 등으로 크기, 섶택, 당도, 저장성 모두 지난해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지난해보다 특·상품 비중은 줄어들고, 중·하품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됨.
- 단감 공급량은 12월 중순까지 지난해보다 26%(3만 5천톤) 적었으며, 12월 하순 이후에는 지난해보다 44%(2만 8천톤) 적을 것으로 추정됨.

단감 지역별 생산량의 지난해대비 증감률

	경남	경북	전남	전체
성목면적	-2.4	-3.1	2.0	-1.3
성목단수	-42.3	41.3	-4.3	-30.6
생산량	-43.7	37.0	-2.3	-31.5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10월 23~31일 모니터 및 표본농가 조사에 의한 추정치.

단감 공급량 추정

		생산량	12월 중순까지 공급량	12월 하순이후 공급량
공급량 (천톤)	2001년산	200	137	63
	2002년산	137	102	35
'02/'01 증감률(%)		-31.3	-25.8	-43.8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11월 1일 기준 추정치.

4. 과채류¹³⁾

4.1. 수박

- 4/4분기의 수박 도매가격은 10kg 상품기준으로 10월 6,704원, 11월 7,054원, 12월 8,798원이었음. 10~12월 가격이 작년보다 낮았던 것은 시설억제작형의 출하면적이 증가하였고, 단수도 회복되어 출하량이 작년보다 30~55% 증가하였기 때문임. 노지수박가격에 비해 억제작형의 수박가격이 높아 전국적으로 작기를 늦추어 출하하려는 작기변화가 있었고, 경남지역 축성재배농가들이 정식시기를 앞당겨 11월 이후 출하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2003년 수박의 재배면적은 작년 25,873ha보다 9% 감소한 23,508ha가 재배된 것으로 조사됨. 하우스수박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10% 감소한 17,744ha로 조사되었으며, 노지재배는 태풍피해와 연작장해로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작년보다 6% 줄어든 5,764ha로 나타남.

수박 재배면적 작년대비 감소율

단위: ha, %

		2002년	2003년	증감률
재배면적	하우스	19,740	17,744	-10.1
	노 지	6,133	5,764	-6.0
전 체		25,873	23,508	-9.1

자료: 농림부, 「주요작물 지역별 재배동향 2003」.

- 내년 하우스수박 정식의향면적은 금년 수박가격이 전반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금년보다 약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13)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연중 부연구위원(yjkim@krie.re.kr), 정학균(hak8247@krei.re.kr), 김원태(wtkim@krei.re.kr), 최익창(cic@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 경남지역의 11월 축성재배 정식의향면적은 수익이 높은 딸기, 메론 등으로 작목을 전환하여 작년보다 감소하고, 12~1월은 중부지역과 출하경합을 피하기 위해 정식시기를 앞당기고 있어 금년보다 약간 늘 것으로 조사됨. 내년 2~3월 반축성 재배의향면적은 정식시기를 앞당겨져 금년보다 약간 감소할 전망.
- 부여와 논산을 중심으로 한 충남지역과 경기지역의 2~4월 반축성 정식의향면적은 금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 전북지역은 매년 여름철 장마피해로 소득이 낮아 노지재배에서 시설(터널)재배로 작형이 이동되고 있어 내년 노지재배면적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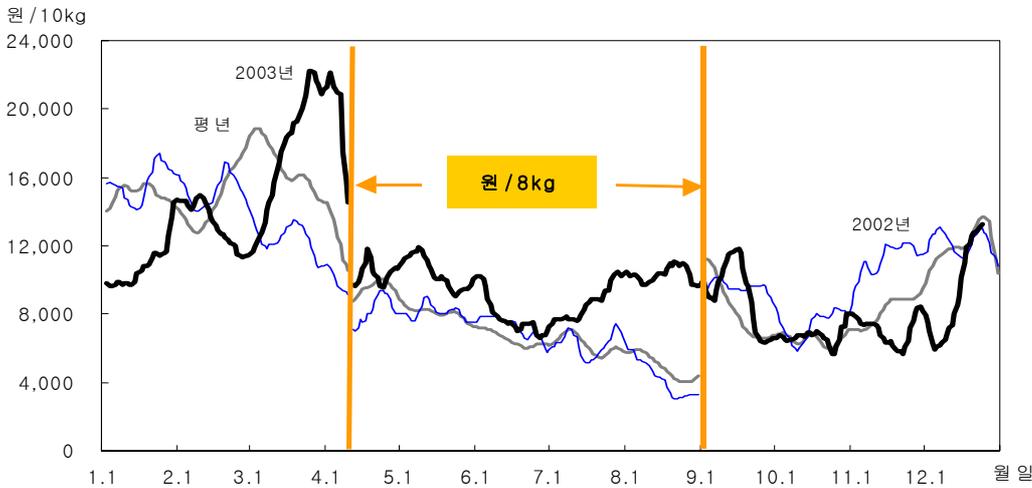
월별 하우스수박 정식의향면적 작년대비 증감률

단위: %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체
-2.9	2.1	3.3	-0.4	-1.2	0.2	0.5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10월 30일 표본농가 조사치.

수박 도매가격 (상품)



주: 일별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가격은 1998~2002년의 일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4월 11일~ 8월 31일까지는 상품 8kg개당 수치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4.2. 참외

- 4/4분기 참외 도매가격은 15kg 상품기준으로 10월 2만 5,700원이었음. 10월 가격이 작년보다 높았던 것은 주산지인 성주지역이 태풍 ‘매미’의 피해로 수확을 조기에 종료하여 출하량이 작년보다 39% 감소하였기 때문임.
- 금년 참외 재배면적은 작년 7,968ha보다 3% 감소한 7,731ha가 재배된 것으로 추정됨. 이는 농촌노동력의 고령화와 연작피해, 도시화로 재배면적이 감소하였고, 참외 농가가 멜론·수박 등으로 작목을 전환한 농가가 많았기 때문임. 호남지역의 참외는 성주지역의 참외에 비해 가격과 품질경쟁력이 낮아 수박, 호박·오이 등으로 작목을 전환하였음.

참외 재배면적 작년대비 감소율

단위: ha, %

		2002년	2003년	증감률
재배면적	하우스	7,490	7,359	-1.8
	노지	478	372	-2.2
전체		7,968	7,731	-3.0

자료: 농림부, 「주요작물 지역별 재배동향 2003」.

- 2004년 참외재배면적은 금년 참외가격이 전반적으로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농촌노동력의 고령화와 주산지인 성주지역의 태풍피해 복구가 지연되어 금년보다 2% 줄어 들 것으로 조사됨.
- 축성재배를 주도하는 경남지역의 11~12월 정식의향면적은 작년보다 줄고, 1월 정식의향면적이 약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경북지역과 출하 경합을 피하기 위해 최근에 정식시기를 앞당겼으나, 지난 겨울 낮은 기온으로 냉해 피해를 입어 금년에는 정식시기를 늦추고 있고, 일부 농가는 수박, 딸기 등으로 작목을 전환하고 있음.

- 반축성재배 면적은 지역에 상관없이 금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조사되었음. 주산지인 경북지역은 연작피해와 노동력의 고령화로 금년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전북 지역은 무와 수박으로 작목을 전환하려는 농가가 많아 정식의향면적이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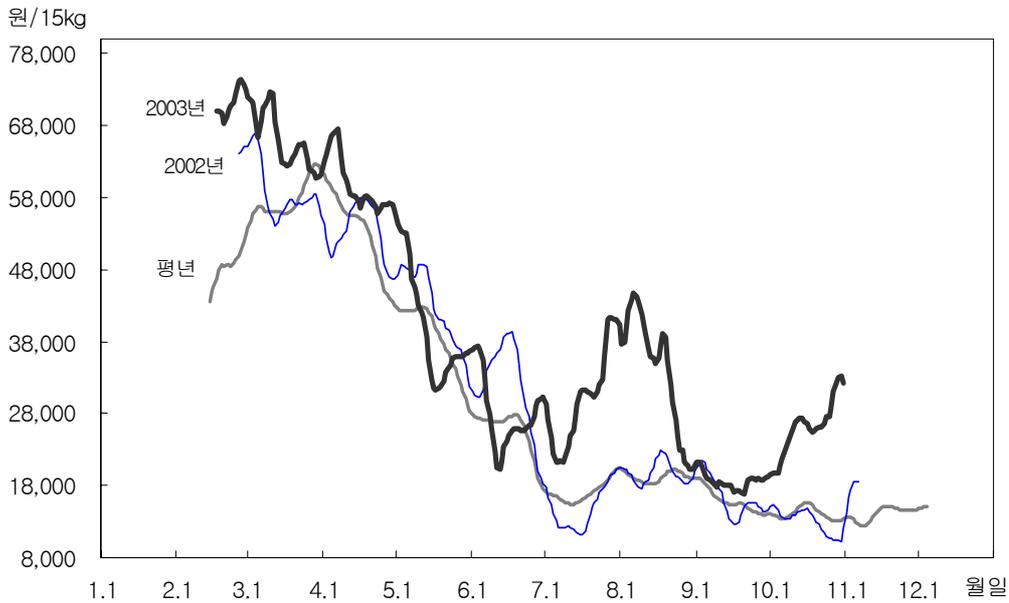
월별 참외 정식의향면적 작년대비 증감률

단위: %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체
-0.2	-2.4	1.7	-6.2	-0.2	-0.9	-2.0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10월 30일 표본농가 조사치.

참외 도매가격 (상품)



주: 일별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가격은 1998~2002년의 일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4.3. 오이(취청)

- 4/4분기 취청오이 도매가격은 20kg 상품기준으로 10월 2만 5,200원(작년 대비 △6%), 11월 4만 1,600원(작년 대비 16%), 12월 4만 700원(12월 24일까지 작년 대비 12%)이었음. 10월 가격이 작년보다 낮았던 것은 출하량이 작년보다 47% 증가하였기 때문임. 하지만 도매가격 하락 폭은 출하량 증가정도에 비해 크지 않았는데, 10월 무, 배추 등의 채소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절임류, 소박이김치용 오이의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11월 취청 출하량이 작년보다 42% 증가하였음에도 가격이 작년보다 높았던 것은 백다다기, 배추 등 소비대체재 가격 상승으로 취청 오이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12월 취청 가격(현재기준)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2003년 오이 재배면적은 태풍 ‘매미’ 피해, 노령화 등으로 작년 6,886ha보다 3.5% 감소한 6,648ha가 될 것으로 추정됨.
- 하우스 오이 면적은 작년보다 2.6% 감소한 5,351ha로 추정되며, 노지면적은 주산지인 강원, 경기, 경북 지역의 재배면적 감소로 작년보다 6.8% 감소한 1,297ha가 될 것으로 추정됨.

오이 재배면적 작년대비 증가율

단위: ha, %

		2002년	2003년	감소율
재배면적	하우스	5,494	5,351	△2.6
	노지	1,392	1,297	△6.8
전체		6,886	6,648	△3.5

자료: 농림부, 「주요작물 지역별 재배동향 2003」.

- 취청 11월~내년 3월 정식의향면적은 작년보다 1~7% 늘어날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최근가격이 좋고, 금년 출하기인 2~5월 가격이 평년보다 7~41% 높아 전남 구례·순천 지역에서 풋고추 등을 재배하

던 농가가 작목을 전환하고, 전남 지역 수출오이 재배농가들도 국내 가격이 좋은 취청오이로 작목을 전환할 농가가 많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취청 정식의향면적 작년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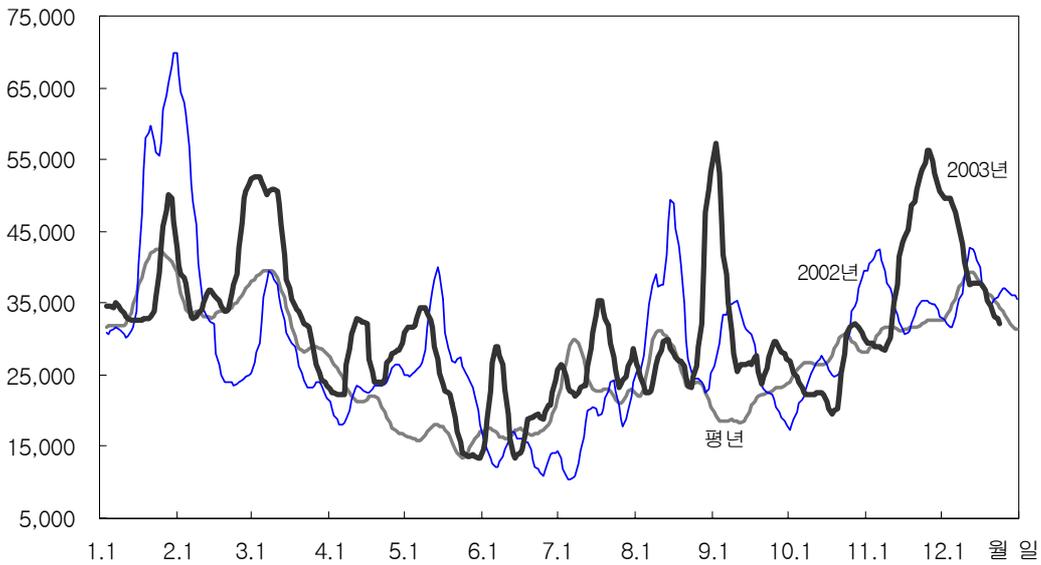
단위: %

2003년		2004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2	6.5	6.6	4.1	0.4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10월 30일 표본농가 조사치.

오이(취청) 도매가격 (상품)

원/20kg



주: 일별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가격은 1998~2002년의 일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4.4. 오이(백다다기)

- 백다다기 오이의 4/4분기 도매가격은 상품 100개당 10월 2만 5,300원(작년 대비 12%), 11월 3만 2,100원(작년 대비 30%), 12월 3만 5,400원(작년 대비 5%) 이었음. 10월에 백다다기 가격이 높았던 것은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채소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소박이김치용 백다다기 오이의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11월에는 흐리고 비오는 날이 많아 일조량 부족으로 백다다기 출하량이 작년보다 11% 감소하여 가격은 작년보다 높았음. 12월 백다다기 가격(현재기준)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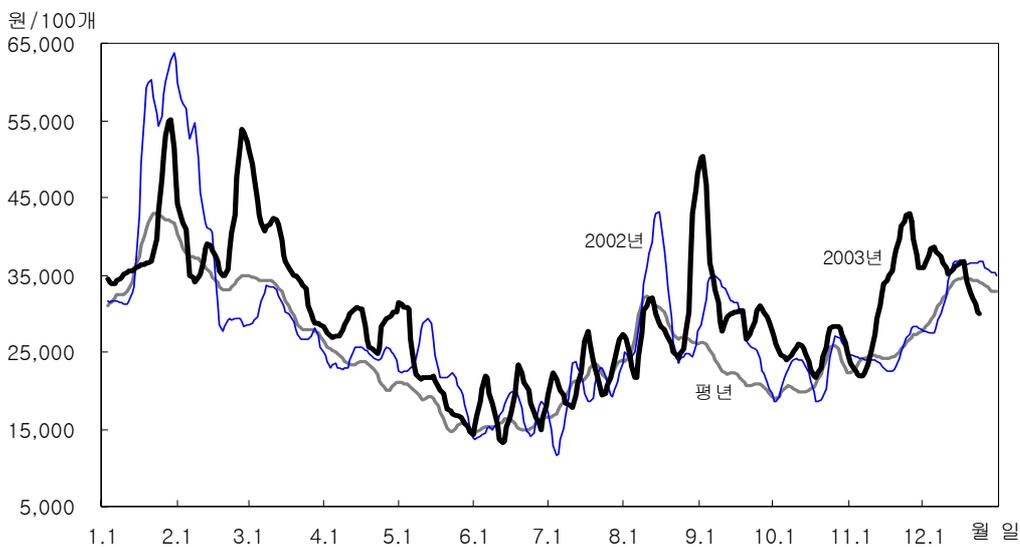
백다다기 정식의향면적 작년대비 증가율

단위: %

2003년		2004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2.5	0.2	1.1	2.8	2.6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10월 30일 표본농가 조사치.

오이(백다다기) 도매가격 (상품)



주: 일별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가격은 1998~2002년의 일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백다다기 11~내년 3월 정식의향면적은 작년보다 1~3% 늘어날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전남 고흥 지역에서 최근 가격이 좋아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던 농가가 백다다기로 작목을 전환하려는 농가가 많고, 충남 부여·천안 지역은 출하기인 금년 1~5월 가격이 평년보다 4~23% 높아 시설하우스 재배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임.

4.5. 호박(애호박)

- 애호박 4/4분기 도매가격은 8kg 상품기준으로 10월 1만 2,500원(작년 대비 23%), 11월 1만 6,900원(작년 대비 8%), 12월 2만 2,100원(12월 24일까지 작년 대비 10%) 이었음. 애호박 10월 가격이 높았던 것은 주출하지인 강원, 경기 지역의 노지재배가 여름철에 비가 자주 내려 생육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임. 11월 가격이 작년보다 높았던 것은 출하량은 작년과 비슷하였으나, 오이, 배추 등 소비대체재 가격 상승으로 작년보다 높았음. 12월 가격(현재기준)은 작년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
- 2003년 호박재배면적은 작년 9,035ha보다 2.7% 감소한 8,791ha가 될 것으로 추정됨. 하우스호박면적은 태풍 ‘매미’ 와 토마토 등 다른 작목으로의 전환으로 작년보다 15.3% 감소한 3,483ha로 추정되며, 노지 호박면적은 다른 작목에 비해 노동력이 적게 들고, 재배도 용이하여 강원 홍천과 화천지역 재배면적의 증가로 작년보다 7.9% 증가한 5,308ha가 될 것으로 추정됨.
- 애호박 11~내년 3월 정식의향면적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늘어날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최근 가격이 좋은 데다 금년 출하시기 가격이 평년보다 높아 주산지인 경남 진주, 전남 광양 지역 등에서 수박, 수출오이를 재배하던 농가가 애호박으로 작목을 전환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임.

호박 재배면적 작년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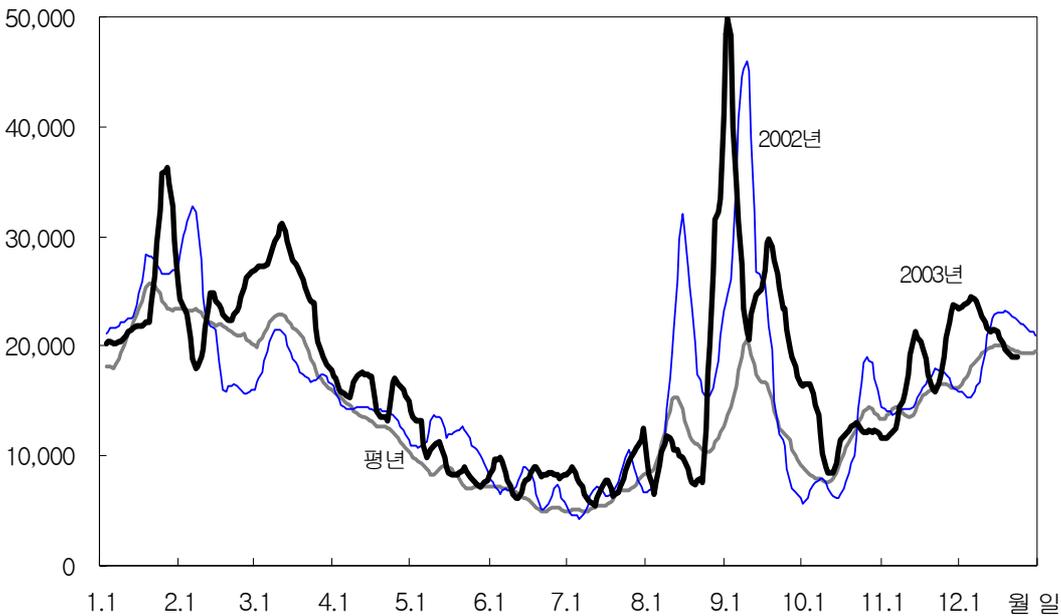
단위: ha, %

		2002년	2003년	증가율
재배면적	하우스	4,114	3,483	△15.3
	노지	4,921	5,308	7.9
전체		9,035	8,791	△2.7

자료: 농림부, 「주요작물 지역별 재배동향 2003」.

호박(애호박) 도매가격 (상품)

원/20개



주: 일별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가격은 1998~2002년의 일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4.6. 호박(쥬키니)

- 쥬키니 4/4분기 도매가격은 10kg 상품기준으로 10월 8,900원(작년 대비 31%), 11월 6,800원(작년 대비 4%), 12월 7,800원(작년 대비 △4%)이었음. 10월 출하량이 작년보다 18% 증가하였음에도 가격이 작년보다 높았던 것은 소비대체재인 애호박의 출하량이 감소하여 애호박 가

격이 상승함에 따라 주키니 가격도 함께 상승하였기 때문임. 11월에 가격이 낮았던 것은 출하 예정면적의 감소로 출하량이 작년보다 9% 감소하였기 때문임. 12월 도매가격(현재기준)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주키니 11~내년 3월 정식의향면적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경남 진주지역에서 주키니를 재배하던 일부 농가가 애호박으로 작목을 전환하고, 전북 전주지역에서 노령화로 정식면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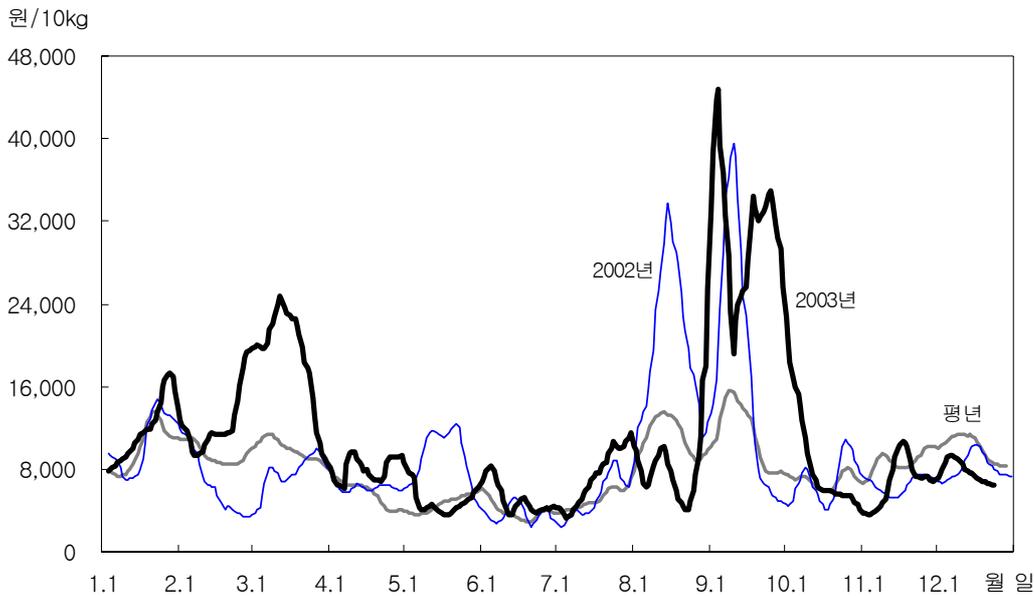
주키니 정식의향면적 작년대비 증감률

단위: %

2003년		2004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1.0	-0.2	-0.5	-1.1	0.0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10월 30일 표본농가 조사치.

호박(주키니) 도매가격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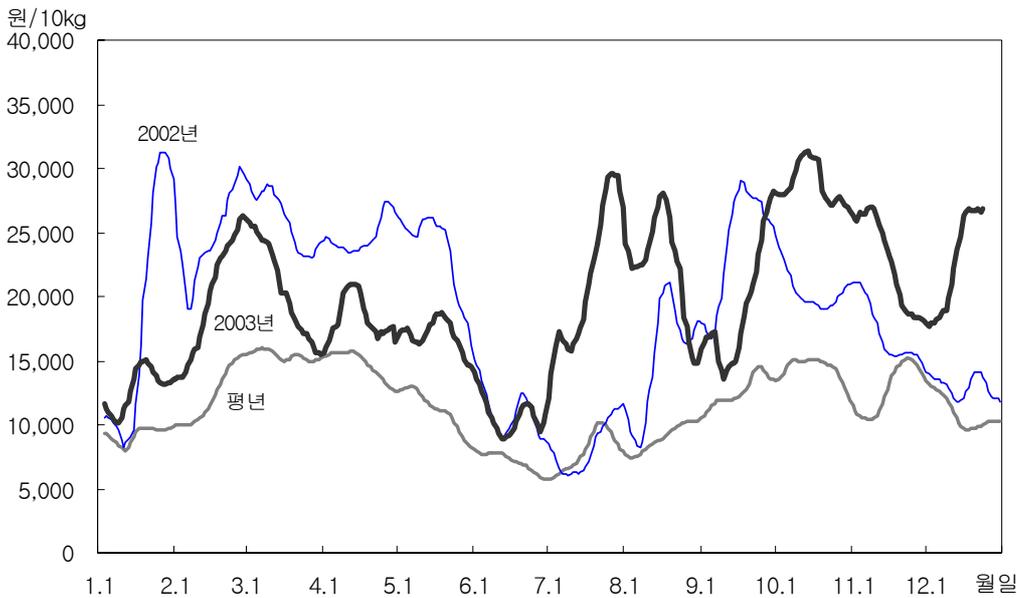


주: 일별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가격은 1998~2002년의 일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4.7. 일반토마토

- 토마토 4/4분기 도매가격은 10kg 상품기준 10월 2만 8,600원, 11월 2만 3,000원, 12월은 2만 2,200원으로 작년보다 10월 39%, 11월 33%, 12월 71% 높았음. 10월 출하량이 작년보다 75%, 평년보다 99%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토마토 가격이 높았던 이유는 소비대체과일인 복숭아, 포도, 배 등의 반입량이 적어 가격이 높았고, 이들 품질이 평년에 비해 좋지 않았기 때문임. 11~12월은 출하량이 작년보다 많았으나 소비대체과일인 사과, 배 등의 반입량이 적어 일반토마토 소비가 유지되었기 때문임.
- 2003년 일반토마토 재배면적은 금년 2,334ha(추정)보다 5% 증가한 2,451ha로 전망됨. 이는 금년 일반토마토 가격이 좋아 전남, 경북 지역에서는 수확기 연장으로 출하 예정면적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충남 부여, 논산 지역은 방울토마토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더 적게 소요되는 일반토마토로 품목 전환한 농가가 많았기 때문임.

일반토마토 도매가격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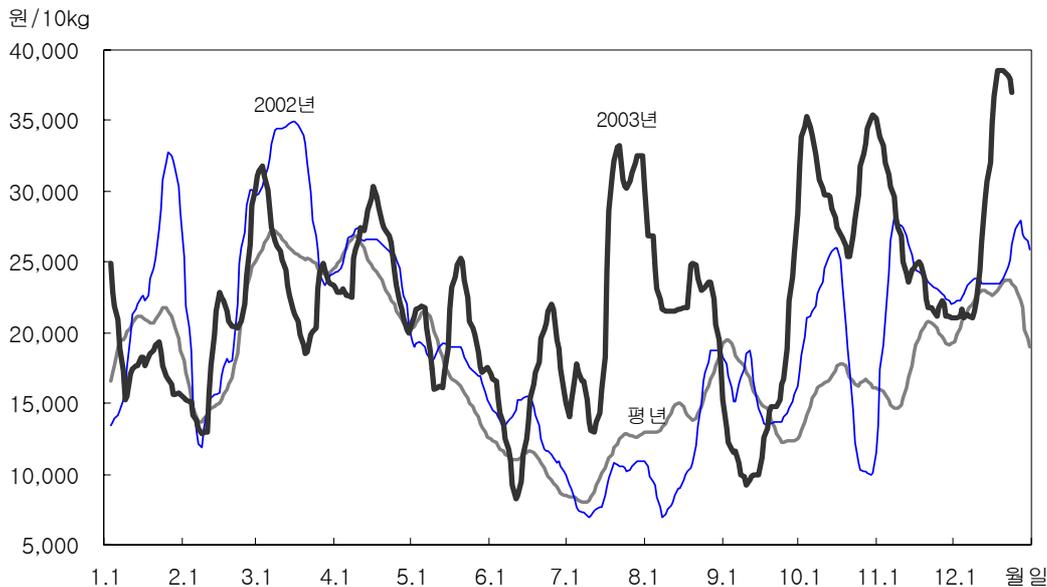
주: 일별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가격은 1998~2002년의 일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일반토마토 내년 1~2월 정식의향면적은 전년보다 4%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이는 금년 토마토 시세가 좋아 주 출하지역인 전남, 충남 지역에서는 토마토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전반적으로 재배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4.8. 방울토마토

- 방울토마토 4/4분기 도매가격은 10kg 상품기준 10월 3만 900원, 11월 2만 5,600원, 12월 2만 8,900원으로 10월은 66% 높았고, 11월은 11% 낮았으며 12월은 19% 높았음. 10월 반입량이 작년과 평년보다 35% 많았음에도 방울토마토 가격이 높았던 것은 태풍의 영향으로 소비대체과일의 생산량이 적어 가격이 높았으며 이들 품질이 좋지 않아 방울토마토 소비가 유지되었기 때문임. 11월은 출하량이 작년보다 76% 많았기 때문임. 12월은 반입량이 작년보다 36% 많았으나 연말을 맞아 외식업체의 수요가 늘어 방울토마토 소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방울토마토 도매가격 (상품)



주: 일별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가격은 1998~2002년의 일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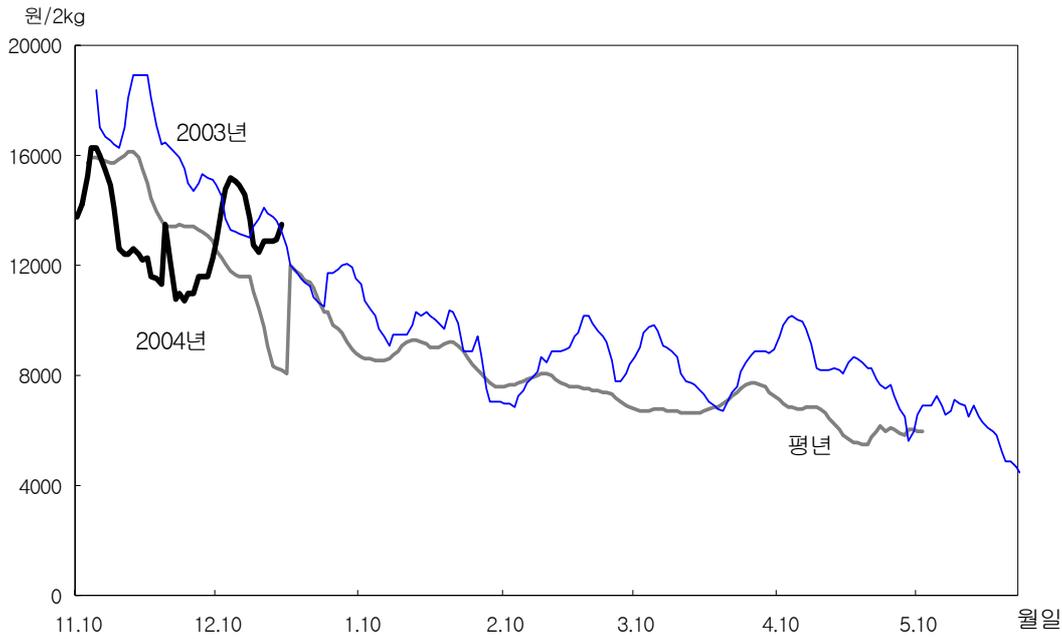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2003년 방울토마토 재배면적은 금년 1,521ha(추정)보다 2% 증가한 1,551ha로 추정됨. 이는 충남 부여, 논산 지역의 농가들이 고령화로 노동력이 적게 드는 일반토마토로 전환하였으나, 올해 방울토마토 가격이 전반적으로 높아 주 출하지역인 전남, 충북 지역의 재배면적이 증가하였음.
- 방울토마토 내년 1~3월 정식의향면적은 전년보다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충남 부여지역에서 노동력이 적게 드는 일반토마토 품목으로 전환한 면적이 많았으나, 앞으로 토마토 가격이 좋을 것으로 기대하여 전남 지역에서는 재배면적을 다소 늘리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4.9. 딸기

- 11월 딸기 도매가격은 상품 2kg당 1만 4,600원으로 작년보다 24% 낮았고, 12월은 1만 2,700원으로 작년보다 6% 낮았음. 11~12월 도매가격이 낮았던 것은 반입량이 작년보다 110%, 15% 많았고, 주 출하지역인 경남 산청, 거창, 함양 지역의 수확량이 많았고, 출하시기를 앞당겼기 때문임.
- 올해 11월부터 출하되는 딸기 재배의향면적은 금년보다 4% 감소한 7,503ha로 조사되었음. 이는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주 출하지역인 경남지역에서 재배면적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딸기 재배면적 비중이 큰 품종은 ‘육보’, ‘장희’, ‘매향’ 순이며, 금년에는 육보 61%, 장희 25%, 매향 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딸기 도매가격(상품)



주: 일별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가격은 1998~2002년의 일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최근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품종은 ‘장희’, ‘매향’, ‘조홍’, ‘스위트 찰리’ 등이며 축성재배가 가능한 품종임. 특히, 매향과 조홍은 국산품종이며 당도가 높고 고유한 향에 과육이 단단해 장기 유통에 유리한 장점을 갖고 있음.

딸기 품종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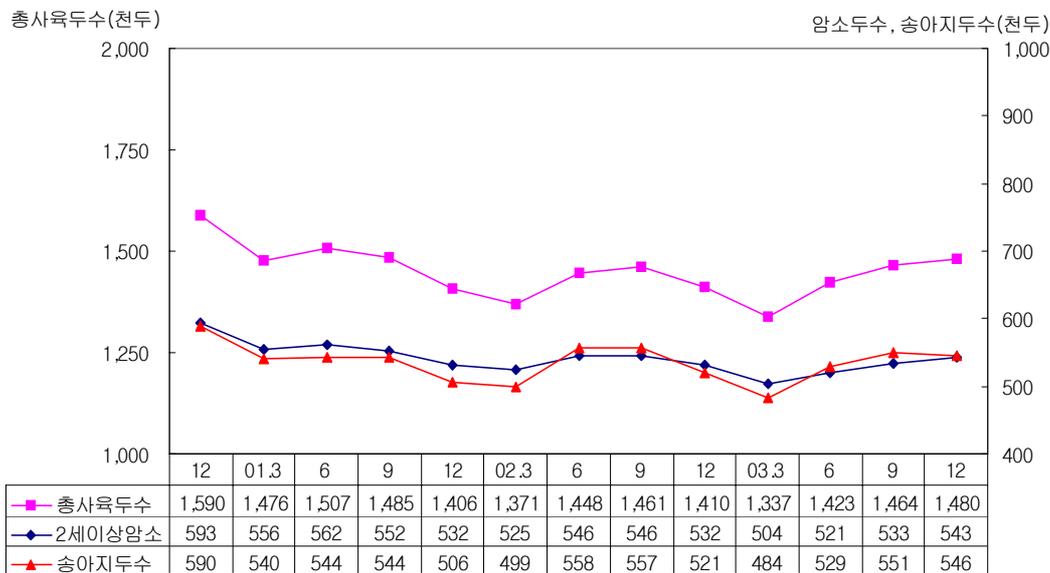
	육보	장희	사치노카	매향	조홍	기타
2002년	69.4	20.6	4.5	1.4	-	4.1
2003년	60.9	24.5	2.3	6.5	1.2	4.6
증감률(%p)	-8.5	3.9	-2.2	5.1	1.2	0.5

5. 축산14)

5.1. 한육우

- 2003년 12월 한육우 총 사육두수는 148만두로 3개월 전보다 1만 6천두(1.1%)증가하고, 전년동기에 비해 7만두(5.0%)가 증가함.
- 2003년 12월 한육우 2세 이상 암소는 54만 3천두로 3개월 전보다 1만두(1.9%), 전년 동기에 비해 1만 1천두(2.1%) 증가했음.

한육우 사육두수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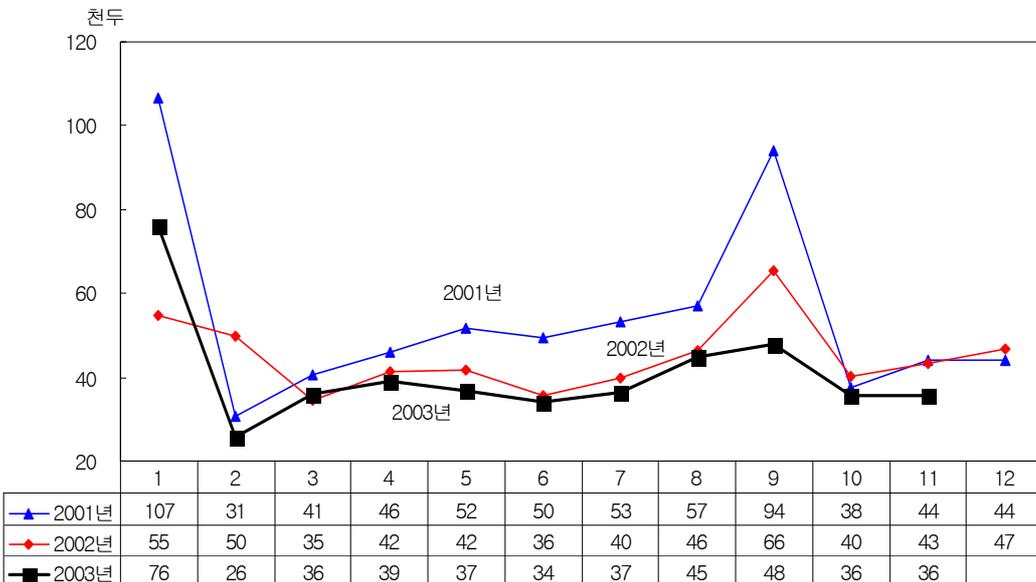


주: 2003년 3월부터는 신표본으로 변경되어, 과거 시계열 자료와 일부 단층이 발생할수 있음.
 자료: 농림부, 가축통계

14)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신승열 연구위원(syshin@krei.re.kr), 송우진(gnos@krei.re.kr),
 성동현(dhsung@krei.re.kr), 이형우(ihw0906@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으며 관
 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 2003년 12월 1세미만 송아지 두수는 54만 6천두로 3개월 전보다 5천두(0.9%) 감소, 전년 동기에 비해 2만 5천두(4.8%) 증가했음.
- 사육가구수는 12월에 18만 8천호로 3개월 전보다 1천호(0.5%) 감소하였고, 전년 동기보다는 2만 4천호(11.3%) 감소하였음.
- 높은 한우 가격으로 번식의향이 높게 유지되면서 암소 도축률이 떨어져 도축두수는 전년 동기대비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2003년 9~11월 도축두수는 전년 동기간에 비해 20% 감소한 11만 9천두를 기록하였음.

한육우 월별 도축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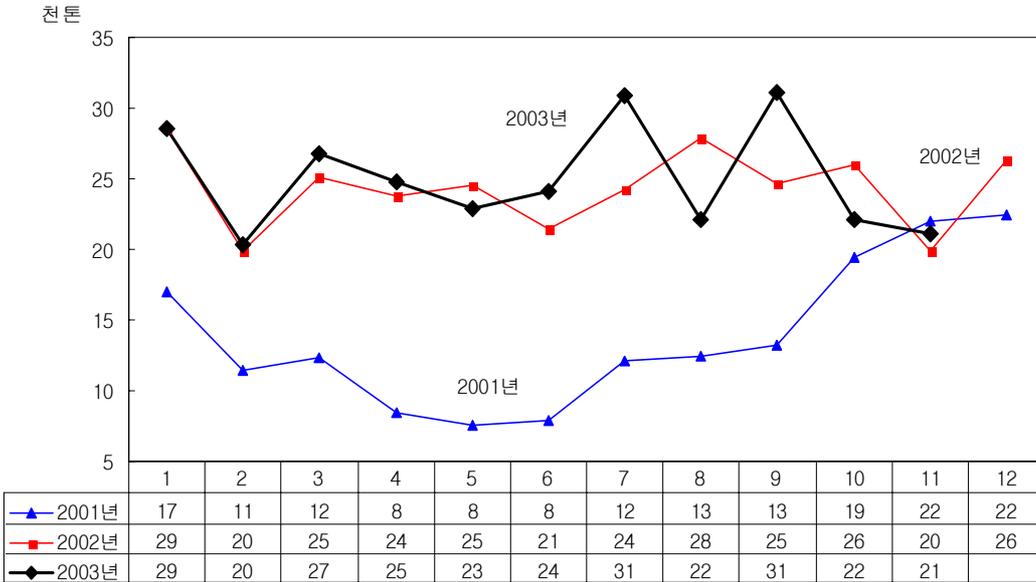


자료: 농림부.

- 9~11월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기간에 비해 5.6% 증가한 7만 4천톤임.

-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여 12월 27일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 금지 조치됨. 미국산 쇠고기는 올해 1~11월 수입 쇠고기의 68.2%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쇠고기 수입은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

쇠고기 월별 수입현황(검역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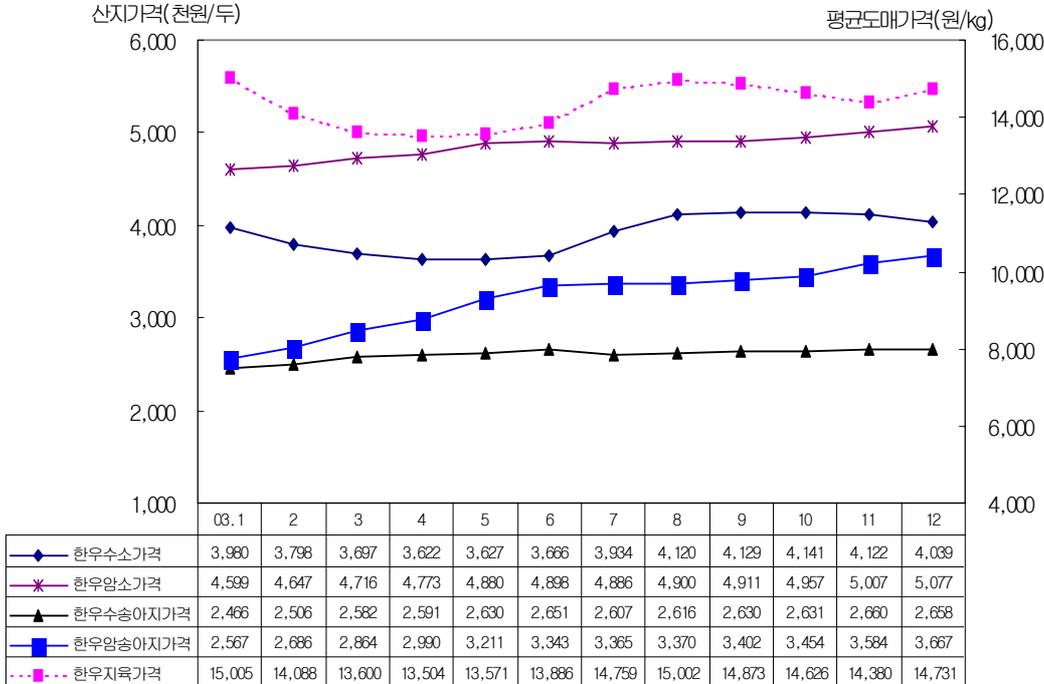
자료: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 한육우 가격 변동

- 한우 수소 산지가격은 4월 362만원까지 떨어진 후 다시 상승하여 10월 414만원으로 상승한 후 12월에는 10월에 비해 소폭 하락 404만원 수준임.
- 한우 암소는 번식심리 증가로 12월 508만원까지 꾸준히 상승세가 지속됨.
- 수송아지가격은 5월 263만원으로 상승한 후 12월까지 26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음.

- 한우 지육(kg당) 가격은 8월 1만 5,000원을 기록하고 이후 소폭 하락하여 12월에는 1만 4,731원을 기록함.

한육우 산지가격 변동



자료: 농협중앙회, 축산물 가격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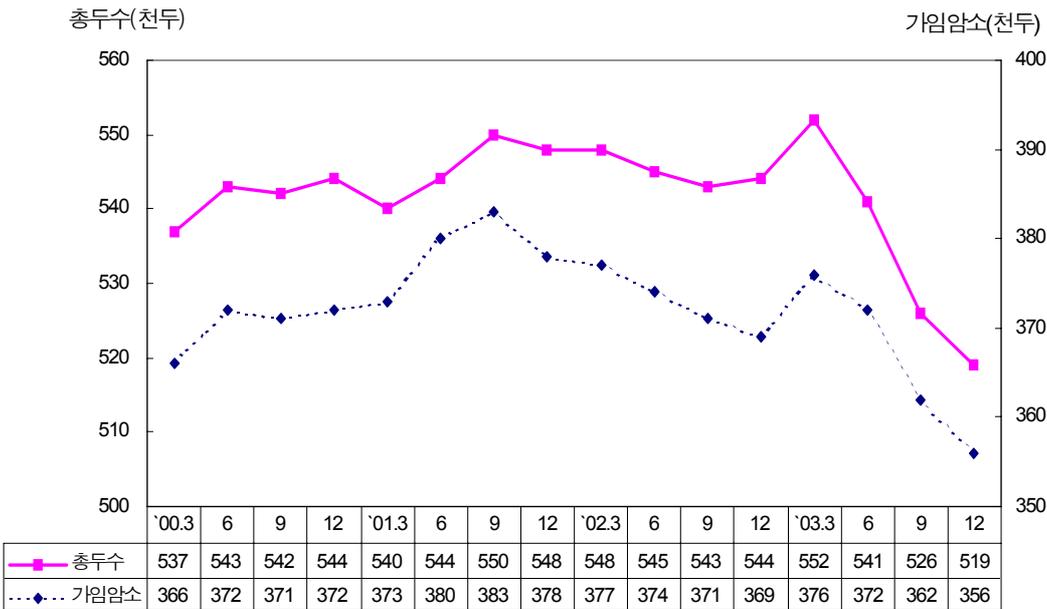
5.2. 젖 소

- 2003년 12월 젖소 사육두수는 2세 이상 두수의 감소로 송아지 생산이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보다 2만 5천두(△4.6%) 감소한 51만 9천두, 가임암소 두수는 35만 6천두로 전년 동기보다 1만 3천두(△3.5%) 감소하였음.
- 12월 1세미만 두수는 10만 2천두로 전년 동기보다 1만 3천두(△11.3%) 감소하였고, 1~2세 두수는 12만 1천두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음. 2세이상 두수가 전년 동기보다 1만 2천

두(△3.9%) 감소하면서, 경산우 두수는 1만 4천두(△4.6%), 착유우 두수는 1만 1천두(△4.4%) 감소하였음.

- 12월 젖소 사육가구수는 1만 500호로 전년 동기보다 1,200호(△ 10.3%) 감소하였음. 50두 미만 소규모 사육농가수는 1,200호(△ 16.7%) 감소하였고, 50두 이상 중·대규모 사육농가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음.
- 12월 규모별 사육두수를 살펴보면, 50두 미만의 소규모 사육농가의 사육두수는 전년 동기보다 15% 감소하였고, 50두 이상 중·대 규모 사육농가의 사육두수는 전년 동기보다 1.8% 증가하였음. 호 당 사육두수는 49.3두로 전년 동기보다 2.9두(6.3%) 증가하였음.

젖소 사육두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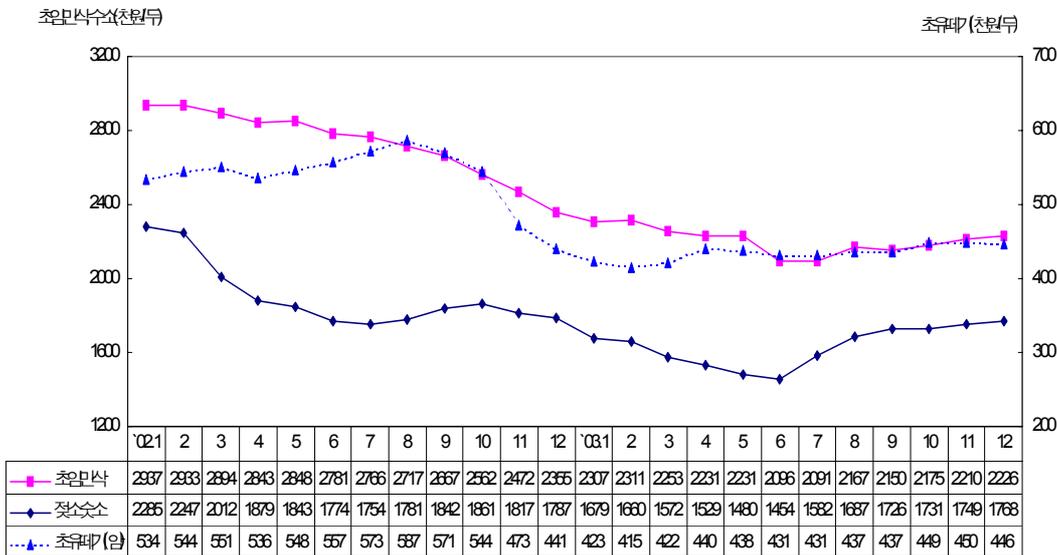


자료: 농림부, 가축통계.

○ 젓소 산지가격변동

- 초유떼기(암송아지): 원유수급불안정으로 낙농가의 사육의향이 낮아지면서 초유떼기(암) 산지가격은 2002년 9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3년 43~45만원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음. 12월 가격은 전월보다 1% 하락한 44만 6천원임.
- 초임만삭우: 낙농진흥회에서 실시한 원유폐업·감축대책으로 경산우 도태가 증가하면서 6~7월 초임만삭우 가격은 일시적으로 하락하였으나, 이후 사육두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가격은 조금씩 상승하였음. 12월 가격은 222만 6천원으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임.
- 젓소수소: 2003년 상반기는 쇠고기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젓소수소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하반기부터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은 170만원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음. 12월 현재 젓소수소 가격은 176만 8천원으로 전월보다 1% 하락하였음.

젓소 산지가격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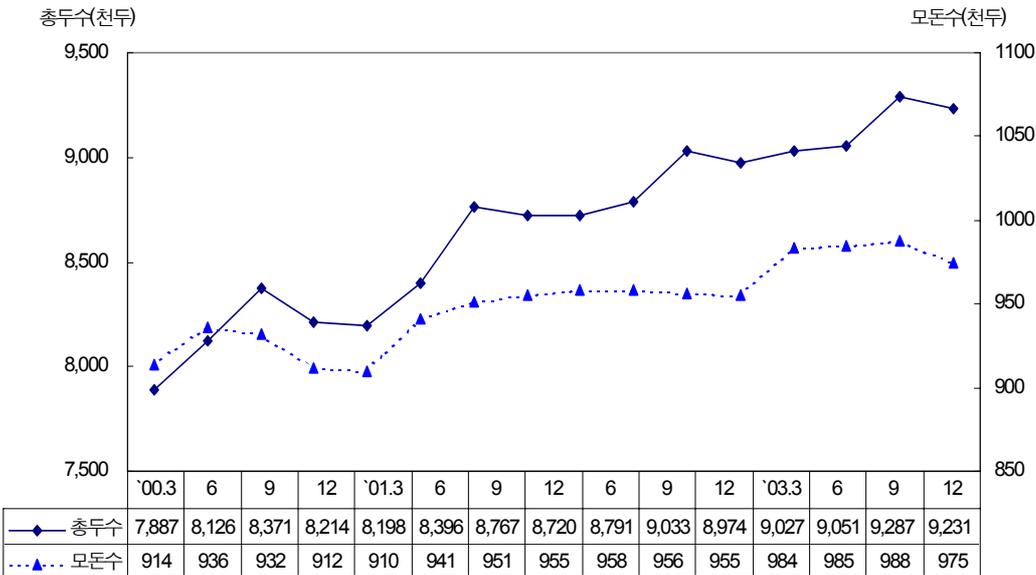


자료: 농협중앙회, 축산물 가격정보.

5.3. 돼 지

- 2003년 3월부터 증가한 모돈수의 영향으로 12월 돼지 총 사육두수는 전년 동기보다 25만 7천두(2.9%) 증가한 923만두로 추정됨. 모돈수는 97만 5천두로 3개월 전보다 1만 3천두(△1.3%), 전년 동기보다 2만두(2.1%) 증가하였음.
- 2003년 12월 돼지 사육가구수는 추석이후 산지가격 하락으로 사육의향이 낮아지면서 3개월 전보다는 230호(△1.5%), 전년 동기보다는 2,200호(△12.6%) 감소한 1만 5,420호였음.
- 12월 1,000두 미만 소규모 사육가구수는 전년동기보다 2,180호(△15%) 감소하였으나 1,000두 이상 중·대규모 사육가구수는 전년 동기보다 20호(0.7%)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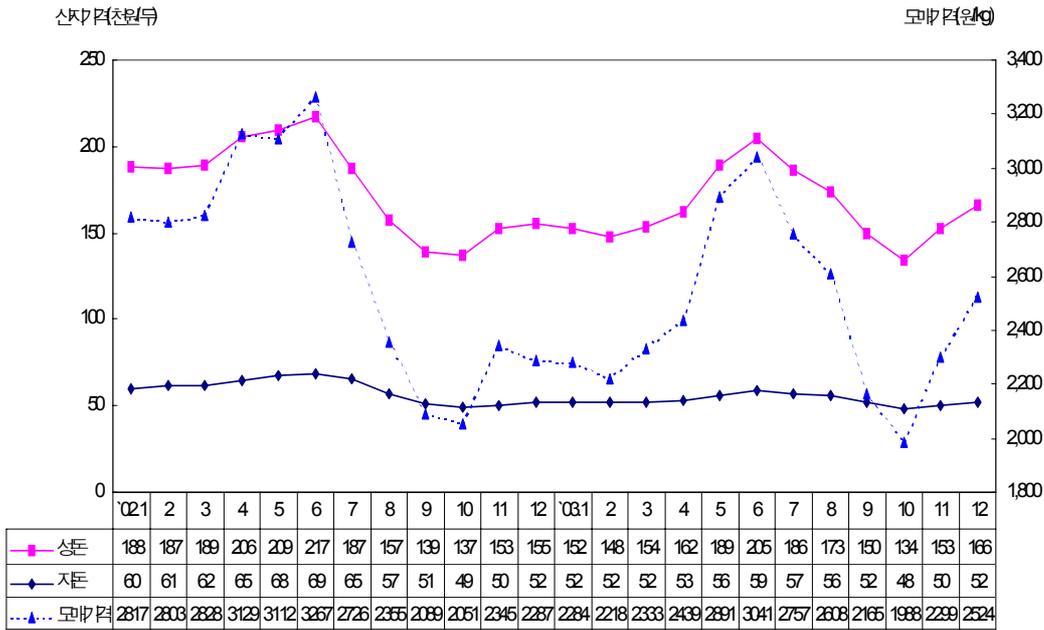
돼지 사육마리수 변동



자료: 농림부, 가축통계.

- 12월 규모별 사육두수를 살펴보면, 1,000두 미만 소규모 농가의 사육두수는 전년 동기보다 2.5% 감소하였고, 1,000두 이상 사육농가의 사육두수는 5% 증가하여, 1,000두 이상 사육농가의 사육두수가 전체 사육두수 73%를 차지하였음. 호당 사육두수는 605.6두로 전년 동기보다 90.9두(17.7%) 증가하였음.
- 돼지 산지가격변동
 - 성돈(100kg) : 추석이후 소비 위축으로 성돈 산지가격이 10월에는 13만 4천원으로 하락하였으나, 11월부터 5~6월 유사산으로 인한 출하두수 감소로 가격은 상승하였음. 12월 중순 가금류의 질병발생으로 대체소비가 증가하면서 가격은 더욱 상승하여 12월 가격은 16만 6천원으로 전월보다 8.8% 상승함.
 - 자돈: 성돈 가격이 하락하면서 자돈 산지가격도 동반 하락하여 10월에는 4만 8천원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성돈 가격이 상승하면서 자돈 가격도 상승하여 12월 가격은 전월보다 3.5% 상승한 5만 2천원임.
 - 평균경락가격(비육돈): 추석이후 극심한 소비위축으로 비육돈 평균경락가격은 크게 하락하였으나, 연말 수요증가와 출하두수 감소로 12월 경락가격은 kg당 2,524원으로 전월보다 9.8% 상승하였음.
- 돼지고기 수입
 - 2003년 1~11월 국내 가격이 전년보다 8.4% 하락함에 따라 돼지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기간보다 16.9% 감소한 55,880톤이었음. 삼겹살 부위의 경우 수입량은 15.9% 감소한 40,575톤이었고, 수입비중은 10월의 경우 67.4%, 11월은 73.2%로 나타났음.

돼지 산지가격 및 도매가격 변동



자료: 농협중앙회, 축산물 가격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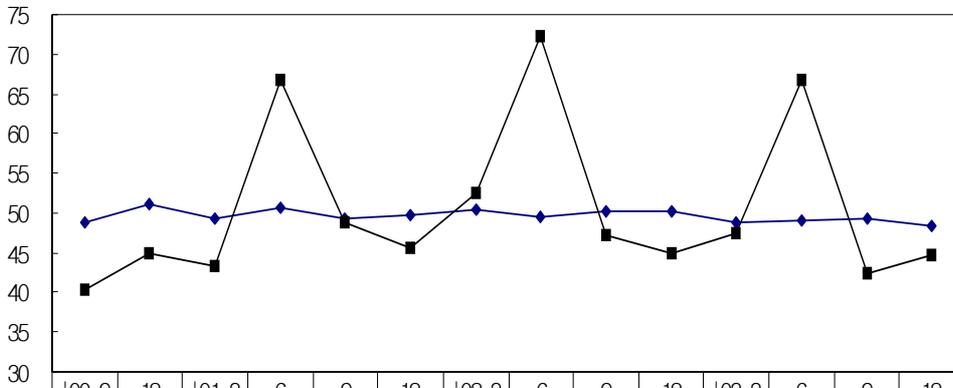
5.4. 닭

- 추석이후 노계도태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어 12월 산란계 사육수수는 9월보다 감소함.
 - 12월 산란계 사육수수는 4,835만수로 3개월 전보다 2.1%, 전년동기보다는 3.7% 감소하였음. 12월 산란계 사육 가구수는 2,129호로 3개월 전보다 7.7%, 2002년 12월보다 8.1% 감소하였음.
 - 12월 15일에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위험지역(3km내)과 경계지역(10km)내의 일부 산란계 사육농가로 질병이 전염되어 산란계 30여만수(12월 사육수수의 0.7%)가 살처분되었음(12월 31일, 농림부).

- 연말특수에 대비한 병아리 입식수수가 증가하여 12월 육계 사육수수는 9월보다 증가함.
 - 12월 육계 사육수수는 4,480만수로 3개월 전보다 5.5% 증가, 전년동기보다 0.4% 감소함. 12월 육계 사육 가구수는 1,611호로 3개월 전보다 6.1%, 2002년 12월보다 17.9% 감소하였음.
 - 12월 15일 발생한 가금인플루엔자는 주로 오리와 산란계에 감염되어 육계 생육상황에는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고 있으나 닭고기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여 농가의 출하가 지연되고 있음.

산란계 및 육계 사육수수 변동

사육수수(백만수)



	'00.9	12	'01.3	6	9	12	'02.3	6	9	12	'03.3	6	9	12
◆ 산란계	48.8	51.1	49.3	50.7	49.3	49.8	50.5	49.6	50.3	50.2	48.7	49.1	49.4	48.4
■ 육계	40.3	45.0	43.4	66.7	48.9	45.7	52.4	72.2	47.1	45.0	47.5	66.8	42.5	44.8

자료: 농림부, 가축통계.

- 계란 산지가격 변동
 - 3/4분기에는 계란 생산에 참여하는 산란용 마리수의 감소로 계란 공급량이 전년보다 감소하여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동기보다 7.1% 상승한 798원이었음. 4/4분기에도 산란용 마리수 감소로 계란 공급량이 전년보다 감소하고 추석특수로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동기보다 16.7% 상승한 803원이었음.

-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이후 계란 가격의 변화를 살펴보면, 12월 10일(최초 질병발생일) 계란 가격은 801원(특란 10개당)이었으나 31일 현재 811원으로 나타나 계란 소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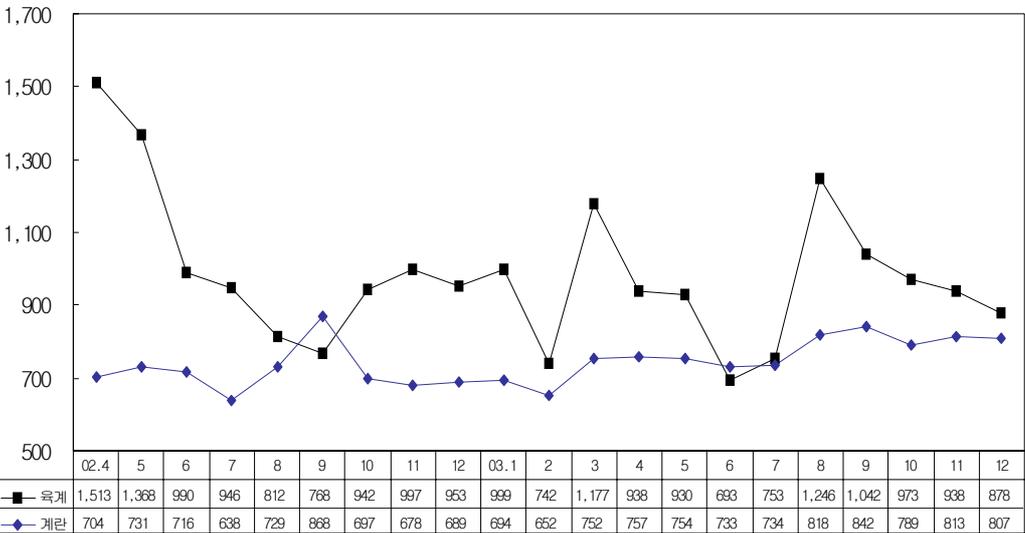
○ 육계 산지가격 변동

- 3/4분기 육계 산지가격은 6월 하순~7월까지 병아리 렌더링 사업 실시로 닭고기 공급물량이 크게 감소하여 전년동기보다 20.4% 상승한 1,014원이었음. 4/4분기 육계 산지가격은 12월 15일에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여 전년동기보다 5.6% 하락한 930원이었음.

- 12월 15일 가금인플루엔자 발생 방송보도이후 닭고기 소비가 크게(30~40%) 감소하여 12월 10일(최초 질병발생일) 육계 가격은 kg당 991원이었으나 31일 현재 629원으로 큰 폭(36%)의 하락세를 나타냄.

양계산물의 산지가격 변동

산지가격(원/10개, 원/생체kg)



주 : 계란 산지가격은 특란기준임.
 자료: 농협, 축산물 가격정보.

○ 종계 병아리 생산

- 2003년 3/4분기에 입식된 산란용 종계병아리수는 9만 1천수로 전년동기보다 25.2% 감소하였음. 10~11월에는 5만 3천수로 전년동기간보다 19.8% 감소하였음.
- 2003년 3/4분기에 입식된 육용 종계병아리수는 120만 9천수로 전년동기보다 23.7% 감소하였음. 10~11월에는 56만 5천수로 전년동기간보다 13.8% 감소하였음.

○ 닭고기 수입(검역기준)

- 2003년 3/4분기 닭고기 수입량은 2만 2천톤으로 전년동기보다 2.6% 감소하였음. 10~11월 닭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기간과 비슷함(0.1% 감소) 1만 4천톤이었음.

미국 Rice Yearbook - 세계 쌀 전망¹⁵⁾

1. 2003/04 미국 쌀 시장전망 - 공급 부족과 높은 가격

- 미국 2003/04년도 전체 쌀 공급은 241백만cwt(조곡 기준)로 2000/01년 이후 가장 적으며 전년대비 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연초재고량은 31% 감소하였으며, 생산량은 6% 감소함. 생산량은 연초예상치보다 12.7백만cwt 감소한 198.2백만cwt 임.
- 2003/04 식부면적은 1996/97이후 가장 적은 300만 에이커로 1년 전에 비해 7% 감소함. 올해 재배면적 감소는 장립종 가격이 낮을 것이라는 기대와 캘리포니아 지역의 기후에 기인함. 평균 단수는 에이커당 6,656파운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1년 전에 비해 78파운드 증가한 수치임. 새로운 고단수 남부 장립종의 재배면적 증가가 올해의 4년 연속 기록적인 단수증가의 주요 요인임.
- 장립종은 2003/04년도 전체 쌀 생산량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함. 장립종 생산량은 1년 전에 비해 7% 감소한 146백만cwt로 전망됨. 중단립종 생산은 52.2백만cwt로서 1년 전에 비해 3% 감소함.
- 쌀 재배면적은 쌀재배를 실시중인 모든 주에서 감소함. 루이지애나주는 229,00에이커 감소로 가장 큰 비율로 감소함. 단수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를 제외하고 모든 주에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알칸소주, 루이지애나주, 미주리주는 기록적인 단수증가가 전망됨. 쌀 생산량은 모든 주에서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캘리포니아주, 루이지애나주, 텍사스주에서의 높은 감소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15) 이 장은 미국 USDA에서 매년 발간하는 "Rice Outlook Yearbook"을 기초로 김재환 연구원(jhkim74@krei.re.kr)이 제작성하였음.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 2003/04 미국 평균농가판매가격은 1년 전에 비해 cwt당 4.22달러가 상승한 cwt당 7달러에서 7.5달러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이 가격은 1998/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1996/97년 이후 최초의 상승추세임. 9%의 미국의 공급량 감소와 미국과 전 세계 강력한 쌀 수요가 미국 쌀가격 상승의 주요인임.

2. 미국 쌀 수출의 감소 - 95백만cwt로 24% 감소

- 미국 쌀 수출은 2003/04년 기준 24% 감소한 95백만cwt(조곡기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높은 미국 내 가격, 주요 아시아 경쟁국가들과의 가격차 그리고 적은 공급량으로 인해 수출이 정체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수출 감소의 예상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높은 수준의 수출기록을 달성함. 정곡(Milled Rice) 수출은 올해 전체 미국 쌀 수출 감소의 주요 요인임.
- 2003/04년도 조곡(Rough Rice) 수출은 42백만cwt로 연초에 비해 1백만cwt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가 2003/04년도 미국 조곡수출의 최대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됨. 조곡수출은 2003/04년도 미국 쌀수출의 43%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가장 높은 비율임.
- 정곡과 Brown Rice(조곡기준) 수출은 2003/04년도에 53백만cwt가 될 것으로 전망됨. 이는 1년 전에 비해 35% 감소한 수준이며, 수 십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임. 동북아시아와 EU는 미국 정곡(Brown Rice포함)의 가장 큰 시장임. 중동과 남부사하라 아프리카 또한 미국 정곡 수출의 큰 시장임. 미국은 가격미감도가 큰 이 두 시장에서 아시아 쌀 수출국과 심각한 가격경쟁에 직면함.
- 2003/04년도 총 미국 쌀 소비(국내소비, 수출, 잔차 포함)는 219백만

cwt로서 연초에 비해 8% 감소한 수준이며, 국내소비(잔차와 보고되지 않은 운송, 가공, 마케팅 감소분 포함)는 2003/04년도에 124백만 cwt로서 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03/04년도 미국 연말 총 쌀 재고량은 22백만cwt로 전망되는데, 이는 1년 전에 비해 18% 감소한 수준이며 1980/81이래 가장 낮은 수준임. 재고-사용비율은 10%로 1년 전에 비해 11.2% 감소하였으며, 1974/7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임.
- 품종별 연말 재고 수준은 상이함. 장립종 연말재고는 10.4백만cwt로 1995/96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34% 감소함. 중단립종 연말재고는 9.8백만cwt로 1년전에 비해 5% 증가함.

3. 세계 쌀 가격은 적은 공급에도 불구하고 소폭 상승에 그침

- 3년 동안의 지속적인 연말재고 감소와 올해의 전체공급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제 거래 가격은 소폭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사실 국제거래는 2002년 12월 이후 뚜렷한 증가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적절한 수출가능 공급과 약한 수요에 기인함.
- 태국의 쌀 가격은 새로운 판매 부족과 정부의 재고 방출로 인해 늦여름 이후 톤당 몇 달러씩 하락함. 거래가격은 2002년도 후반기와 2003년 초에 인도 수출량 감소에 따라 상승함. 앞으로의 가격은 태국과 베트남이 몇 달 후 수확은 시작하면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2003년도 11월 중순경 태국 방콕에서의 100% Grade B 정곡 수출가격은 전 달에 비해 톤당 1~2달러 하락한 톤당 199달러이며, 이는 1월 달 가격에 비해 5~6달러 낮은 수준임. 2003년도 1월 이후 가격은 톤당 199달러에서 210달러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안정된 가격을 유지하는 것임.

- 베트남 호치밍시의 5% Broken 쌀 가격은 2003년 11월 중순 톤당 196달러를 기록함. 이는 8월초의 가격보다 톤당 15달러 높은 수준이며, 생산량 감소에 따라 상승한 것임.
- 미국 장립종과 비슷한 품질과 규격(No. 2 4% Broken FOB 휴스턴)의 가격은 3월 이후 톤당 120달러이상 올라 320달러를 기록함. 이는 2002/03년도의 기록적인 정곡 수출과 2003/04년도의 생산량 감소에 기인함. 태국산 동일 품질 쌀 가격은 2003년 1월 이후 지속적으로 가격 격차가 벌어져 11월에는 톤당 140달러 차이를 나타냄.
- 세계 쌀 생산은 정곡기준 2003/04년도에 390.6백만톤으로 1년 전에 비해 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408.7백만톤을 기록했던 1999/2000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4% 가량 낮은 수준임. 올해 생산량 증가는 인도가 큰 역할을 함. 다른 수출국으로서는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이집트, 파키스탄, 태국, 우루과이가 풍작을 거둘 것으로 전망됨. 수입국으로는 아시아 최대 수입국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가 2003/04년도에 기록적인 풍작을 거둘 것으로 전망됨. 아시아 이외에는 나이지리아와 브라질이 풍작을 거둘 것으로 기대됨.
- 세계 쌀 소비는 2003/04년도 413.3백만톤으로 1년 전에 비해 1% 안되는 증가를 나타냄. 인도는 소비 증가에 중요한 부분을 수행함. 2003/04년도의 소비는 생산에 비해 23백만톤을 초과하여서 연말재고는 21% 감소하여 83만톤으로 전망됨. 이러한 상황은 3년 연속 연말재고 감소이며, 1983/84년 이후 가장 낮은 재고 수준임. 재고-사용 비율도 1981/8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0.1%로 전망됨. 이러한 낮은 재고 수준에도 불구하고 2003/04년도 남은 기간 중 평년수준의 기후조건을 가정한다면 국제시장에서의 가격은 소폭 상승만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4. 국제 쌀 거래 는 2004년도에 6% 감소할 전망

- 세계 쌀 거래량은 2004년도에 25.5백만톤(정곡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1년 전에 비해 6%이상 낮은 수준이며 2년 연속 감소세임. 사실 2004년도 거래량은 2002년도 27.9백만톤보다 9%정도 적은 수준으로 전망되었으나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브라질,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필리핀등 주요 수입국의 풍작으로 예상치를 밑돌게 됨.
- 2004년도 미국과 인도의 수출부진은 태국, 오스트레일리아,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이집트로부터의 강력한 수출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임. 수입국 측에서는 필리핀, 브라질, 방글라데시, 브라질,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입감소가 이란, 이라크, 말레이시아, 멕시코, 쿠바의 수입을 상쇄할 것으로 전망됨.
- 2003년도 세계 무역 감소는 27.2백만톤으로 3% 가까이 감소함. 인도의 수출감소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저조한 수출, 미국 수출을 상쇄하는 아르헨티나 그리고 베트남, 중국, 이집트로부터의 강력한 수출은 2.5백만톤의 수출감소를 유발함. 주요 수입국 측면에서는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이라크에 의한 수입이 방글라데시와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의 구매 증가를 상쇄하고도 남음.

농업총조사에 의한 농업구조 변화 분석¹⁶⁾

- 농업총조사에서 농가는 생계, 영리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가구를 말함.

농업총조사에 의한 농가 정의의 변천 과정

구 분	농가 정의 내용
1980년 농업조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가구 ①경지 300평 이상 직접 경작 ②고등원예나 특용작물을 100평, 과수나 묘목을 200평 이상 재배 ③대가축(소) 1마리 이상 사육 ④중가축(돼지, 양) 3마리 이상 사육 ⑤소가축(토끼) 40마리 이상 사육, 가금(닭, 오리) 30마리 이상 사육 ⑥꿀벌 5군 이상 사육 ⑦누에씨 12g(1상자) 이상 사육 ⑧연간 총수입중 농업수입이 위의 각호별 수입보다 많은 가구
1990년 농업 총조사	①경지 10a(약 300평)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②시설작물 3a(약 100평), 과수나 묘목은 각각 7a(약 200평) 이상 재배하는 가구 ③대가축(소) 1마리, 중가축(돼지, 양) 3마리, 소가축(토끼), 가금(닭, 오리, 거위, 칠면조) 40마리, 꿀벌 5군 이상 사육하는 가구 ④연간 농업수입이 40만 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는 가구
2000년 농업 총조사	①조사기준 현재 경지 10a(약 300평)이상을 직접 경작하는 가구 ②연간 농축산물의 판매금액이 50만 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는 가구. 단, 판매금액이 50만원미만이라도 조사 기준시점 현재 50만 원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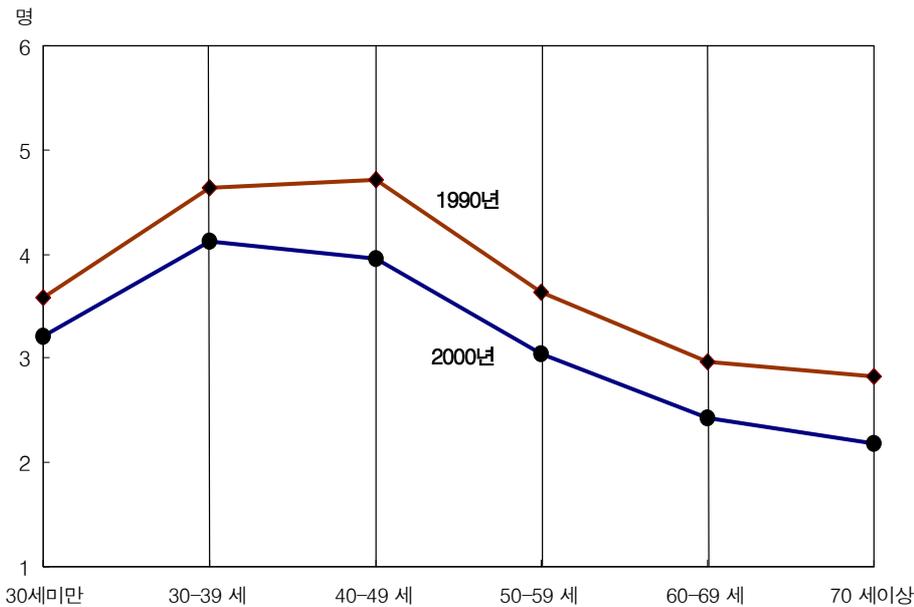
- 여기서 농가의 정의는 조사 시점마다 조금씩 바뀌어 왔으며, 2000년 농업총조사에서는 경지 10a(약 300평) 이상을 직접 경작하는 가구와 연간

16) 이 자료는 농특대책연구단 김정호 선임연구위원(jhkim@krei.re.kr)이 연구책임인 연구보고서 「1990·1995·2000 농업총조사에 의한 농업구조 변화 분석」(연구보고 R45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12)을 요약 정리하여 제공한 것임.

농축산물의 판매금액이 50만 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는 가구임. 또한 1995년까지는 조사대상을 개인농가와 준농가(학교, 정부기관, 종교단체, 기업체, 기타)로 구분하였으나, 2000년부터는 개인농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농가의 가구원 수는 2000년 현재 2.91인으로 도시 가구의 3.32인보다 적은 실정임. 이러한 가구원 수는 가계의 소비 단위인 동시에 농업경영의 생산 단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가족 생애주기(family life cycle)에 따라 변동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농업총조사 분석 결과, 1990년에는 경영주의 연령이 45세 무렵일 때 가구원 수가 4.7명이었으나, 2000년에는 35세 경일 때에 4.1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농가의 생애주기가 단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경영주 연령별 농가의 가구원 수



자료: 해당 연도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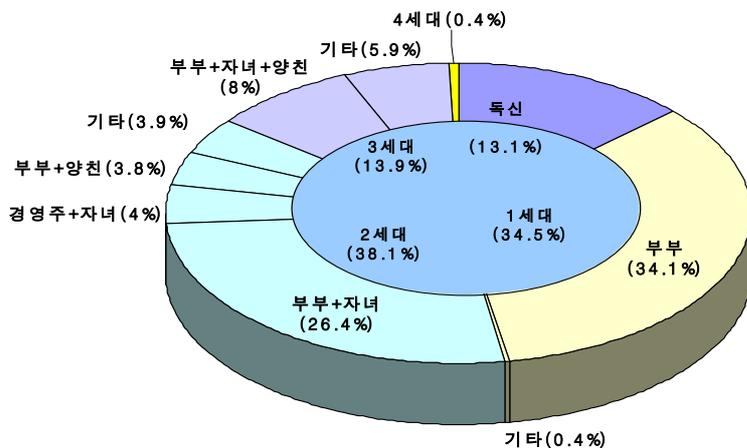
경영주 연령별 농가의 가구원 수

구 분	단위: 명	
	1990년	2000년
30세 미만	3.58	3.21
30~39세	4.64	4.12
40~49세	4.72	3.96
50~59세	3.64	3.04
60~69세	2.97	2.43
70세 이상	2.83	2.18

자료: 해당 연도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에 의함.

-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농가는 경영주 부부와 자녀가 동거하는 2세대 가구 또는 경영주가 양친을 모시고 사는 3세대 가구가 주된 형태였으나, 농가 인구의 감소와 함께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가족구성별 농가 분포(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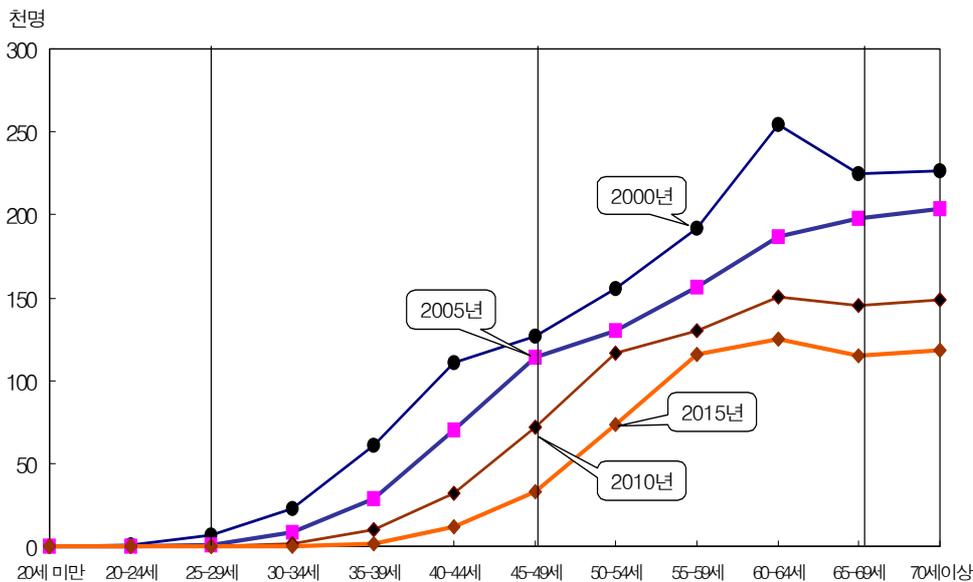
자료: 2000년도 농업총조사의 원자료 분석에 의함.

- 2000년 현재 138만 농가 중에서 '부부+자녀' 형태의 가구는 50대가 11만 8천호(32.6%)로 가장 많고, 부부 세대는 60대가 22만 5천호

(47.7%)로 가장 많으며, 독신 세대는 60대가 8만 1천호(45.1%)를 차지하고 있음. 이와 같이 경영주의 고령화와 함께 농가의 가구 형태가 점차 부부 혹은 독신 가구로 변모해 가는 경향임.

- 농업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1990년 53.4세에서 2000년 58.7세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추세이며, 65세 이후부터 경영 은퇴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경영주 연령별 분포에 의한 코호트 분석(Cohort component method)을 시도한 결과, 신규 진입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농업 경영주 수(=농가 호수)는 2005년 110만 명, 2010년에는 81만 명, 2015년에는 60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됨.

연령별 농업 경영주의 전망



자료: 1990, 1995, 2000년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에 의함.

연령별 농업 경영주의 예측

단위: 명

연 도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69세	70세 이상	합 계
2000	7,270	84,246	237,737	348,067	254,390	225,095	226,663	1,383,468
2005	1,220	36,997	183,551	286,621	186,582	198,031	203,292	1,096,295
2010	146	12,144	104,181	246,470	150,474	145,189	149,069	807,674
2015	124	1,989	45,334	188,937	124,699	114,958	124,012	600,053

자료: 1990, 1995, 2000년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에 의함.

- 영농 승계자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의 비율은 1990년 16.4%, 1995년 13.1%, 2000년 11.0%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이나, 실질적인 후계자에 해당하는 30세 이상의 후계자 비율이 미미하나마 높아지고 있음. 또, 1990년까지는 남자 후계자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들어 여자 후계자가 증가하고 있음. 영농 형태별로는 과수, 논벼, 축산, 화훼 등의 순으로 승계자가 많으며, 가구원 수가 많은 대농일수록 후계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업농가보다는 겸업농가에서 영농 후계자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향으로 나타남.

영농승계자 거주지 및 연령별 농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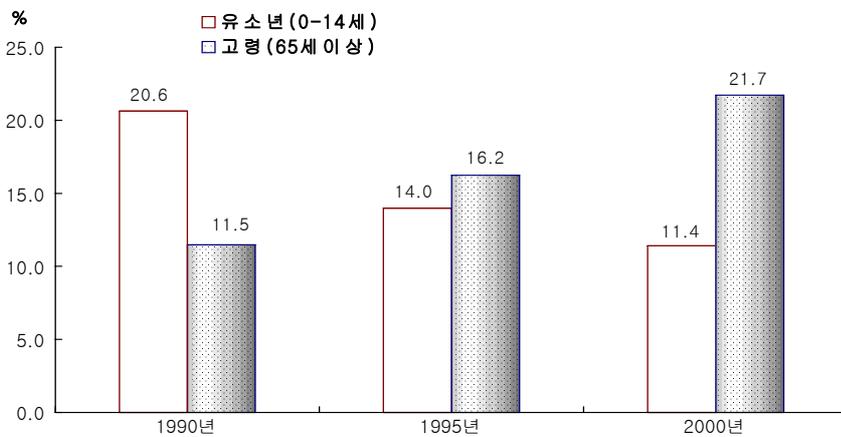
단위: 호, %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전 체	1,767,033	100.0	1,500,745	100.0	1,383,468	100.0
영농승계자 없는 가구	1,477,513	83.6	1,304,315	86.9	1,233,015	89.1
영농승계자 있는 가구	289,520	16.4	197,161	13.1	151,503	11.0
- 15~19세 후계자	67,389	3.8	25,348	1.7	16,237	1.2
- 20~29세 후계자	158,276	9.0	85,237	5.7	54,386	3.9
- 30세 이상 후계자	63,855	3.6	86,576	5.8	80,880	5.9

자료: 해당 연도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에 의함.

- 2000년 현재 농가 인구의 연령 구조를 보면, 전국 평균 고령화지수(34.3)보다 5배 이상인 191, 전국 평균 노년부양비(10.1)보다 3배인 32.5를 나타내고 있음. 노년부양비는 15~64세 인구에 대한 65 이상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수이므로, 전국 평균으로는 생산가능인구 약 10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지만, 농가의 경우에 생산가능인구 약 3명이 노인 1인을 부양해야 하는 수준으로 노인 인구에 대한 복지 수준은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유소년 및 고령 농가인구 비율 추이



자료: 해당 연도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에 의함.

유소년, 청장년 및 고령 농가인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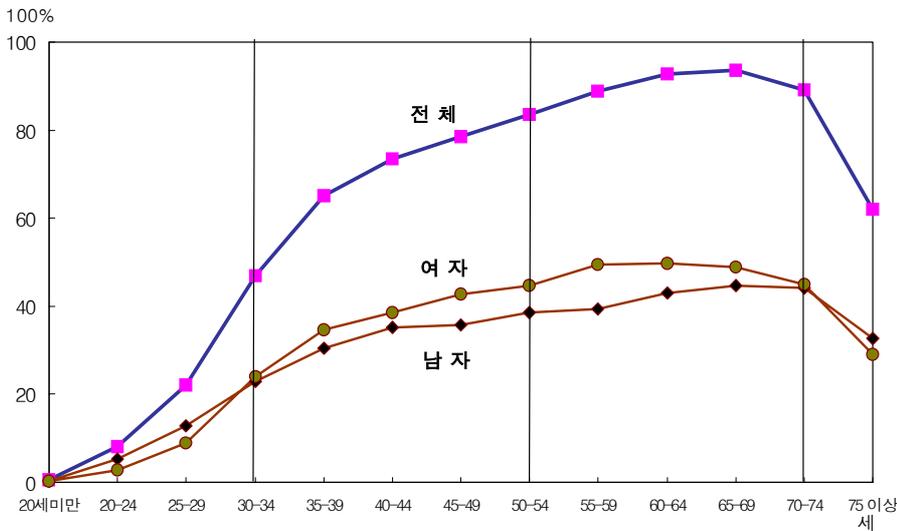
단위: 인, %

연도 \ 구분	1990년		1995년		2000년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합 계	6,661,322	100.0	4,851,080	100.0	4,031,065	100.0
0~14세	1,370,335	20.6	680,232	14.0	458,775	11.4
15~64세	4,521,790	67.9	3,386,147	69.8	2,696,281	66.9
65세 이상	769,197	11.5	784,701	16.2	876,009	21.7
고령화지수	56.1		115.4		190.9	
노년부양비	17.0		23.2		32.5	

주: 고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 / 0~14세 인구 * 100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 농가의 평균 농업 종사자 수는 1990년 2.40명에서 1995년 2.20명, 2000년 2.05명으로 감소하였으며, 농업 종사자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는 추세임. 즉 50세 이상 가구원의 85%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60대 연령층은 9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함으로써 고령 농가를 형성함. 2000년 현재 전업농가의 농업 종사자는 1.95명이고 겸업농은 2.16명으로 겸업농이 많으나, 겸업농가는 고령의 농업 종사자가 많은 상태임.

농가인구에 대한 농업종사자 비율(2000년)



자료: 2000년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에 의함.

연령별 농가인구와 농업종사자 수(2000년)

단위: 천명

구분	합계	20미만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69	70-74	75이상
농가인구	4,031.1	720.8	219.8	197.4	155.3	196.8	259.9	271.7	306.6	369.7	457.0	389.0	236.0	251.0
종사자	2,408.4	3.9	17.9	43.3	72.8	128.1	191.1	213.3	256.0	328.4	424.0	363.7	210.4	155.4
남자	1,144.5	2.5	11.7	25.5	35.4	59.8	91.2	97.5	118.5	145.4	196.9	173.6	104.3	82.2
여자	1,263.9	1.4	6.2	17.8	37.4	68.4	99.9	115.8	137.5	183.0	227.1	190.1	106.2	73.2

자료: 그림 5와 같음.

- 2000년의 농가 인구는 403만 명인데 2005년에는 318만 명 그리고 2010년에는 238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됨. 유소년(0~14세) 인구는 2000년 11.4%에서 2010년에는 9.3%로 하락하고, 청장년 생산인구(15~64세)도 2000년 66.9%에서 2010년에는 56.7%로 하락하는 반면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00년 21.7%에서 2010년에는 34.0%로 예측됨. 인구 피라미드를 통하여 2010년 농가 인구의 연령별 구성을 보면, 70세 계층이 최빈수를 나타내면서 50~70세 계층이 두꺼운 벽을 형성하는 ‘역삼각형’ 형태로 이행하는 추세임.

농가인구의 장래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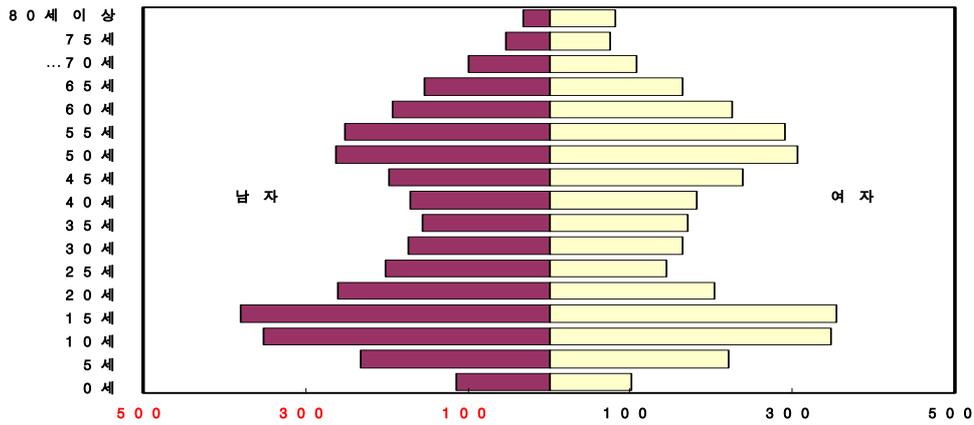
단위: 천명

연 도		2000년	2005년	2010년
연령 · 성별				
전 체	합 계	4,031 (100.0)	3,176 (100.0)	2,375 (100.0)
	남 자	1,971	1,554	1,159
	여 자	2,060	1,621	1,215
유소년 (0~14세)	합 계	459 (11.4)	306 (9.6)	221 (9.3)
	남 자	242	162	115
	여 자	217	144	105
청장년 (15~64세)	합 계	2,696 (66.9)	1,933 (60.9)	1,347 (56.7)
	남 자	1,338	978	691
	여 자	1,359	955	656
노 년 (65세 이상)	합 계	876 (21.7)	937 (29.5)	807 (34.0)
	남 자	392	415	353
	여 자	484	522	4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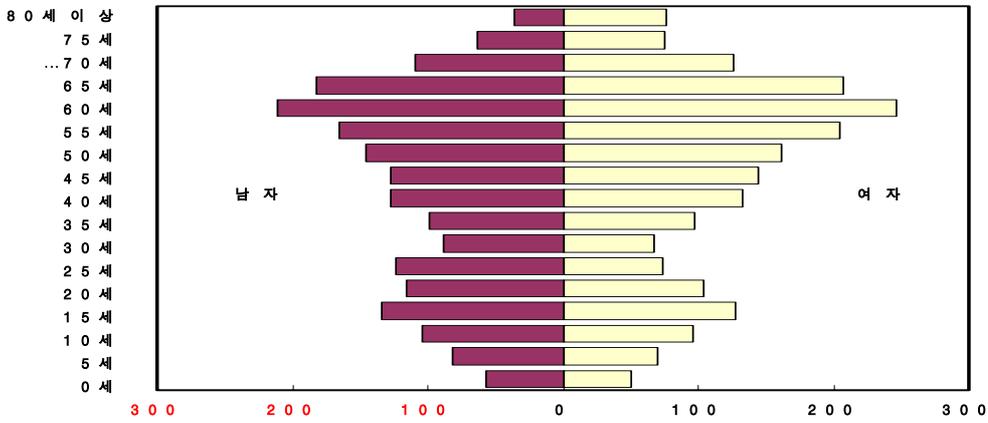
자료: 1990, 1995, 2000년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에 의함.

농가인구 연령별 · 성별 추이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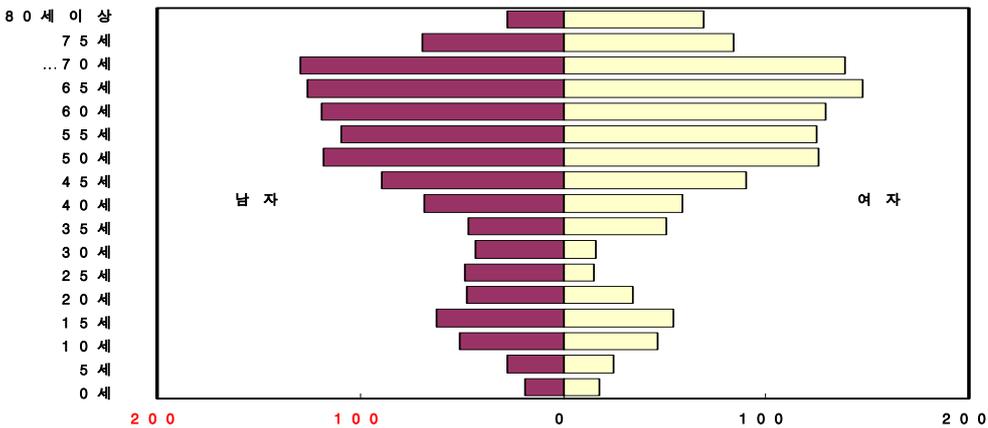
1990년



2000년



2010년



- 농가의 경지규모별 구성비를 보면, 0.5ha 미만 계층과 2ha 이상 계층은 비율이 증가하는 반면, 0.5~1ha 계층과 1~2ha 계층은 비율이 감소하면서 양극화 경향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음. 또, 대규모 농가로의 경지집중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예를 들어 논 2ha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는 1990년에 호수로 4.7%, 면적으로 16.9%를 차지하였으나, 2000년에는 호수 비율이 8.4%, 면적 비율이 32.3%로 증가하였음.

표 8. 경지규모별 농가 분포 및 연평균 변화율

단위: 천호, %

경지규모 연도	0.1ha미만	0.1~0.5ha	0.5~1.0ha	1.0~2.0ha	2.0~3.0ha	3.0ha이상	계
1990년	15 (0.8)	468 (26.5)	544 (30.8)	543 (30.7)	130 (7.3)	44 (2.5)	1,767 (100.0)
1995년	16 (1.1)	417 (27.8)	432 (28.8)	418 (27.8)	123 (8.2)	70 (4.7)	1,501 (100.0)
2000년	30 (2.2)	410 (29.7)	379 (27.4)	352 (25.4)	114 (8.2)	85 (6.1)	1,383 (100.0)
1990~1995	1.25	-2.16	-4.13	-4.61	-0.95	12.36	-3.14
1995~2000	18.49	-0.33	-2.47	-3.18	-1.55	4.05	-1.56
1990~2000	10.44	-1.23	-3.05	-3.53	-1.21	9.46	-2.17

논 경영규모별 농가 및 면적의 누적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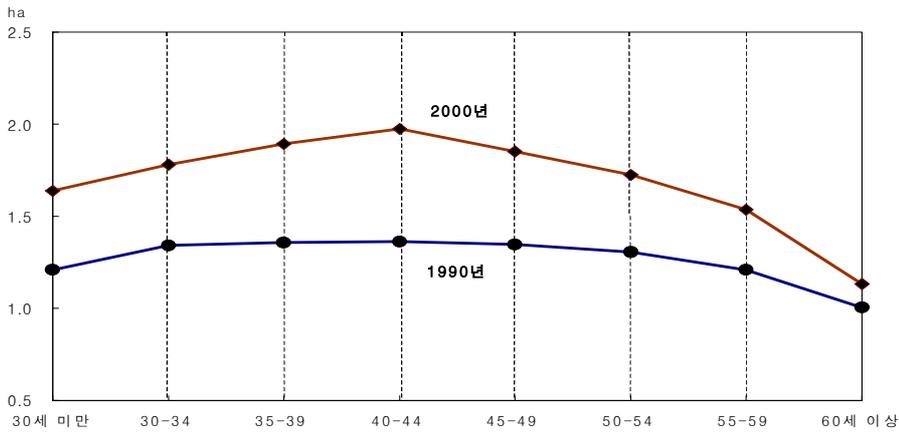
단위: %

연도 경영규모	1990년		1995년		2000년	
	호수	면적	호수	면적	호수	면적
실수합계	1,508천호	1,194천ha	1,205천호	1,054천ha	1,078천호	999천ha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5ha 이상	59.6	84.3	58.8	85.6	57.8	86.2
1.0ha 이상	25.7	53.1	27.4	59.4	27.2	61.6
1.5ha 이상	10.7	29.9	13.8	40.2	15.4	45.7
2.0ha 이상	4.7	16.9	7.4	27.6	8.4	32.3
3.0ha 이상	1.2	6.2	2.8	14.8	3.8	20.0

자료: 해당 연도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에 의함.

○ 차야노프(A.V.Chayanov)는 농가의 가구원 수와 경작규모와의 상관관계가 높다고 입증한 바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농가의 경지규모가 늘어나는 가구원 수가 늘어나며, 농업 종사자보다는 가수원 수가 더 많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또, 2000년 농업총조사에 의하면 경영주 연령이 40~44세 때에 호당 평균 경지규모가 1.98ha까지 증가하다가 그 후의 연령 계층에서는 점차 줄어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농업 경영주 연령과 경지규모의 관계



농업 경영주 연령별 호당 평균 경지규모

단위: ha

연령	1990년			2000년		
	합계	논	밭	합계	논	밭
전체	1.21	0.79	0.42	1.42	0.92	0.50
30세 미만	1.21	0.76	0.45	1.64	1.04	0.60
30~34세	1.34	0.84	0.50	1.78	1.08	0.70
35~39세	1.36	0.85	0.51	1.89	1.18	0.71
40~44세	1.36	0.88	0.49	1.98	1.24	0.73
45~49세	1.35	0.88	0.47	1.85	1.16	0.69
50~54세	1.31	0.86	0.44	1.72	1.11	0.61
55~59세	1.21	0.81	0.40	1.54	1.00	0.54
60세 이상	1.01	0.67	0.34	1.14	0.76	0.38

자료: 해당 연도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에 의함.

- 2000년 현재 60세 이상 경영주의 보유농지는 65만ha(그 중 70세 이상은 15.8만ha)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특히 60세 이상 ‘독신+부부’나 단독 농가의 보유농지는 41만ha로서, 이들 고령 경영주는 2010년 무렵까지 자연 은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농지 유동화가 빠르게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경영주연령별 경지규모별 농가 분포(2000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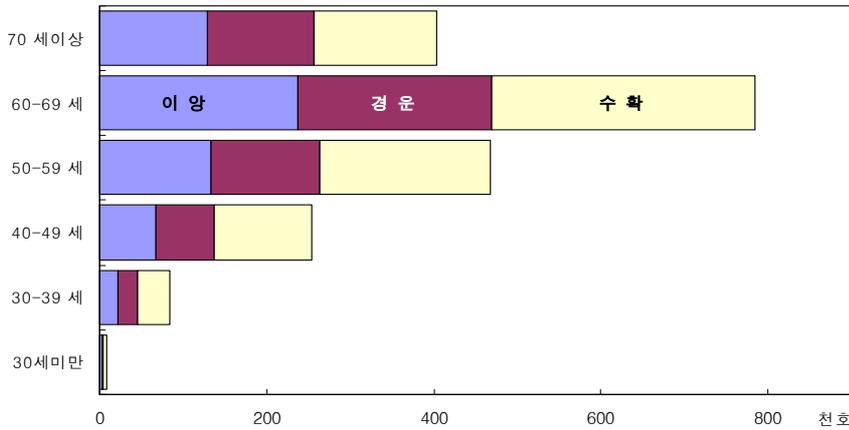
	0.5ha미만	0.5~1ha	1~2ha	2~3ha	3~5ha	5ha이상	합 계
39세이하	2.1	1.6	1.5	0.6	0.4	0.2	6.5
40~49세	4.7	4.0	4.3	1.9	1.4	0.6	17.1
50~59세	6.7	6.4	7.2	2.8	1.5	0.5	25.1
60~69세	10.6	10.5	9.9	2.5	0.9	0.3	34.8
70세이상	8.1	5.1	2.7	0.4	0.2	0.1	16.5
합 계	32.2	27.7	25.7	8.3	4.5	1.7	100.0

주: 경지 있는 농가만 집계(1,369,298호)

자료: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

- 농작업의 전부를 남에게 맡기는 전부위탁이 증가하는 경향임. 대체로 영농규모가 작은 영세농가의 위탁영농 비율이 높으며, 예를들어 0.5ha 미만 계층에서 탈곡 작업을 전부 위탁하는 농가가 11.4%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또, 경영주가 고령화될수록 위탁영농의 비율이 높아져 60~69세 연령층에서 최고조에 달하다가 70세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임. 2000년 현재 경운 작업을 전부 위탁하는 농가의 비율은 54.7%이고, 이앙 작업을 전부 위탁하는 비율은 54.4%, 방제작업을 전부 위탁하는 비율은 25.5%, 수확작업을 전부 위탁하는 비율은 76.8%, 탈곡작업을 전부 위탁하는 비율은 77.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경영주 연령별 위탁영농(전부위탁) 농가 수(2000년)



자료: 2000년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에 의함.

논 경영규모별 위탁(전부위탁) 농가 수 및 비율(2000년)

단위 : 호, %

구분	논벼농가 수	전작업	논갈이	모내기	농약살포	벼베기	탈곡
0.5ha 미만	456,913 (42.4)	153,071 (4.6)	300,518 (8.9)	321,101 (9.5)	163,500 (4.9)	376,660 (11.2)	384,544 (11.4)
0.5~1ha	329,181 (30.6)	70,366 (2.1)	181,579 (5.4)	183,130 (5.4)	78,799 (2.3)	262,906 (7.8)	266,016 (7.9)
1~2ha	201,409 (18.7)	22,094 (0.7)	87,555 (2.6)	68,849 (2.1)	27,282 (0.8)	145,413 (4.3)	146,694 (4.4)
2~3ha	49,461 (4.6)	2,416 (0.1)	14,507 (0.4)	8,919 (0.3)	3,441 (0.1)	28,153 (0.8)	28,328 (0.8)
3~4ha	21,141 (2.0)	560 (0.02)	3,884 (0.1)	2,546 (0.1)	941 (0.03)	8,928 (0.3)	8,982 (0.3)
4~5ha	8,080 (0.8)	126 (0.01)	1,023 (0.03)	705 (0.02)	216 (0.01)	2,634 (0.1)	2,643 (0.1)
5ha 이상	11,457 (1.1)	137 (0.01)	836 (0.02)	747 (0.02)	247 (0.01)	2,530 (0.1)	2,530 (0.1)
합계	1,077,642 (100.0)	248,770 (7.4)	589,902 (17.5)	585,997 (17.4)	274,426 (8.2)	827,224 (24.6)	839,737 (24.9)

주: 전작업은 모든 작업을 전부 위탁하는 경우임.

자료: 2000년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에 의함.

- 2000년 현재 138만호 농가의 영농 형태별 분포를 정리하면, 논벼 56.9%, 채소 17.2%, 과수 10.4%, 일반 밭작물 6.6%, 축산 5.2%, 특용작물 2.7%, 기타 0.3% 등의 순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논벼, 과수, 채소 등의 경종농업이 증가 경향을 나타냄. 또, 농업경영의 규모 확대가 진전되면서 대농층으로 농지와 가축 등의 자원이 집중되고 있으며, 시설원예와 축산 등의 자본집약형 농업은 전업농가에 의한 생산 집중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음.

경영규모별 농가 및 경영규모 누적비율

단위: %

연도 경영규모	1990년		1995년		2000년	
	호수 비율	면적 비율	호수 비율	면적 비율	호수 비율	면적 비율
논 2ha 이상	4.7	16.9	7.4	27.6	8.4	32.3
밭 1ha 이상	7.9	33.2	10.7	41.3	10.6	45.2
과수원 1ha 이상	10.5	38.2	13.6	42.9	14.1	44.3
시설 2천평 이상	6.1	25.5	12.4	38.3	10.5	47.1

연도 경영규모	1990년		1995년		2000년	
	호수 비율	두수 비율	호수 비율	두수 비율	호수 비율	두수 비율
한우 20두 이상	1.1	14.1	4.4	28.6	6.5	49.9
젓소 50두 이상	1.7	8.7	6.0	18.9	26.4	54.1
돼지 1천두 이상	0.2	13.3	2.2	27.7	9.8	62.1
닭 1만수 이상	1.8	59.2	3.1	76.8	2.7	94.1

자료: 해당 연도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에 의함.

2003년 4/4분기 농정이슈와 여론동향¹⁾

1. 개요

- 노무현 대통령은 11월11일 제8회 농업인의 날 기념연설을 통해 농업 발전과 농민의 복지를 위해 내년부터 5년간 51조원을 우선 투입하는 등 향후 10년간 총 119조원 규모의 투융자 계획을 발표하고, 한-칠레 FTA 국회 비준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이날 119조원 투융자 계획 발표에 대해, 일부 언론은 개방에 대비해 필요한 대책이라고 평가했으나, 다수의 언론 보도논조는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앞서 119조원이라는 막대한 투융자 계획을 먼저 발표한 것에 우려를 표시하고, 구체적인 경쟁력제고 방안 마련과 예산집행의 철저한 사후관리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문하였음.
- 특히, 경제지를 중심으로 한 중앙언론들은 농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민간자금이 자연스럽게 농촌으로 흘러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농지제도 개편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농민단체를 비롯한 농업계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는 여론이 비등하였음.
- 119조원을 투융자 계획 이틀만인 11월13일 농업시장 개방을 반대

1) 이 자료는 김동원 전문연구원(dongweon@krei.re.kr)이 3/4분기 동안의 주요 농정 이슈를 중심으로 언론 보도쟁점, 유관기관 동향, NGO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임. 이 자료의 기초가 되는 「농업관련 주간 여론동향」은 매주 월요일 발행되며, 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ei.re.kr>)에서 볼 수 있음.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해 오던 전국농민단체협의회(농단협)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조건부 지지 의사를 밝힌데 이어 11월17일 농협도 지지를 선언하면서 국회에 상정돼 있는 한-칠레 FTA 비준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되었으나, 전국농민연대와 농촌출신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진통을 겪었음.

- 12월26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비준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연내처리 가능성이 전망되기도 했지만 본회의에 상정기로 한 12월29일 농림해양수산위에서 ‘先 설득 後 처리’ 방침을 주장하며 FTA 이행특별법 처리를 미루고 12월30일 본회의에서도 농촌출신 의원들의 반발로 처리가 무산됨으로써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은 해를 넘기게 되었음.
- 지난 9월 WTO 칸쿠회의 결렬이후 진전이 없었던 국제 농업협상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12월 중순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서도 별다른 소득없이 내년 초 DDA 협상을 재개기로 하고 폐막되었고, <연합> 등은 내년 하반기 홍콩에서 열릴 예정인 제6차 WTO 각료회의까지 협상에 획기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협상시한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하였음.
- 12월 중순부터 국내에 조류독감이 발생해 닭값 하락 등 축산농가와 관련업계 피해가 확산된 가운데, 12월 하순에는 미국 워싱턴주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서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축산물 수급 파동 우려가 제기되었고, 언론들은 방역과 검역 등 축산물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음.
- 허상만 농림부장관은 12월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쌀 재협상은 내

년 9월까지 윤곽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기본입장은 관세화 유예이지만 다만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율관세할당(TRQ)물량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조선> 등 일부 언론은 정부가 쌀 관세화를 수용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고 보도하면서 농림부가 해명자료를 내는 등 쌀 관세화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

- 지난 10월 9.15 작황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농림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1월14일 전국 9,000개 표본 필지를 대상으로 올해 쌀 생산량 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보다 9.7% 줄어든 3,091만 섬에 그쳤다고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쌀 수급 전망에 대한 논란도 있었음.

2. 주요 이슈와 여론

2.1. 정부, 농업·농촌에 향후 10년간 119조 투융자

- 노무현 대통령은 11.11일 제8회 농업인의 날 기념연설을 통해 농업 발전과 농민의 복지를 위해 내년부터 5년간 51조원을 우선 투입하는 등 향후 10년간 총 119조원 규모의 투융자 계획을 발표하고, 한-칠레 FTA 국회 비준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함.
- 노 대통령은 “올해 말까지 농업발전과 농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향후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며 “앞으로 10년간 119조원 규모의 투융자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히면서 “우선 51조원을 내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의 정부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노 대통령은 이날 “농특세 연장이나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에 대해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 농업예산 확충과 부채경감대책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으나, 대선 공약인 농업예산 국가전체예산의 10%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지키기 어렵다고 밝혔음.
- 이날 119조원 투융자 계획 발표에 대해, 일부 언론은 필요한 대책이라고 평가했으나, 대다수 언론들의 보도논조는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앞서 119조원이라는 막대한 투융자 계획을 먼저 발표한 것은 경쟁력 확보에 실패한 UR대책과 흡사하다고 비난하면서, 구체적인 경쟁력제고 방안 마련과 예산집행의 철저한 사후관리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경제지를 중심으로 한 언론들은 농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게 해준다면 민간자금이 자연스럽게 농촌으로 흘러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농지제도 개편을 강하게 주장하였음.
- 농민단체를 비롯한 농업계에서는 농촌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정부가 서둘러 119조원 투융자계획을 밝힌 것은 한-칠레 FTA 비준 처리를 위한 여론조성용이라는 상반된 평가가 있었으며, 농업계 의견이 반영된 농업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음.

□ 분야별 투융자방향...농업 체질강화 중점 투자

- 향후 10년간('04~'13) 총 투융자 규모는 119조원 수준이며, 향후 5년간('04~'08) 총 투융자 규모는 51조원 수준임. 농업 구조를 전업농 중심으로 재편하고, 경쟁에서 탈락하는 농가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의 체질을 강화하는데 중점 지원되며, 이를 위한 투융자 비중도 '03년 32%에서 '08년 38%로 확대할 계획.
- FTA, DDA협상, 쌀재협상 등 개방화의 영향으로 인한 농가소득 하락 및 경영불안에 적극 대비하여 직접지불제, 재해보험 확대, 경영회생지원 등을 위한 투융자도 '03년 20%에서 '08년 28%로 늘려나가는 한편, 직접지불제 예산비중은 '07년까지 농업예산의 20%이상으로 확대.
-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어민연금,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제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교육·의료 등 복지서비스, 농촌종합개발 등을 위한 투융자 비중을 '03년 7%에서 '08년 14%로 높일 방침.

향후 5년간 분야별 투융자 규모 및 비중

(단위 : 십억원, %)

분 야 별	2003		2008		'04~'08		연평균 증감율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7,704	100.0	11,391	100.0	50,514	100.0	7.8
○ 농업 체질강화·경쟁력 제고	2,439	31.7	4,248	37.6	18,453	36.5	11.4
○ 소득 및 경영안정 강화	1,556	20.2	3,136	27.5	12,924	25.6	12.6
※ 직접지불 사업	671	8.7	2,592	22.8	9,245	18.3	31.7
○ 농촌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	557	7.2	1,578	13.9	6,140	12.2	19.0
○ 농산물 유통개선	637	8.3	1,017	8.9	4,999	9.9	2.7
○ 농업생산기반 정비	2,515	32.6	1,376	12.1	7,998	15.8	△9.1

□ 언론 보도 논조...“구체적인 투융자 계획 및 사후관리 방안 제시해야”

- 언론들은 11월11일 농업인의 날에 발표된 119조 투융자 계획에 대해 ‘급조’, ‘선심’, ‘장미빛’, ‘나뉘먹기식’ ‘쫓아붙기식’ ‘땀질처방’ 등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논조를 보였음.
- 하지만 <중앙>과 <매경>은 이번 계획이 기본적으로 개방에 따른 충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선대책 후개방’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은 일단 바람직하다며, 농촌에 대한 정부의 자금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투융자 계획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언론들의 부정적인 논조 배경은, <조선>, <동아> 등 대부분의 신문이 연말까지 농업농촌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앞서 막대한 예산 투융자 계획을 먼저 발표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처럼 정책이 줄속으로 수립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쟁력 제고에 실패했던 UR대책의 전

철을 밟을 수 있다고 우려하였음.

- <경향> 등은 특히, 투융자가 사업의 경제성을 엄격히 따져보고 차주의 신용도를 철저히 심사한 다음 투자와 융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집행의 효율화와 사후관리를 강조하였고, <한경>은 ‘농업’ 보다는 ‘농촌’을 살리는 쪽으로 농정의 무게중심을 과감히 옮겨야 한다고 주문하였음.
- <중앙> <한경> 등은 농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시장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게 해준다면 민간자금이 자연스럽게 농촌으로 흘러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농지규제 완화를 촉구하였고, <매경>은 농업진흥지역도 일부를 시대 상황에 맞춰 타용도로 전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매경>은 또 일단 ‘농업’에서 ‘농촌’으로 정부가 큰 흐름은 잘 잡았지만, 지나치게 투융자 규모를 늘리는 바람에 농업생산력 강화 관련 예산은 부족해 ‘지혈과 봉합 정책’일뿐 ‘재도약 정책’은 못된다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 <조선> <한경>은 정부는 예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민간자본 활용방안을 비롯해 좀더 현실성 있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민간자본의 농촌유치 전략을 주문하였음.
- <서경>은 청와대·농림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뚜렷한 재원대책 없이 농촌지원 대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며, 정치권과 정부가 내년 총선 때 농민 표를 겨냥한 선심성 농업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농업정책이 정치논리에 따라 왜곡·변질돼 시장개방 등으로 가뜩이나 위기에 몰린 농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난

함.

- 한편, <한겨레>는 정부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농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그들의 의사를 모으도록 해야한다며, 지금까지 해왔듯이 계속해서 농민들을 농정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여기는 한 농정은 농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정책수립에 농민의사 반영을 강조함.
- <농민신문>은 이번 발표에 대해 농민들이 ‘농촌발전에 새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농민단체 의견 수렴과 소득·복지에 역점되어야 한다고 주문하였고, <농어민신문>은 임기 내 51조원만 반영하고 나머지 68조는 ‘허수’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농민들이 요구하는 농가소득보장 보다는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에 예산이 집중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 **농업계 전문가 의견...“엄격한 심사 거쳐 재원 집행해야”**
 - 이정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조선일보 11.12> “정부는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마련해 철저하게 집행하고, 농민은 정부지원에 기대지말고 스스로 경쟁력을 높여 시장원리에 따라 농업을 경영해야 한다”고 주문.
 - 정영일 서울대 교수= <조선일보 11.12> “농정의 기본틀과 정책방향 구태, 농업·농촌기본법 제정을 통해 농정의 나침반 장착하고, 농림부와 농특위를 포함해 정책 입안 및 집행기구의 전면적인 개편 필요” 지적.
 - 양승룡 고려대 교수= <조선일보 11.12> “UR경험 되풀이 않기 위

해서는 엄격함 심사 거쳐 재원을 집행하는 시스템 갖춰야” 강조.

- 최세균 KREI 연구위원= <동아일보 11.12> “개인에게 너무 많은 지원금 나가는 것은 위험 부담 커 수익성 확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투융자 조절해야” 지적.
- 한두봉 고려대 교수= <동아일보 11.12> “확정되지 않은 분야별 예산은 국회 등에서 반드시 검증절차 거쳐야” 강조.
- 성진근 충북대 교수= <조선일보 11.13> “정부는 모든 농업부문을 다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경쟁력 있는 부문에 재원을 집중 투자하는 정책 필요” 주문.
- 김태곤 KREI 부연구위원= <매일경제 11.12> FTA 등 앞으로 시장 개방 매우 빠른속도로 이뤄질텐데 연평균 12조원 규모 자금으로 농가손실 보전에 충분치 않아” 주장.
- 민승규 삼성경제연구소 박사= <매일경제 11.12> “기존 농업관련 예산 감안하면 전체 자금지원 규모는 119조원이 아닌 10조원에 불과” 평가.

□ KREI, ‘목표소득직접지불제’ 도입 등 농정비전 제시

- <파이낸셜뉴스 12.3>는 12월3일자 인터넷판 보도를 통해 11월2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정부에 제출한 ‘농업·농촌의 비전과 농정’ 보고서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하면서, 이 보고서가 ‘농정로드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하였음.

- 보도에 따르면, 농업·농촌 문제의 현실과 과제, 비전과 농정 패러다임, 정부 역할과 주요 과제 등 크게 3단락으로 나누어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이 보고서는 12월말께 나올 향후 10년간 농정의 뼈대가 될 ‘농업·농촌 종합대책안’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쳐 정책에 반영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고 평가함.
- 농경연은 이 보고서를 통해 지난 94년 이후 지난 2002년까지 농업의 생산성은 늘었지만 소득은 감소하는 ‘성장파 소득의 괴리’ 현상이 발생했다고 분석하면서, ‘목표소득직접지불제’, ‘농업인상해보험’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농업은행’ 설립 등을 제안하였음.
- 농경연은 우선 시장개방의 영향은 고관세품목인 고추와 마늘, 수입이 금지됐던 쌀, 사과, 배 등에서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는데, 쌀, 고추, 마늘은 관세인하로 30~40%, 사과와 배는 수입금지해제로 각각 10~30% 가량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분석.
 - ⇒ 따라서 쌀·고추·마늘·사과·배 등 5개 품목을 대상으로 단위면적당 조수입을 보장하는 ‘목표소득직접지불제’의 도입을 권고.
- 또, 상해위험에 대비해 산업보험 수준의 ‘농업인상해보험’을 도입하고, 농업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출자제한도 폐지하는 한편, 법인의 농지소유제한 규정도 없애야 한다고 지적.
- 신용 및 경제사업의 분리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농협개혁은 산지농협의 경제사업기능은 산지유통센터로, 신용사업은 중앙회와의 지급보증에 의한 가칭 ‘농업은행’으로 각각 통합하는 안을 제시.

- 축산 등 농업생산 활동으로 인해 야기되는 환경부하 문제의 관리도 시급한 현안으로 지목하고, 수계별, 지역별로 환경부하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농업생산활동이 이뤄지도록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하였음.
- 농업인 사회보험 역시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일정비율을 직접 지불방식으로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 연금보험료는 보험료의 50%, 건강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실제 가입자 수에 따라 농업예산에서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
- **농특위 10차 본위원회…‘시장지향’ 표현 등 논란**
 - 농어업특위는 12월17일 제10차 본위원회 개최하고, 장원석 위원장이 제출한 ‘농업·농촌종합대책추진방안’과 ‘수산업·어촌종합대책추진방안’을 의결했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제출한 ‘농업·농촌종합대책 실천방안 연구’도 보고됨.
 - 위원 29명중 농민단체 등이 빠져 18명이 참석한 이날 본위원회에서는 ‘농업·농촌 종합대책(안)’의 정책 틀 부분 중 ‘시장지향 농업정책’, ‘전업농 중심 지원’ 표현에 대해 농업계와 비농업계의 견해 차이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2.2.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 연내처리 무산

- WTO 뉴라운드의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는 자유무역협정(FTA)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한-칠레 FTA를 비롯한 FTA 확대 여론이 비등하였음. 노무현 대

통령도 자유무역협정(FTA)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한국도 과감하게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FTA 적극 추진 의지를 보였다.

- 하지만 일반 산업계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한-칠레 FTA 비준은 농민단체의 강한 반발과 농촌출신 의원들의 반대로 12월30일 국회에서 최종 처리가 무산됨으로써 FTA 비준 논란은 2004년으로 해를 넘겨 계속될 전망이다.

□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 처리 놓고 진동

-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12월26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2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가결, 국회 본회의로 넘겨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12월30일 농촌출신 의원들의 반발로 끝내 처리가 무산되었음.
- 이에 앞서 통외통위는 한-칠레 FTA발효시 농민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FTA 이행특별법안 등 4대 특별법안과 같은날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처리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으나, 농림해양수산위가 FTA 이행 특별법안의 심의를 유보하면서 비준동의안 연내 처리 무산 관측이 집중적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음.
- 언론들은 비준동의안이 관련상임위에서 먼저 처리되면 이행법을 심의하겠다고던 국회 농해수위는 비준 동의안이 통일외교통상위에서 통과된데도 불구하고, 12월29일 전체회의에서 “농민단체들을 설득해야 한다”며 ‘선(先)설득, 후(後)처리’로 입장을 바꿔 이행법안 상정을 보류함으로써 한-칠레FTA 이행특별법의 연내 국회 처리도 물건너 갔다고 분석하였음..

- 이날 회의에서는 당적을 떠나 도시출신 의원들은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FTA비준안 처리시 국가신인도에 미칠 영향 등을 주장하며 즉시 처리할 것을 주장한 반면, 농촌 출신의 의원들은 농업과 농민에게 미칠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며 선(先) 4대 특별법안 처리 또는 특별법안과 동시처리를 요구, 도-농간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낸 것으로 보도됨.

□ **언론, “통과여부 불투명” 관측…농민단체 저항**

-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이 12월26일 통일외교통상위에서 가결되면서 농림해양수산위에 계류돼 있는 FTA이행특별법의 처리 여부가 관심을 끈 가운데, 농해수위가 12월29일 전체회의에서 FTA이행법 처리를 보류하면서 언론들은 한-칠레 FTA 비준의 연내 처리 자체가 불투명 하다고 관측하였음.
- 한편,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을 가결한 데 대해 농민단체는 국회 본회의 비준을 저지하기 위해 12월 29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한-칠레 FTA 철회를 촉구함.
- 전국농민연대는 12월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민 1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한-칠레 FTA 국회비준 저지와 생존권 확보를 주장하며 12월30일까지 철야 집회를 가졌으며, 전농 충북도연맹도 청원, 피산, 진천군에서 대규모 농기계 반납 투쟁을 전개하는 등 한-칠레 FTA 비준 저지를 위한 농민단체의 저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음.

□ **한-일 FTA 협상, 농업 등 모든 분야 자유화 합의**

- 한국과 일본이 12월22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정부간 첫 협상을 시작해 두나라는 오는 2005년 안에 모든 산업에 걸쳐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 포괄적인 협정을 맺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음.
- 양측은 이번 한-일 FTA를 통해 농업 등 특정 분야를 배제하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자유화를 추진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고, 관세 철폐 이행기간도 가급적으로 단축하겠다는 의욕을 보인 것으로 알려짐.
- 이날 한-일 양국은 상품무역분과, 비관세조치분과, 서비스무역투자분과, 기타 무역 이슈, 분쟁해결분과, 경쟁협력분과 등 6개 분과 설치에 합의했으며, 양국간 기술·마크 등을 상호 인정하는 상호 인정분과 설치 여부는 추후 협상을 통해 결정기로 하였음.
- 양국은 이런 큰 틀 아래서 2차 협상을 2004년 2월23~25일 도쿄에서 개최하고, 앞으로 2개월마다 양국을 번갈아가며 세부 협상을 진행한다는 협상 일정에도 합의하였음.
- 한편, <YTN 12.23>은 김현중 통상교섭조정관이 “한국과 일본은 농업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관세와 비관세 조치를 없애는 포괄적인 FTA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하였음.
- 또, <조선일보 12.23>는 연간 4억달러의 대일 흑자를 보이고 있는 농업 부문은 한국이 유리할 전망으로, 농림부 관계자는 “한-일 FTA 협상이 체결되면 밤·토마토·김치 등 10개 품목에서 연간

5,800만달러의 수출 확대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고 전함.

□ **일본 ‘農水族’ 의원들, FTA 가속화에 반발**

- <연합뉴스 12.23> 일본 농업과 수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른바 ‘농수족’ 의원들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일본 정부와 아시아 각국 사이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2월22일 보도.
- 이 보도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농업쇄국은 있을 수 없다’며 FTA 체결을 비롯한 농업구조개혁에 착수할 의지를 내비치자, 자민당내 농수족들이 바짝 긴장하며 체동을 걸기 시작했다고 전함.

□ **“한-일 FTA엔 농수산물 수출 9억여 달러 증가” 전망**

- <한겨레 10.21> 한국이 일본과 FTA를 체결하면 농수산물 분야 수출이 9억4,600만달러 증가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어가 피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재정경제부는 10.21일 “일본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면 단기적으로 무역수지 악화가 우려되지만 농수산물 분야는 수출이 크게 늘어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의 공동 연구 결과, 한-일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한국 농수산물의 수출 증가분은 농업 6200만달러, 가공식품 8억5400만달러, 어업 3천만달러 등으로 분석되었음.
- 또, 일본의 농수산물 수입국 가운데 한국 농수산물의 수입 비중이

현재 2.5%(8위)에 불과하지만, 한-일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 한국 농수산물의 일본 시장 점유율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분석.

- 농촌경제연구원(KREI)도 한-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신선농산물의 수출이 5,8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품목별 수출 증가율 전망치는 채소 21%, 과실 27%, 화훼 6%, 돈육 47%, 육가공품 12%, 과실 및 채소가공품 18% 등으로 분석.
- 따라서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산물 피해를 어느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재경부는 기대.

2.3. “WTO 도하협상 붕괴위기” 경고

- <문화일보 12.11> <머니투데이 12.10> 등은 WTO 회원국들이 제네바에 모여 지난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각료회의 합의실패로 교착상태에 빠진 DDA 협상재개를 위해 회의를 열었으나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DDA 협상이 붕괴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카를로스 페레즈 델 카스티요 WTO 일반이사회의장은 12월9일 기자회견을 갖고 “칸쿤회의 실패 이후 12월 15일까지 협상재개를 위한 타협안을 마련키로 했으나 협상재개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다”며 “실질적 협상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힘.
- 카스티요 의장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진영간 입장차가 여전히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오는 12월15일 협상재개는 물건너 간 셈이라고 덧붙임.

- 카스티요 의장은 내주 협상재개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오는 2005년 1월 1일까지 DDA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사라졌다고 비관적 견해를 내놓았으며, 그는 “시간이 흐르면서 시한이 지켜질 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며 “내년초까지 공통분모를 찾기 위한 실질적인 협상을 벌이지 않을 경우 아예 향후 협상 기반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경고.
- <문화>는 회원국간 입장차가 DDA 협상붕괴 위기를 재촉하는 유일한 원인은 아니며,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 거대 회원국들이 서로 무역분쟁을 벌이고 있는 탓에 DDA 무역 협상은 관심대상에서 멀어져 있고, 게다가 특히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을 비롯해 많은 나라와 개별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면서 다자간 무역 협상의 중요성이 갈수록 무시되고 있다고 분석함.

□ WTO 사무총장, 개도국에 협상 유연성 촉구

- <연합뉴스 12.14> 지난 9월 멕시코 칸쿤회의를 결렬시킨 20개 개도국(G-20)은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재개 시한인 12월15일을 앞두고 12월11일 이틀일정의 회의를 개막.
- 수파차이 사무총장은 “우리는 융통성의 조짐들을 원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네바 회의에서 진전은 없을 것”이라면서 유연성을 촉구했고, 이에 대해 파스칼 라미 유럽연합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유럽 국가들은 농업보조금의 전면적인 철폐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WTO 협상재개 일정 마련 난망

- <연합뉴스 12.9> 12월15일까지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재개를 위한 합의안 마련이 사실상 어려워짐에 따라 내년에도 WTO 협상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
- WTO 146개 회원국 장관들은 지난 9월 농업분야 등 핵심문제에 대한 합의에 실패한 뒤 각국 대사들에게 늦어도 이달 15일까지 DDA 재개를 위한 타협안을 마련하도록 한 바 있으나, 그 후 진전은 거의 없었으며 회원국들은 이제 협상이 원래 계획대로 2005년 1월1일까지 마무리될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함.
- 카를로스 트로얀 WTO 주재 유럽연합(EU) 대사는 최근 “시간이 부족해 합의 도달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고, 협상재개 논의 책임자인 카를로스 페레즈 델 카스티요 WTO 일반의사회 의장도 “15일까지 협상 재개를 위한 타협안 마련은 매우 어려울 것 같다”고 인정함으로써 협상 전망을 어둡게 했다고 분석함.

□ WTO 일반이사회 성과없이 폐막...DDA 협상 내년초 재개키로

- <머니투데이 12.18> 스위스 제네바에서 12월15~16일 이틀간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가 별다른 소득없이 내년 초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을 재개키로 하고 폐막됨.
- 12월18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카를로스 페레즈 델 카스티요 WTO 일반이사회 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농업, 면화, 비농산물, 싱

가폴 이슈 등 4개 이슈에 대한 두차례 비공식 협의에서 소득이 없었다고 설명하고 DDA 분야별 협상기구 의장단이 새로 구성되는 내년초 협상을 재개할 것을 제의.

- 대다수 회원국들이 내년초 협상 재개에는 찬성했지만 4개 이슈에 대한 각국의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이 재확인돼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뚜렷한 협상성고가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
- 회의 중 발언에 나선 대부분의 국가들은 칸쿤 각료회의 때 의장수정안을 협상의 출발점으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찬성했으나 수정안 중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따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
- 외교부는 “내년 1월말 또는 2월초까지 각 협상기구 의장단 선임이 마무리된 직후 분야별 협상기구회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울러 일반이사회와 TNC 차원의 대사급 회의도 병행 개최될 것”이라고 밝힘.

□ 2004년 하반기 WTO 홍콩 각료회의가 분수령 전망

- <연합뉴스 12.18> 2004년은 우리 나라의 통상분야에 있어서 어느 해 못지않게 중요한 해가 될 전망이다며, 지구촌의 통상질서를 재편하게 될 WTO/DDA 협상이 새해 말 끝날 예정이고, 한-일 및 한-싱가포르 FTA 체결을 위한 협상도 본격화된다고 보도.

⇒ 보도 요지

- DDA 협상은 협상시한 1년 남겨둔 시점에서 주요 분야의 협상 세부원칙(Modality)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한 안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새해 2월 분야별

협상 의장들이 바뀌는 것을 계기로 협상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

- 협상의 시한내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은 하반기 홍콩에서 열릴 예정인 제6차 WTO 각료회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홍콩 각료회의까지 협상에 획기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협상시한 연기가 불가피하며,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미국내 사정을 감안하면 최대 2년까지 연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WTO, '평화조항' 만료시 분쟁 확대 우려

- <연합뉴스 11.7> 회원국들이 농업보조금 분쟁의 제소를 제한하는 이른바 '평화조항'이 내년 1.1일자로 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내년 부터 WTO 회원국들간에 농업보조금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가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
- <서울경제 12.25, 헤럴드경제 12.25> 내년 1월1일부터 정부 농업 보조금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금지하는 '평화 조항' 시한이 만료되면서 농업보조금을 둘러싼 국가간 분쟁이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라고 보도함.

⇒ 보도 요지

- 평화조항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요구에 따라 지난 우루과이라운드 (UR) 협정에서 합의된 것으로 WTO 일반이사회에서 연장에 합의하지 않으면 95년을 기점으로 9년 뒤인 2003년 말에 만료.
- 이 규정 때문에 지금까지 회원국들은 농업보조금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WTO 분쟁해결기구(DSB)의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 평화조항 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당장 미국과 EU가 주된 표적이 될 전망.
- 지난해 칸쿤에서 열린 WTO 도하라운드 협상이 결렬된 원인도 농업 보조금을 둘러싼 미국 등 선진국과 브라질 등 농산물 수출 개도국간

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했기 때문.

- 브라질 등 농산물 수출국 그룹인 G-20의 주도국들은 칸쿤 협상에서 선진국들이 막대한 농업보조금 지급으로 사실상의 덤핑 수출을 하고 있다며 신랄한 비난을 해왔고, 평화조항이 만료되면 WTO에 제소할 것임을 공공연히 경고해왔음.
 - 농업보조금에 불만이 높은 G-20는 브라질과 인도 등 거대 농산물 수출 개도국이 앞장서 WTO 제소와 함께 상계 및 반덤핑 관세와 같은 무기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
 - 물론 G-20의 총 공세에 대해 미국이나 EU도 정면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높는데, 이 경우 그 동안의 철강이나 조선, 반도체 같은 공산품 분쟁에 이어 농산물쪽으로도 무역 분쟁의 전선이 급속 확산될 것으로 관측됨.
- 하지만 <연합뉴스 12.23>는 제네바 외교가에서는 농업보조금 부문에서의 갈등은 가뜩이나 교착상태를 면치못하는 DDA협상의 분위기를 저해할 뿐이라고 말한바,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협상 쪽이 보다 실익이 있어 제소가 붓물처럼 쏟아질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함.

2.4. 쌀 재협상 관세화 유예여부 논란

-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12월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쌀 재협상은 내년 9월까지 윤곽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기본입장은 관세화 유예이지만 다만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율관세할당(TRQ)물량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함.
- 허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

을 방문한 과정에서 미국·일본·호주 농무성 장관들과 면담, 개도국 지위획득을 위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히고, DDA 등 농업협상에 대해 “개도국 지위는 유지받아야 한다”고 강조함.

□ 언론, “정부, 외국쌀 關稅물면 수입 자유화 검토”

○ <조선일보 12.9> 정부가 오는 2005년부터 관세만 물면 누구나 외국쌀을 자유롭게 수입해 국내 소비자에게 팔 수 있도록 하는 ‘쌀 관세화’를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보도하면서, 쌀 관세화란 외국쌀 수입을 자유화하되 관세를 매겨서 수입량을 조절하는 방식의 시장 전면개방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함.

⇒ 농림부는 이같은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통해, 조선일보의 ‘외국쌀 관세물면 수입자유화 추진’ 제하의 기사 내용은 정부가 내년 쌀협상에 있어 관세화유예를 전제로 하고 유불리에 관한 정밀한 영향분석을 하고 있음을 밝힌 것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함.

⇒ 또한, “재협상에서 관세화 재유예를 받든지 우리 마음처럼(재유예가) 되지 않든지 내년말까지 협상을 끝내겠다”라는 허상만 농림부 장관의 언급내용은 쌀협상이 내년도에 시작되고 종료되어야 한다는 WTO농업협정의 내용을 강조한 것임을 밝힌다고 해명함.

○ <동아일보 12.9> 허 장관은 “쌀 재협상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은 관세화 유예지만 쌀 수출국들이 관세화 유예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다른 분야에서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만큼 다각적으로 대응책을 찾고 있다”고 말해 관세화 유예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고 해석함.

○ <파이낸셜뉴스 12.10> 내년으로 시한이 못박혀 있는 쌀 관세화 유예연장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결국 쌀도 관세화로 이행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이며, 정부는 이에따라 내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관세화, 관세화 유예 모두를 놓고 최선의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전함.

- <농민신문 12.12, 사설> “쌀 관세화유예 관철 배수진치라”- 쌀 재협상은 다자협상이 아니라 양자협상방식으로 진행되고, 현재까지 우리나라 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중국·호주·태국 등 극소수에 불과해 이들 나라에 대해 외교적인 통상력을 집중한다면 관세화 유예 연장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함.
- 또, 우리 국민의 주식이자 농업소득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쌀은 경제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근간을 좌우할 정치제이므로, 정부가 배수의 진을 치고 관세화 유예를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함.

□ KREI,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 모두 장·단점 있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12월1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 ‘2004년 쌀 협상 국제세미나’에서 이 연구원의 서진교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2004년 쌀 협상 여건과 쟁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내년에 쌀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쌀 관세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쌀 관세화 유예 연장과 관세화 모두 쌀 시장개방 확대 폭과 관련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갖고 있어 냉철히 비교·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함.

⇒ 쌀 관세화 유예를 연장할 경우

- 수입량의 예측이 명확하고 필요시 조정이 용이하여 관세화에 비해 국내 쌀 시장의 안정화 도모에 유리한 반면, 유예 연장에 따라 우리

나라가 허용해야 하는 MMA 증량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MMA가 관세화시 예상되는 수입량 보다 커질 수도 있으며, 아울러 그 관리도 지금 보다 엄격해져 현재와 같은 정부주도 방식의 MMA 관리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음.

⇒ 쌀을 관세화로 전환할 경우

- 세계시장가격의 변동이 그대로 국내에 전달되어 국내시장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으나, 세계시장가격이 상승할 경우 오히려 보호 효과가 커지며, 하락할 경우에는 특별세이프가드 등을 활용하여 관세화의 부정적 영향을 일정 부분 줄일 수는 있음. 한편 관세화시 쌀의 관세는 소폭 감축될 수도 있으나, 관세상한이 적용되어 대폭 감축될 경우도 있음.

- 이에 따라 우리 나라는 쌀 시장개방 확대 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세화 유예와 관세화의 장단점을 냉철히 비교 검토한 후 이에 기초하여 협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KREI는 지적함.
- <동아일보 12.11>, <연합뉴스 12.10>, <파이낸셜뉴스 12.10> 등 언론들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진교 부연구위원은 12월10일 농수산물무역센터에서 열린 '2004년 쌀 협상 국제세미나'에서 '한국의 2004년 쌀 협상 여건과 쟁점'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이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에 따라 내년 중 미국 중국 등 쌀 수출국과 벌여야 하는 '쌀 재협상'이 무산되면 쌀에 관세를 물리는 조건으로 국내 시장을 개방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을 내놓았다고 보도함.
- <연합뉴스 12.10> 농촌경제연구원 서진교 박사는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 중 어느 한쪽만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며 국내 쌀 산업의 발전을 위해 냉철한 비교 분석을 해야 한다"면서 DDA의 모델러

티(협상세부원칙)가 확정되지 않아 우리는 물론 수출국도 관세화 여부에 따른 득실을 따지기 힘든 만큼 DDA 타결 시점까지 잠정적으로 관세화를 유예시키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함.

2.5. 조류독감 확산-美, 광우병 소 발견으로 축산파동 우려

- 국내에서 조류독감 확산으로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미국에서 처음으로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추정되는 소가 워싱턴주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육류수급 파동과 축산농가의 도산을 우려하는 여론이 비등하였음.

⇒ 미 광우병 발표 내용

- 베너먼 미국 농무부 장관은 12월23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워싱턴주 메이플턴의 한 농장에서 사육중인 홀스타인 젖소가 일차 검사에서 광우병으로 알려진 BSE(우해면양뇌증) 양성반응을 보였다는 소식을 접한 뒤 광우병 감염 여부를 최종 확인하기 위해 소에서 채취한 샘플을 영국으로 보냈다고 밝힘.
- 영국 잉글랜드 웨이브리지 소재 수의학 실험실은 12월25일 “문제의 소가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추정한다는 미국 과학자들의 1차 검사 결과에 동의한다”는 실험결과 통보서를 미국 농무부에 보냈고, 또 워싱턴 포스트지는 “광우병이 발견된 워싱턴주외의 미국내 다른 지역에도 퍼져 있을 위험성이 있다”고 보도.
- 미국에서 처음으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주수입국인 아시아 각국을 비롯해 전세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미국의 주요 쇠고기 수출국인 한국과 일본은 12월24일 즉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잠정 금지한다고 발표했으며 싱가포르

르,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등도 이런 움직임에 합세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음.

- 이밖에 호주 정부도 추가 정보가 있을 때까지 미국서 수입된 쇠고기를 국경 지역에 일시 억류하기로 결정했고, 러시아 정부도 미국에서 처음으로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추정되는 소가 발견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림.
- EU는 미국을 이미 ‘위험국가’로 분류, 성장호르몬이 사용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현재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수량도 미미한 데다 엄격한 품질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추가조치는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정부 대책…미 쇠고기 금수 조치

- 정부는 12월26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서 수입된 ‘광우병 위험 부위(SRM)’의 원산지 봉인(封印)을 위조하거나 원산지를 속여 파는 것을 집중 단속하고 쇠고기 가격 급등에 대비,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키로 함. 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은 미국산 쇠고기를 기내식 메뉴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함.

⇒ 농림부는 12월26일 판매중단 조치를 취한 미국산 쇠고기의 특정위험물질(SRM) 부위 중 수입업체 등이 보유 중이던 유통물량 38t을 확인, 봉인했다고 밝힘.

⇒ SRM은 뇌, 척추 등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고 광우병 오염원에 노출될 수 있는 부위로 농림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도 검역창고나 보세구역 내 창고에 보관중인 소 등뼈 379t과 소창자 1930t 등 SRM물량 2309t을 봉인함.

-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월28일 농림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공식 수입금지 조치를 내림에 따라 미국산 반추동물 원료를 함유한 가공식품의 수입을 금지키로 함.
 - ⇒ 식약청이 미국산 반추동물 원료 가공식품을 정식 수입금지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50% 미만 함유 우족탕이나 사골탕 등의 통조림, 우지를 사용한 냉동감자, 젤라틴을 사용한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영양식품 등을 수입할 수 없게 됨.
 - ⇒ 식약청은 또 지난 24일 소, 염소와 같은 미국산 반추동물의 창자, 뇌, 척수, 비장 등 특정위험물질(SRM)에서 유래한 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용구, 원료 등의 수입도 금지했으며 아울러 미국산 반추동물의 SRM 이외 부위를 원료로 쓴 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용구, 원료 등을 수입할 때는 광우병 미감염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함.

- <조선일보 12.28>는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에 대해서는 발병건수가 사라지더라도 일절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 왔으며, 따라서 이 기준이 변경되지 않는 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반영구적으로 중단될 것으로 전망.

□ 美쇠고기 수입금지...국내 시장충격 확산

- <연합뉴스 12.28>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공식적으로 수입 금지에 들어감에 따라 수급 차질과 한우값의 상승 등 시장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특히 미 농무부가 광우병 사태와 관련, 오는 12월30일 대표단을 파견키로 하는 등 미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소비자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보도함.

⇒ 조류독감 사태로 삼계탕 등 닭과 오리 고기 값이 어려움에 빠진 가운데 미국 소의 광우병 여파로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가 높아지면서 쇠고기를 쓰는 식당도 타격을 받고 있으며, 대체 육류로 부상한 돼지의 경우 산지 가격이 광우병 발생 전인 지난 23일 100kg당 16만9천원에서 26일 17만3천원으로 3일만에 2.4% 상승함.

⇒ 같은 기간 한우 숫소(500kg) 산지가도 400만3천원에서 403만2천원으로 올라 아직은 상승 폭이 미미하나 설을 앞두고 가격 급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관측함.

- <경향신문 12.25> 미국에서 광우병 감염이 의심되는 소가 발견되면서 국내 시장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막혀 수급불균형에 따른 시장 혼란은 물론 육가공업체, 유통·외식업 등 관련산업에도 주름살이 번질 것으로 예상.

⇒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미국산 쇠고기 비중은 40%가 넘어 올들어 11월까지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는 검역 기준 18만7천3백30t으로 전체 수입물량 27만4천7백46t의 68.2%에 달함. 특히 국내 축산농가의 쇠고기 자급률이 36.6%(작년 기준)에 불과해 미국산 수입이 완전 금지될 경우 국내 시장은 전체 수요의 40% 이상인 20만t(추정치)이 모자라는 심각한 수급불균형을 맞게 될 것으로 우려.

□ 대체 공급 고심…육류대란 조짐

- <한국일보 12.25> 정부가 12월24일 광우병 소가 발견된 미국산 쇠고기와 육가공품, 기타 반추동물(양, 염소, 사슴) 등에 대한 통관 보류 조치를 취함에 따라 국내에 쇠고기 파동, 나아가 육류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망함.

⇒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되면 미국산 쇠고기 부족분을 메워줄 나라

가 없기 때문에 쇠고기 수급 차질 등 큰 파문이 불가피. 정부는 이미 광우병을 이유로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 23개국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브라질 등 남미국가의 쇠고기도 구제역으로 수입을 금지시켜 놓고 있음.

⇒ 이에 따라 올해의 경우 수입육중 미국산 쇠고기의 비중은 68% 수준까지 높아진 상황. 유일한 대안이 호주, 뉴질랜드로 수입선을 바꾸는 것인데 장기계약을 맺는 쇠고기 거래의 특성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

⇒ 결국 조류독감으로 닭과 오리 등의 소비가 크게 위축된 것까지 감안하면 대체 육류인 돼지나 한우에 수요가 집중되면서 고기 값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크고, 특히 최근 사육두수 감소로 가격이 강세로 돌아선 한우 가격은 급등할 전망.

□ 美産 쇠고기 수입물량 4만톤 대부분 유통...검역문제 제기

○ <한국일보 12.27> 척추 뼈와 내장 등 미국산 수입 쇠고기 부위 중에서도 광우병을 유발하는 위험 단백질(프리온)이 다량 함유된 특정위험물질(SRM)이 울들어 4만950톤가량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

⇒ 농림부는 12월26일 울들어 수입 중단 조치가 내려진 지난 12월24일까지 총 27만3,253톤의 살코기와 SRM이 미국으로부터 수입됐으며, 이 가운데 워싱턴주에서는 1만8,856톤이 수입됐다고 밝힘.

⇒ 농림부에 따르면 미국 쇠고기 수입물량 중 살코기를 제외한 SRM 비율은전체의 15%로, 물량으로는 약 4만950톤 가량으로 추정됐고, 광우병 가능성이 높은 워싱턴주에서 수입된 쇠고기에는 4,400톤 가량의 SRM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

⇒ 농림부는 이미 수입 통관된 미국산 쇠고기 중에서도 살코기 유통은 허용하면서도 SRM은 유통을 금지시키고 회수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이날 기자설명회를 갖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에도 불구하고, "내년 쇠고기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힘.

⇒ 허 장관은 "내년에 쇠고기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가 재고 물량과 호주 등지로부터의 추가 수입량을 감안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함.

□ 산업계 파장... '광우병 물가' 0.45% 오를 듯

○ <동아일보 12.26> 조류독감에 이어 터져 나온 미국발 광우병 파동은 가뜩이나 얼어붙은 국내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려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 주식시장에서는 수입 쇠고기 관련주가 약세를 보이는 반면 생선을 취급하는 수산업체의 주가는 급등세를 보임.

⇒ 정육업체들은 광우병 파동이 확산돼 쇠고기 수입이 중단될 경우 한우 쇠고기의 가격은 2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쇠고기를 대체할 생선류의 가격도 20~30%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 한국은행 남양우 물가통계팀장은 "수입 쇠고기 대신 인기가 높아질 한우 쇠고기의 가격이 20% 오른다고 봤을 때 가중치를 넣어 환산하면 전체 소비자물가가 약 0.16% 상승할 것이며 생선류 가격이 25% 오른다면 0.29%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렇게 될 경우 전체적으로 0.45%의 소비자물가 상승요인이 생길 것"이라고 말함.

⇒ 이에 따라 이번 파동이 장기화될 경우 내년 소비자물가가 한은의 2004년 물가상승률 전망치 2.8%보다 높아져 3%대로 올라설 가능성이 크고, 또 올해 연간 1.1%의 마이너스 성장(추정치)을 했던 민간소비가 회복되는 시기도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쇠고기 통상마찰 재현 우려

- <조선일보 12.28>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와 관련, 12월30일 데이비드 헤그우드 농무부장관 특별보좌관과 척 램버트 농무부 차관보 등 대표단 3명을 한국에 파견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농림부가 12월28일 밝힘.

⇒ 미국 대표단은 일본(29일)에 이은 한국 방문에서 우리측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를 풀어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자칫 한·미 간 통상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전함. 그러나 농림부 고위관계자는 “광우병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현재의 수입금지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함.

- <한국경제 12.27> 미국내 광우병 발생이 공식 확인됨에 따라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공식 수입금지를 발동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일본에 쇠고기 금수조치를 해제토록 요청, 한-미간에도 쇠고기 통상마찰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함.

⇒ 국내로 수입되는 쇠고기중 68%를 미국산으로 채우고 있는 한국 정부에 미국 정부가 자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해줄 것을 공식 요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

⇒ 이미 미국 정부로부터 쇠고기 수입허용을 요청받은 일본 정부가 미국에 현지 조사단을 급파한 것과 관련,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우리도 미국에 현지조사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고 말해 안정성이 보장된다면 미국산 쇠고기 금수조치를 풀 수도 있음을 시사함.

□ 국내선 조류독감 계속 확산…피해 ‘눈덩이’

- 농림부는 12월28일 조류독감 일제조사 결과에 대한 중간 발표를

통해 조류독감이 최초로 확인된 충북 음성권역은 농장간의 접촉으로 조류독감이 7개소로 확산됐다고 밝힘.

⇒ 발표 요지

- 농림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전국 조류독감 감염농장 14개소 중 음성권역 7개소(음성 5개소, 진천 1개소, 이천 1개소)는 발생농장간의 직간접 접촉으로 감염됐다고 설명.
 - 또 천안, 나주권역은 조류독감에 감염된 천안시 북면 원종오리 농장인 화인농장 부화장이 조류독감 확산의 원인으로 드러났으며 음성권역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
 - 농림부는 전국의 종오리농장 52개소, 분양 육용오리농장 121개소, 오리 집산지 61개 시.군 농장 249개소 등 422개소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한 결과 진천군 진천읍 문봉리 양모씨의 종오리농장 1곳만 조류독감에 감염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발표.
 - 농림부는 이에 따라 조류독감이 발생한 농장 14개소와 연관된 분양농장, 부화장, 도축장, 사료 약품 분뇨차량 출입농장 등 432개소에 대해 조류독감 전파여부를 확인하는 혈청검사에 주력할 방침.
- 한편, 국내에서 조류독감이 계속 확산되자 일본·대만에 이어 중국이 12월23일 한국산 닭고기 수입을 금지함.
- **조류독감 확산 닭고기값 38.7% 하락**
- 12월26일 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닭고기는 서울에서 지난주 마리당 3천100원에서 1천900원으로 38.7% 하락했고, 부산, 대구, 대전에서도 100~300원 내린 2천200~2천700원에 매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돼지고기도 돼지콜레라 발생 등에 따른 육류 기피현상으로 서울과 대구에서 삼겹살 500g당 4천900원, 5천500원으로 각각 23.4%, 6.8% 내린 것으로 나타나는 등 축산물 가격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언론, 식품 안전과 수급 문제 집중 제기

- <세계> 닭-오리산업 완전 붕괴되기 전에, <매경> 조류독감 피해 최소화해야, <대한> 조류독감 확산 속수무책인가, <국민> 조류독감에 광우병 쇼크까지 <한국> 육류대란, 최소화해야 한다, <중앙> 광우병·조류독감...방역 비상체제로, <동아> 광우병 비상, 식탁 안전 만전 기해야, <대한> 광우병, 한국은 안전한가, <세계> 美 광우병 충격, 수급대책에 만전을, <한국> 획기적 방역시스템 구축을 등의 사실을 통해 축산물 방역과 수급 문제를 집중 취급하였음.
- 언론들은 조류독감과 광우병 파동으로 국내외 축산, 식육업체들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해 졌다며, 물론 먹거리 안전을 우선해야 하지만, 이와 함께 문제된 미국산 쇠고기 등에 대한 대체 물량 확보 등으로 식육 수급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정부 당국과 업계의 적절한 조치가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함.
- <한국일보>와 <헤럴드경제> 등 일부 언론은 정치권 일각이 방역청 신설을 주장하는 만큼 차제에 국가적인 근본대책을 주문한다며, 방역 시스템 선진화에 돈 아낄 이유가 없다고 방역청 신설을 주장함.

□ 정부, 값 폭락 대비 닭 250만수 오리 15만수 구매

○ 농림부는 최근 가금인플루엔자(조류독감)가 발생함에 따라 닭 및 오리고기의 소비감소로 인한 과잉공급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육계·오리의 구매, 병아리·종란 도태, 종계감축 등 종합적인 닭·오리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12월25일 밝혔다.

⇒ 이번 대책추진은 지난 15일 충북 음성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한 이후 소비자들이 닭·오리고기 소비를 기피하는 등 소비 감소로 산지가격이 30~40% 하락함에 따라 사육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조류독감에 따른 닭·오리 고기 소비감소로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육계 등을 긴급 구매키로 함.

⇒ 농림부는 우선 육계·큰오리 구매, 병아리·종란·종계 감축방안으로, 육계의 경우 총 250만 마리 구매를 목표로 계열업체 도계장에서 도계지육 상태로 1개월 동안 1일 10만~30만 마리를 구매하게 되며, 구매물량은 1일 전국 도축물량 100만수의 10~30% 수준을 구매해 급락하는 육계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계획.

○ <연합뉴스, 조선일보 12.21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류독감이 충북 음성과 충남 천안에서 확인된데 이어 전남과 경북권에서도 신고가 접수되는 등 조류독감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정부는 12월21일 고건 총리 주재로 긴급관계장관 회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 한편, 조류독감 확산으로 삼계탕 등 닭고기와 오리고기 소비가 급격히 위축돼 닭값이 폭락세를 보인 한편으로 대만이 한국산 닭고기의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음.

○ 12월10일 동물병원을 거쳐 방역당국에 신고된 충북 음성군 H종계

농장의 닭 집단 폐사 원인이 12월15일 정밀검사 결과 국내에서는 처음인 홍콩 조류독감과 같은 유형의 고병원성 바이러스인 것으로 최종 확인됨.

- 이후에도 위험지역내 부근 오리 농가와 산란계농장도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어 12월19일에는 위험지역 밖인 음성군 대소면 오리농장에서도 고병원성 조류독감 감염이 확인됐으며, 12월20일에는 최초 확인 농장인 H중계농장에서 25km 떨어져있는 경계지역 밖 충남 천안시 북면 운룡리에 있는 오리고기 전문 생산업체 H사의 원종 오리농장에서도 감염이 확인됨.
- 이밖에 12월20일 전남 나주 식용오리 농장, 경북 경주 산란용 닭 농장, 충북 청주 식용오리 농장 등 3곳에서 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이 정밀검사중이며,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통해 발견한 충남 천안 직산면 종오리농장 2곳과 경기 안성 종오리 농장 1곳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중.

2.6. 쌀 생산 23년만에 최저…수급 전망 논란

- 지난 9.15 작황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농림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1.14일 전국 9,000개 표본 필지를 대상으로 올해 쌀 생산량 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보다 9.7% 줄어든 3,091만섬에 그쳤다고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음.
- 이에 대해, <동아> 등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쌀 생산량이 23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집계됐지만 재고량이 충분해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한 반면 <국민> 등 일부 언론은 수

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상반된 분석을 내놓아 향후 쌀 수급에 대한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 **농림부, “재고 충분 수급엔 차질없어”**

- <동아일보 11.15> 등 언론들은 농림부가 올해 쌀농사가 흉작이지만 현재 쌀 재고량이 842만섬에 이르는데다 UR 협상에 따라 한국이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이 143만섬이어서 수급에는 차질이 없다고 설명했다며 ‘재고 충분 수급엔 차질없어’ 등의 제목으로 기사를 취급하였음.
- 다만, 지난 9.15작황조사 결과 발표때처럼 언론들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권고하는 적정 재고량(573만~607만섬)을 감안할 때 잉여분은 124만~159만섬(18만~23만t)에 그쳐 내년도 대북 쌀 지원규모를 올해의 278만섬(40만t) 수준으로 유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대북 지원 차질을 전망하였음.

□ **일부언론, ‘비상용 쌀’까지 풀어야할 다급한 상황 발생할 수도**

- 하지만 <국민> <세계> 등 일부 언론은 올해 쌀 생산량이 1980년 이후 가장 적은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쌀 재고량이 적정량을 훨씬 웃돌고 있기 때문에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부의 벼 생산조정제로 재배면적이 감소하는데다 올해와 같은 자연재해가 다시 발생할 경우 수급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보도하였음.
- 이들 언론은 우선 올해 벼 재배 면적은 101만6,000ha로 작년보다 3만7,000ha 줄어 정부 통계가 시작된 지난 67년(123만5,000ha) 이후 가장 적었다며,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권고하는 적정 재

고량(573만~607만섬)을 감안할 때 잉여분은 100여만섬에 불과해 대북 지원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또 올해 정부 매입가를 기준으로 볼 때 쌀 생산량 감소로 8,800억원 가량 농가 수입이 줄 것으로 예상되며, 쌀값이 올라 가뜩이나 어려운 불황기 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 <세계일보 11.15>는 가뜩이나 농업개방 탓에 흥흥한 농촌에 쌀 흉작까지 대형 악재로 불거지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고, 그동안 넘쳐나는 쌀 처리에 고민해 왔던 정부도 앞으로는 쌀 부족 사태를 걱정해야 할 처지로 몰리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 이 언론은 내년에도 올해처럼 예기치 못한 태풍과 호우 등 기상이변 탓에 쌀수확이 저조할 경우 ‘비상용’ 쌀마저 시중에 풀어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함.

2.7. 농림부 “農地임대 규제 대폭 완화” 추진

- <동아>, <매경> 등 언론들은 11월27일 일제히 DDA 등 농업시장 개방에 대비해 농지의 임대차나 휴경이 허용되며, 지난 92년 이후 처음으로 농업진흥지역이 전면 재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였음.
- 보도에 따르면, 농림부는 최근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1차 농지제도 개편 용역’ 결과 농업진흥지역 내 일부 토지를 개발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생산관리지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가 나오에 따라 내년부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11월26일 밝힘.

⇒ 농림부가 구상하고 있는 농지제도 개편 방안에 따르면,

- 내년 중 농지법을 개정해 현재는 상속이나 이농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농지의 임대차나 위탁경영, 자발적인 휴경을 전면 허용할 방침.
 - 현재 전체 186만3,000ha 농지 중 임대농지가 44.8%인 83만5,000ha에 달해 농지법을 현실화할 계획.
 - 아울러 지난 92년 이후 처음으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재조정을 2006년까지 벌여 경지정리가 어려운 진흥지역 내 일부 농지를 개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관리지역으로 편입하는 것을 검토.
 - 또, 현재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10ha 미만 농지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에 전용허가권을 위임하고 있으나, 2005년부터는 지자체가 도시자본 유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해서는 전면 위임할 계획.
 - 농지를 위탁받아 전업농 등에게 매매를 알선하는 농지은행도 2005년 도입하고, 각종 농업특구 내에서는 농지법상의 농지 소유와 이용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할 예정.
- 농림부는 내년 2월까지 타 부처와의 1차 협의를 통해 자체 농지 개편 방안을 확정된 뒤 내년 하반기중 농지법 개정 등 본격적인 법제화 작업에 나설 계획.

□ 농지 임대차·휴경 전면 허용…농림부 “경자유전 원칙”은 유지

- <동아일보 11.27> 농림부 관계자는 “농산물값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농지가격이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개방에 대비해 영농 규모화, 도시자본의 농촌 유입 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농지제도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함.

- 이와 관련해 아무런 조치 없이 농업이 추가 개방을 맞으면 농지는 2005년부터 매도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내년부터 2010년까지 30% 안팎의 하락세를 기록할 것이라는 한 농업유관기관의 비공식 추정치도 제시함.
- <중앙일보 11.28> 농림부 관계자는 그러나 “규제 완화는 쌀 전업 농에게 논을 임대하는 경우를 주축으로 한 것으로 ‘경자유전’ 원칙을 허무는 완전 자유화는 아니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도함.
- <연합뉴스 11.27, 사설> 현재 상속이나 이농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농지의 임대차나 위탁경영, 자발적인 휴경을 전면 허용하기 위해 내년중 농지법이 개편될 전망이라며, 전업농 육성과 농업농촌 구조조정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함.
 - ⇒ 가구당 경지면적 확대, 도시자본의 농촌유입 등을 촉진키 위해 농지 제도의 개편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동의한다며, 물론 법규의 맹점을 악용한 투기나 난개발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세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난개발 대책을 주문함.
 - ⇒ 농림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협, 농업기반공사 등 관련기관의 역할과 기능도 대폭 혁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농지, 새 투자처로 급부상” 보도

- <중앙일보 12.16> 정부가 농업 개방에 대비해 농업진흥지역을 재조정하고 농지 임대차 등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농지가 새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함.
 - ⇒ 보도 내용 요지
 - 정부는 FTA 등에 대비해 농지 개편을 포함한 농업농촌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 중으로, 내년 2월까지 농림부 안, 5월까지

정부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토대로 내년 하반기 농지법을 개정, 이르면 2005년 시행할 방침.

- 전문가들은 도심 주변 자투리 농지나 항공 방제 기계화 영농, 대규모 경작이 불가능한 농지 등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
- 정부는 도시자본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2005년부터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해선 지자체에 전용허가권을 위임할 예정이며, 농지 임대차나 위탁 경영, 휴경(休耕)에 대한 제한 규정도 완화기로 함.
- 정부의 농지 개편 방침 소식이 전해진 이후 경기도 김포나 인천시 강화 등지에선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에 대한 매수 문의가 부쩍 증가.

2.8. 농협중앙회, 본부인력 15% 감축 등 조직개편

- 농협중앙회가 중앙본부 전체인원의 15%수준인 230여명을 감축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력재배치를 추진키로 했고, 농업인에 대한 지원역량을 강화하고 조합 지원조직을 정비, 지역본부와 시·군지부의 기능을 강화해 현장중심의 지원체제를 갖추기로 함.
- 농협중앙회는 11월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4년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 계획(안)'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돼 내년 1월1일자부터 시행된다고 밝힘.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 ⇒ 농·축산물 공판장분사를 폐쇄하는 등 중앙본부 3개 부서를 감축하고 농업인 복지증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농촌지원부'와 '문화홍보부'를 '농촌복지홍보부'로 개편함.
 - ⇒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고 유통관련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산지유통부'와 '축산유통부'를 신설키로 함.
 - ⇒ 리스크관리실을 신용대표이사 직속기구로 개편해 농협의 리스크관리

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

⇒ 현재의 ‘조사부’를 ‘농협조사연구소’로 개편해 농업통상대책 수립, 농업농촌 발전전략 연구 등 농업부문의 대표적인 조사연구 조직으로 육성할 계획.

- <농민신문 11.28> 농협은 농협 개혁 차원에서 내년에 중앙본부의 인력을 대폭 감축하고 중앙본부 부서를 개편하는 한편 지방분권과 자율화 추세에 발맞춰 지역본부와 시군지부의 기능 및 인력을 보강해 농업인과 조합에 대한 지원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함.
- <서울경제 11.26>는 야마도 日전국농협중앙회전무와의 인터뷰 기사에서 야마도 전무는 한국에서 논란이되고 있는 농협 신경분리에 대해 “농협의 신용 부문과 경제 부문을 완전히 분리해 독자적으로 경영하기보다는 통합 운영하되 각각의 전문성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고 전함.
- 이 보도는 일본 농협은 2차대전 종료 후 전중을 비롯해 금융 등 신용 부문을 전담하는 전국신용농협연합회, 보험공제 쪽의 전국공제농협연합회, 쌀 수매 등 경제 부문의 전국농협연합회, 농림중앙금고 등 크게 5개 사업 부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협력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아 한국 농협의 상황을 부러워했다고 전하는 등 농협 입장을 옹호하는 논조로 보도함.
- 하지만 <농어민신문 12.1>은 농협중앙회가 내년도 조직 개편과 예산안 확정했으나, 폐지 여론이 높던 시·군지부 기능을 오히려 강화해 ‘개혁 역행’이라는 논란일 것으로 관측하는 등 부정적인

논조로 보도함.

- 농협중앙회는 이번 개편을 중앙본부를 슬림화하는 대신 지역본부와 시군지부의 기능강화를 통해 현장 중심의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개편은 농협개혁위원회 등에서 논의돼 온 시군지부 폐지의 방향과 역행하는 데다 중앙회의 전체적인 슬림화가 아니라 중앙본부 인원을 지역으로 배치하는 수준이라고 비판.

2.9. 국회 농해위, 내년 농림예산 7,800억 증액 의결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12월19일 허상만 농림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당초 정부가 제출한 농림예산안보다 7,790억원 증액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내년도 농림예산안을 비롯해 ‘농어업인 부채경감특별조치법’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촉진특별법’ 등 제·개정 법률안을 의결.

⇒ 농해위 주요 의결 내용(예산)

- 내년도 농림예산안을 당초 8조8,824억원보다 7,790억5,000만원 증액시킨 9조6,615억원 규모로 수정 의결.
- 항목별로는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과 농업경영개선자금 금리를 6.5%에서 3%로 인하하는 데 필요한 이차보전자금 2,066억9,200만원, 논농업직불금을 1ha당 53만2,000원에서 58만2,000원으로 5만원 인상하는 데 소요되는 477억5,000만원을 증액.
-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운영자금 및 벼매입 특별자금 금리도 당초 4%에서 무이자로 바꾸는 데 필요한 272억9,000만원을 포함해 폐비닐 수거지원비 75억원, 자유무역협정 지원기금 600억원 등도 증액.

⇒ 농해위 주요 의결 내용(법률)

- 상호금융자금의 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의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개정법률안’과 농림어업인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등을 골자로 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
- 이밖에 축산물가공처리법중 개정법률안, 농업기계화촉진법중 개정법률안, 식물방역법중 개정법률안, 농수산물유통공사법중 개정법률안 등도 의결.

2.10. 언론, “내년 쌀 재협상 참여정부 최대 難題” 관측

□ 연합뉴스-쌀 개방폭 확대 불가피 관측

- <연합뉴스 12.21> ‘2004 이슈-밀려오는 농업 개방 파고’ 기획특집을 통해 우리 농업과 농민, 농촌이 도하개발아젠다(DDA), 2004년 쌀 재협상, 한-칠레 FTA등 산적한 개방 일정으로 우루과이라운드(UR)때에 이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도함.

⇒ 보도 요지

- 당장 내년중 우리 정부가 쌀의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중 하나를 택일해야 하는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어느 쪽을 선택해도 개방폭은 확대될 수밖에 없어 쌀농사 중심인 우리 농촌에는 엄청난 충격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지난해 농가인구가 359만명으로 10년전보다 211만명이 줄어드는 등 농업 부문의 사회적인 비중이 감소했더라도 쌀 문제는 UR때와 같이 농가의 엄청난 반발을 살 것으로 점쳐지는 대목으로 결국 이 문제는 참여정부의 가장 어려운 결단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
- 내년엔 재개될 DDA 농업협상은 농산물 시장의 실질적인 무역자유화

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대폭적인 관세율 감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게 되면 국내 쌀 소득은 지난해 7조2천270억원에서 2010년에는 2조760억원으로 감소할 것이라는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

- 정부는 2013년까지 DDA, 쌀 재협상, FTA 등 개방에 맞서 농민의 소득을 보전해주고 농촌을 살리기 위한 10개년 계획을 집행해나갈 예정이나, 농민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FTA 비준안 처리조차 질질 끌었던 사실에서 알수 있듯이 쌀 재협상 등이 예정된 내년에는 농산물 개방과 농정을 둘러싸고 다시 한번 험악한 분위기가 전개될 것으로 관측.

□ 동아일보-개방속도 조절 통해 경쟁력 확보해야

- <동아일보 12.17> ‘이슈 2004’ 기획특집에서 농업개방 문제를 다루고, 한국 농업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본격적인 농업시장 개방을 앞두고 ‘위기’를 ‘기회’로 삼는 농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시장 개방 압력에 무기력하게 굴복하기보다는 정면 대응해서 발전의 계기로 삼는 것이 낫다는 분위기가 농민들 사이에 조성되고 있다고 보도함.

⇒ 보도 요지

- 현재 한국 농가의 평균 경작 면적은 가구당 1.45ha로 일본(1.57ha)이나 대만(1.2ha)과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대규모 기계 영농을 하는 미국(120ha)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 한국산 쌀값(80kg 기준으로 16만7720원)이 미국산(4만4448원)보다 4배 가까이 비싼 것도 영세성 때문.
- KREI 최세균 박사 등 대다수 전문가들은 경쟁력 있는 품목 위주로 작물을 개편하면 외국 농산물과도 경쟁할 수 있다고 농업시장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
- 한국 농업은 내년부터 WTO국제농업협상, FTA, 쌀 재협상 등 전방위적인 농업시장 개방 압력에 직면. 전문가는 어차피 개방이 대세라면

한국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협상 과정에서 개방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

□ 국민일보-전업농 확대 등 치밀한 계획 뒷받침 돼야

- <국민일보 12.17>는 ‘위기의 日농업과 한국의 선택’ 보도를 통해 쌀개방 에 지난 30년 동안이나 대비한 일본마저 글로벌 시대의 개방 파고 속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아픔을 겪고 있어 우리 농업이 헤쳐 나가야할 길이 얼마나 험할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

⇒ 보도 요지

- 우리 정부가 밝힌 농정 10개년 투융자 계획은 재촌탈농(在村脫農) 지원대책과 농외 소득원 및 전업농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는데, 개방화 시대를 맞아 어쩔수 없는 방향이지만 치밀한 농업정책, 농가 복지 향상 등이 없다면 몰락하는 일본 농업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
- 특히 DDA 뿐만 아니라 쌀 재협상, 자유무역협정(FTA) 등 잇단 개방 파고에 맞서 우리 농업이 생존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감도 농가에 팽배. 우리 농촌이 급속하게 고령화돼 가고 있고 개방화로 인해 농사를 포기하는 농민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은 농업 개방을 받아들이되 농가에 대한 대대적 지원을 해주는 일종의 맞바꾸기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 개방이라는 시대적 추세를 농민이 거부하지 않도록 하는 대신 값싼 농산물의 혜택을 입는 국민이 농가를 지원하는 부담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 놀리는 논에 대한 직접 지불금 확대, 주5일제에 대비한 농촌 관광 등 틈새산업 확대, 비 전업농에 대한 다양한 사업 보조 등도 필요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